

襄陽文化

제34호

襄陽文化院



양양10경



1경 남대천



남대천의 발원은 오대산 두루봉이며 후천은 정봉산과 구룡령에서 발원하여 약 54Km의 하루 서문천에 합류하여 동해로 흘러가는 청정수역이다. 봄에는 바다에서 온어, 황어 가을에는 연어가 소상하고 겨울이면 시베리아서 큰고니(백조)가 찾아오는 회기 분능의 강이며 양양군민의 식수원이다.



6경 죽도정



죽도정은 「신증동국여지승람, 양양도호부편에 죽도는 부 남쪽 45리 관란정 앞에 있으며 푸른 대나무가 온 섬에 가득하다. 섬 밑 바닷가에 구유간이 오목한 돌이 있는데 '동근 돌'이 그 속에 서 이리저리 구르고 달아서 오목하게 됐다'는 전설이 있으며, 최근 해변에는 수상레저를 즐기는 마니아들로 북적인다.



2경 대청봉



국립공원 설악산 주봉인 대청봉(1,708m)은 서면 설악산산번지이다. 조선 정조 때 문인 성해응의 「동국명산기」에 '그 봉우리가 높아서 높고 푸른 하늘을 만질 듯하여 그 최고 정상을 가리켜 청봉이라 이름 하였다'고 하며 정상에서 동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인다.



7경 남애항



남애항은 양양군에서 규모가 가장 크고 아름다운 1등 국어항이며, 강원도 3대 미항 중에 하나이다. 조선시대에는 인근의 양양군(襄陽)에 봉수대가 있었으며, 아편전쟁에는 마을 어민들이 직접 젊은 심상한 생선이 넘쳐나 많은 관광객이 찾는 여운 체험 항이다.



3경 오색령



원래 이름은 소솔령所率嶺이었으나 조선 선조(1596년) 때부터 오색령(1,004m)으로 고쳐 불러졌으며, 현재 44번 국도로 영동과 영서의 분수령이다. 우리나라 아름다운 경관도로 제54선으로 선정되어 가을철이면 많은 관광객이 온집한다.



8경 의상대



의상대는 낙산사를 창건한 의상대사의 최선 수행처이다. 매월당 김시습이 낙산사 주지에게 보낸 시문과 단원 김홍도의 '해동명산도첩'을 미루어 볼 때 16세기 이전에 세워진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48호와 양양군 명승 제27호로 지정된 동해 일출의 명소이다.



4경 주전골



오색 약수터에서 선녀탕을 거쳐 정봉산(1,424m) 서쪽 비탈에 이르는 계곡이며, 오색님이 12세에 출가한 오색석사와 주위에 독주암, 만물상, 만경대, 선녀탕, 용소폭포, 12폭포가 있어 운치를 더해 주며 가을 단풍이 백미이다.



9경 오산리 선사유적 박물관



출토된 신석기 유물과 오산리 신석기인들의 생활 모습이 전시, 재현되어 있다. 볼 피운 자리가 발견된 움집터에 직접 들어가 보는 움집 체험과 깨진 빗살무늬토기, 움집을 복원하는 퍼즐 체험 등 특별한 체험프로그램도 운영되고 있어 마치 선사시대로의 시간여행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다.



5경 하조대



양양군 명승 제68호로 지정된 하조대는 고려 말 명관인 하윤과 조순이 한 때 은거했던 곳이라 하여 두 성을 따서 붙여진 이름이다. 기암절벽이 우뚝 솟아 있는 육각정자와 애국송은 동해 일출의 명소로, 조선 숙종 때 양양부사 이세근이 정자 안 바위에 하조대 라고 쓴 암각문이 남아있다.



10경 양양 서핑로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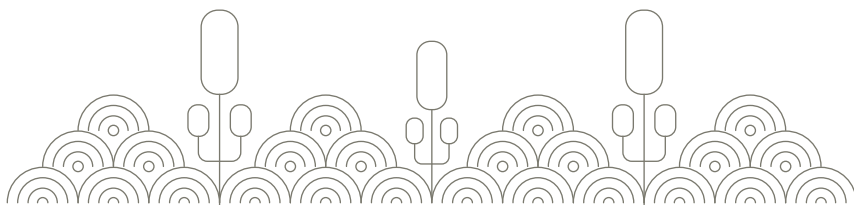


현북면~현남면 바다 일원에서는 어디에서나 검은 슈트를 입은 서퍼들이 점점 바다를 유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수심이 얕아 초심자들이 서핑을 시작하기 적합한 환경 사람들이 북적이며 서핑의 성지라 불린다. 이 구역을 양양 서핑로드라 지명하여 10경으로 선정하였다.



襄陽文化

제34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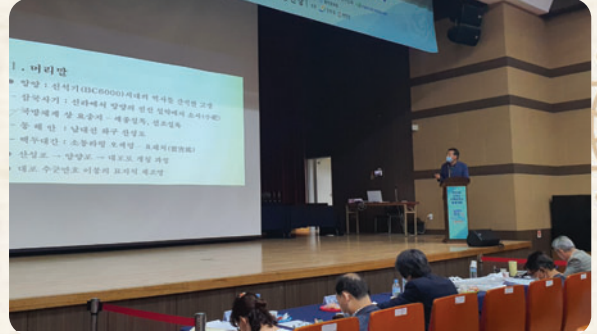


襄陽文化院

PHOTO CLUB



제44회 양양문화제 성황제



제32회 강원도향토문화연구발표대회



양양문화원장 이취임식



동해신묘의 정체성과 복원에 대한 학술대회



제27회 강원도사물놀이경연대회



제5회 가을밤의 문화공연



문화원회원및문화학교수강생 유적지 답사



향토문화교육(답사)



제12회 전국동구리전통민요 경창대회



허억봉 대금강좌 종강식



청소년과 함께하는 도자기체험(페인팅)



강원문화대축전



조화벽지사선양 작품전시회



문화학교수강생 작품전시회 테이프컷팅식



문화학교 수료식



문화학교수료식 공연



목차 Contents

발간사 양양문화원장 박상민	9
신년사 양양군수 김진하	11
신년사 양양군의회위원장 오세만	12
신년사 국회의원 이양수	14

향토사료

● 양양의 大浦와 水軍萬戶 李芑에 관한 高察 양양문화원부설 양양학연구소	16
---	----

2022 문화학교 소개

● 2022년도 문화학교 소개 및 학생 수상, 공연내역 편집실	31
● 2022 천재음악가 허억봉 선양사업 대금반 편집실	39

양양소식지 자료(숨어있는 향토사이야기)

● 양양지역의 황장봉산과 최근 발견된 금표의 실태를 알아본다외(1-12월) 편집실	41
---	----

제7회 전국한시백일장(願雪嶽五色索道建設) 입선시

● 장원, 차상, 차하, 참방, 가작 편집실	78
----------------------------	----

조화벽선양 문예대회 공모전 입선작

● 시, 산문, 포스터 편집실	102
--------------------	-----

청소년과 함께하는 도자기체험(페인팅) 소감문

● 양양중학교 3학년 학생	113
----------------	-----

향토문화일꾼

● 양양문화원 임직원	120
-------------	-----

양양 구석구석

● 약수	122
------	-----

건강상식

● 당뇨병	124
-------	-----

2022 양양문화원 언론홍보 현황	129
--------------------	-----

하나전기

전기공사, 전기안전관리대행, 전기업무상담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양양로96 2층

TEL. 033.671.0604 FAX. 033.671.4862

H·P. 010.4790.4861

E-MAIL. hana02197@hanmail.net



대표 김 동 진

강원도 양양의 명소 (BTS방문)

금강산대게횃집 T. 033) 671-5207
 퍼플315호텔 T. 033) 673-0777
 빈315커피 H. 010-8795-9229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해맞이길 8-5

양양양수발전소는 친환경 발전소 구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홍보관(양양에너지팜) 개관시간 : 오전 9시 ~ 오후 5시

※ 견학신청 및 문의전화 : 070-4034-2344~7(무료 관람)



 한국수력원자력(주) 양양양수발전소

미래의천년大界 성우건설이 책임지겠습니다.



회사소개

- 시설물 유지관리업
- 금속구조물, 창호공사업
- 실내건축공사업

주요 공사업종

- 건물신축
- 리모델링공사
- 인테리어 공사



주성우건설
SUNGWOO CONSTRUCT CO., LTD.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안산1길 70
Tel.033-672-0401 Fax.033-672-0402
e-mail. yesgada007@naver.com

발간사

희망찬 계묘년(癸卯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군민 여러분과 문화 가족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기를 기원드리며 지난해에 보살펴주신 은혜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는 코로나 팬데믹과 함께 국내외적으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우리 군민들의 한마당 축제인 양양문화제도 3년간 개최치 못하고 고치물제와 성황제의 봉행만으로 대신하였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 양양은 교통 여건의 개선과 새로운 패러다임에 부응하는 지역개발로 대한민국에서 제일 핫한 지역이 되어 많은 투자자들과 귀촌자들이 이주해오는 세계로 미래로 뻗어가는 명품 도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우리 문화원도 향토사 연구소를 지역학 연구소로 명칭을 바꾸어 본격적으로 양양학연구사업에 매진할 준비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역사적 정체성을 찾아가는 중요한 사료인 동해신묘의 정체성과 복원에 대한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양양문화의 기틀을 만들어가는 근간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리 우리의 삶인 전통민요 보존을 위한 제12회 전국 동구리 경창 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하였으며 강원도 교육청과 양양군의 후원으로 우리 양양이 낳은 여성 독립운동가 조화벽 지사 선양 문예대회를 개최하여 다음 세대의 주역들에게 선각자의 얼과 애국심을 심어주는 기회를 갖기도 하였습니다.



양양문화원장
박상민

존경하는 문화원 회원 여러분!

계묘년 금년 한해는 그 어느 해보다 중차대한 한해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팬데믹으로 개최하지 못하였던 제45회 양양문화제를 명실상부한 군민의 축제로 승화시켜 우리 군민들의 일상을 회복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새로 건축하게 될 문화원 원사에 우리 양양의 정명 600년사와 양양의 3·1만세운동의 역사를 기록 보존해갈 기념관을 만드는 준비도 착실히 추진해 가겠습니다.

아울러 새로운 변화의 시대에 걸맞는 향토문화창달을 이끌어갈 학습 분위기 조성을 양양군에서 추진하는 평생학습도시와 연계하여 문화학교의 위상을 재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뿐만아니라 문화원 회원 여러분이 함께 할 수 있는 문화탐방과 섬김의 문화운동도 내실화하여 군민과 함께하는 문화원 지역 문화에 중심이 되는 문화원이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군민 여러분의 성원 속에서 우리 고장의 찬란한 전통문화가 꽃 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하면서 희망찬 계묘년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하시고자하는 모든 일들이 보람으로 성취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2023년 계묘년(癸卯年) 새해 아침이 밝았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세상을 밝게 비추는 새해의 빛나는 태양처럼 꿈과 희망이 가득한 눈부신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는 민선 7기의 마무리와 새로운 민선 8기의 시작이 교차하는 상황을 맞으며 그 어느때 보다 다사다난(多事多難) 했던 한해였습니다.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코로나19와 경기 불안정 속에서도 잘 견뎌 주시고, 큰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신 군민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에브라함 링컨은 ‘미래가 좋은 것은 그것이 하루하루씩 다가오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2023년은 아직 열어보지 않은 선물 같은 날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풀어가게 될 선물 꾸러미에 모조록 여러분이 이루고 싶은 꿈과 소망들로 가득 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한 날은 더욱 특별하게, 또 그렇지 못한 날들도 소외되지 않도록 의미 있고 멋진 하루하루를 채워가시기를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공자는 시경(詩經)에서 ‘행백리자 반어구십(行百里者 半於九十)’ 이라고 했습니다.

백리를 가는 사람은 구십리를 절반으로 생각한다는 뜻으로, 남아있는 십리가 더 어렵고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동안 구십리 길을 치열하게 달려왔고, 나머지 절반인 십리 길도 더욱 힘찬 발걸음으로 채워나가겠습니다.

그리하여 민선 8기의 양양시대를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이 발걸음에 군민 여러분의 열정과 저력을 실어 함께 동행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모두의 가정과 일터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양 양 군 수
김 진 하

신년사



양양군의회 의장
오 세 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지역의 향토 문화지인 「양양문화」제34호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항상 열과 성을 다해 우리 지역의 소중한 문화 가치를 전해주시는 양양문화원 박상민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희망찬 2023년 계묘년(癸卯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도 군민 여러분의 가정마다 행복이 가득하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을 이루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제9대 양양군의회가 구성되고 나서 처음으로 맞이하는 새 해가 되었습니다.

우리 의회가 군민의 대변자로서 지역 발전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에도 양양군의회는 군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며, 소통하고 화합하는 열린 의정활동을 펼치겠습니다.

지난 한 해에도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힘든 나날을 보냈습니다. 당분간 코로나와의 전쟁은 계속되겠지만, 계묘년(癸卯年) 검은 토끼의 힘찬 기상으로 모두가 힘과 지혜를 모아 함께 나아간다면, 머지않아 코로나를 완전히 떨쳐버리고 활력과 웃음이 넘치는 우리의 소중한 일상을 되찾을 것이라 믿습니다.

이 같은 좋은 기운을 이어서, 새해에도 양양군의회는 군민 여러분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군민의 행복을 위하여 힘차게 뛰겠습니다.



각종 현안사업 추진과 군민 복리를 위한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어린이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군민 여러분의 입장에서
필요한 것을 세심하게 살피고 정책으로 대변하는 것이 우리 의회의 사명임을
항상 가슴에 새기며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우리에게 큰 기대와 설렘을 가져다주는 것 같습니다.

2023년 새해,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각자의 소망을 이루는 희망찬 한해가
되기를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군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국 회 의 원
이 양 수

존경하는 양양문화원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속초·인제·고성·양양 국회의원 이양수입니다.

어느덧 2022년이 저물고 ‘검은 토끼’의 해, 계묘년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예로부터 토끼는 번창과 풍요를 상징한다고 전해지는 만큼 새해에는 우리 모두의 일상이 더욱 번창하고 풍요로워지길 기원합니다.

먼저 올 한 해 동안 우리 고장의 역사와 향토 문화의 맥을 이어온 박상민 양양문화원 원장님과 모든 임직원 여러분께 진심 어린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여러분들의 노력과 노고 덕분에 우리 양양의 선사 문화 유적, 불교·유교 문화 유적, 민족의 자긍심을 담은 3·1 만세 독립운동 호국문화유적에 이르기까지 독자적이고 훌륭한 향토 문화를 지켜올 수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 양양군은 지난 1년 동안 여러 부분에서 발전을 거듭해왔습니다.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기금 112억 원을 확보하여 서핑메카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었고, 인적·물적 교류의 촉매제 역할을 할 동해북부선은 2027년 개통을 목표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주민분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 역시 조만간 환경영향평가 보완서류를 제출하는 등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미래 성장의 동력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향토 문화 예술과 지역 발전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저 또한 지역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지역을 위한 의정활동을
변함없이 이어 나가겠습니다.

새해에도 여러분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며,
모든 소망이 이루어지는 희망찬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양의 大浦와 水軍萬戶 李芑에 대한 考察

양양문화원부설 양양학연구소

I. 머리말

양양은 선사문화(先史文化)가 살아 숨 쉬는 보고(寶庫)로 신석기 최고(BC 6000)의 역사를 간직한 고장이다. 『삼국사기』를 보면 신라시대의 설악(雪嶽)은 양양의 진산(鎭山)으로 소사(小祀)의 예를 올렸다는 기록이 있다. 지리적 특성은 동쪽으로는 동해에 연접하고 서쪽으로는 백두대간(白頭大幹)이 가로놓여 영로(嶺路) 또한 동서로 넘나드는 중요한 길목이라 할 수 있다. 『세종실록』지리지 양양도호부(襄陽都護府) 편에 “요해(要害)는 본부(府) 서쪽으로부터 인제 경계 소동라령로 가는데 36리, (要害, 自本府西去麟蹄境所等羅領三十六里)”라 했고, 선조 29년(1596) 2월에 오색령에 대해 “비변사가 적병이 영동으로 침입하면 이 영을 넘을 것이니 방비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한 점으로 미루어 국방 체제상 요충지였음을 알 수 있다.

조선 성종 21년(1490) 안인포(安仁浦)의 만호영(萬戶營)이 양양의 대포영(大浦營)으로 옮겨온 것은 안인포가 돌로 막혀 있어 배의 입출이 쉽지 못했기 때문이었다.¹⁾라 했다. 그러나 안인포가 옮겨



〈그림 1〉 세종실록 권15 기사 내용 원문

1) 『新增東國輿地勝覽』江原道 襄陽都護府 關防. 「大浦營 在府東十二里 成宗二十一年 自江陵安仁浦移泊于此 水軍萬戶一人 正德庚辰築石城 周一千四百六十九尺 高十二尺」

오기 이전부터 양양 남대천 하구에는 이미 산성포(山城浦)가 존재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은 세종 4년(1422)에 변처후(邊處厚)가 양양에 군수로 있을 때 …경내(境內)의 산성포 만호(山城浦萬戶) 이 양수(李養脩)에게 소금을 청하여 면화(綿花)와 닥나무[楮]를 바꾸었습니다.²⁾ 라는 대목에서 양양 경내에서는 처음으로 산성포(山城浦)란 포구 명칭이 등장한다.

강릉대학교 박물관 조사팀이 밝힌 양양군의 관방유적(關防遺蹟) 중 낙산사의 오봉산성(五峯山城)은 포곡형(包谷形)의 성곽(城廓)³⁾으로, 일명 낙산산성(洛山山城)이라고도 하는데, 채집기와 등으로 유추할 때 고려 시대 이후에 축조되어 왜구의 침입 등에 대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양양 남대천 하구로부터 반경(半徑) 2km 내의 성곽으로는 양양읍 조산리 성안마을 대포영성(大浦營城)과 낙산사 오봉산성(五峯山城)뿐이다. 그렇다면 산성포(山城浦)의 명칭은 낙산사 오봉산성(五峯山城)에서 따왔을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남대천 하구 인근의 산성으로는 낙산산성이 유일하였기 때문이다.

『세조실록』에 자주 거명되는 양양포(襄陽浦)와 강릉의 연곡포(連谷浦)는 유사점이 있다. 파도가 치면 모래가 하구에 쌓여 물길의 변동이 발생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었다고 본다. 당시의 지도를 확보할 수 없어서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가 1918년도에 발행한 1/50,000 지도에 표기된 강릉의 연곡천 하구와 양양 남대천 하구의 모습을 비교해 보았다.<그림 2, 3>

조선 중기와 일제강점기와의 시차(時差)는 상당히 있다. 그러나 매년 되풀이되는 강수량의 증·감에 따른 물길의 유동은 피할 수 없다고 본다.

최근에 조선시대 양양지역의 대포수군 만호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속초문화원의 역사, 문화 부문에서 산성포(山城浦)는 속초포(束草浦)의 이명(異名)⁴⁾일 확률이 높다는 주장이 나왔다.

세조 8년(1462) 병조에서 山城萬戶·連谷萬戶를 없애고 울진·삼척에 만호를 두게 하였다. 5년 후인 세조 13년(1467)에 일찍이 革罷한 連谷浦·襄陽浦 두포의 船軍과 강(江)



<그림 2> 1918년 조선총독부 발행 (1/50,000) 양양 남대천 하구 모습



<그림 3> 1918년 조선총독부 발행 (1/50,000) 강릉 연곡천 하구 모습

2) 世宗實錄 卷15 世宗 4年(1422年) 1月 25日 記事

3) 지현병·전유길, 『襄陽郡의 關防遺蹟』, 『襄陽郡의 歷史와 文化遺蹟』, 江陵大 博物館, 1994.

4) 2011年 江原道 郷土論文發表大會 (세종·세조실록상의 속초포(束草浦)와 산성포(山城浦)의 위치 비정 연구)

의 선척(船隻)을 다시 설치하고 만호가 수어토록 했다.⁵⁾

그로부터 1년 후인 세조 14년(1468)에 일찍이 험파한 연곡·양양포 두 포의 선척과 수부를 안인포에 이속하고 만호를 차견하여 방어토록 했다.⁶⁾란 기사가 왕조실록에 수록되어 있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 양양 경내에서 일찍이 험파한 포(浦)를 산성포(山城浦)라 하였는데 산성포란 명칭이 속초포의 이명이라는 전거(典據)는 그 어디에도 찾을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시 국가에서 명칭에 대한 구체적 설명도 없이 일찍이 험파한 양양포(襄陽浦)의 선군(船軍)과 강(江)의 선척(船隻)을 다시 설치하라고 한 것으로 보아 산성포는 호수가 아닌 강(江)의 포구라는 것과 산성포가 별도로 존재하였던 포가 아니라 명칭만 달리하였을 뿐 곧 양양포의 이칭이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 부연 하면 양양군의 수계는 백두대간에서 발원한 남대천, 물치천, 쌍천과 만월지맥에서 발원하는 동명천, 상운천, 광정천, 해송천, 화상천 모두 8개소의 물이 동해로 흐르는데 선척(船隻)이 가능한 하천은 양양 남대천 하구가 유일하다.

조선 성종 21년(1490)에 안인포에서 옮겨와 양양남대천 하구를 중심으로 대포영성(大浦營城)과 대포(大浦)로 지정할 때 입지 조건이 충분히 갖췄기 때문에 선정되었다고 보며, 지금은 하구 주변의 개발로 과거의 자취를 찾을 수 없다. 양양문화원 발행『郷土誌』에는 대포(大浦)를 일명 황포(黃浦)라 하였으며, 양양면 조산리 전방 남대천 하류구(下流口)에 있다고 했다.

본고에서는 조선 성종 때에 강릉 안인포에서 양양으로 이전된 대포(大浦)보다 앞서 이미 개설한 포구가 존재하였다는 사실과 포구의 명칭의 변천 과정은 최초 산성포(山城浦) → 양양포(襄陽浦) → 대포(大浦)순으로 개칭되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고문헌을 통해 살펴보고, 지난 2011년 3월 이 지역의 전주이씨 완풍대군(完豐大君)의 후손들이 선묘를 천장(遷葬)하는 과정에서 발굴된 약 500여 년간 감춰졌던 양양 출신 대포 수군만호(大浦水軍萬戶) 이봉(李芑)의 묘지석(墓地石)의 위상을 재조명(再照明)하여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토록 함이다.

II. 양양 대포 명칭의 변천

1. 위치

양양군 양양읍(襄陽邑) 조산리(造山里) 남대천 하구를 대포(大浦)로 지정하였다. 지정한 연대는 지금으로부터 530여 년 전인 조선 성종 21년(1490)이다. 대포에서 대포영(大浦營)까지의 거리는 서북향으로 약 500m에 떨어진 곳이다. 대포영 관저 앞쪽의 넓은 호수를 일명 조산호수(造山湖水)라 불렀다고 하는데, 예

5) 세조실록 43권, 세조 13년 8월 24일(丁巳) 7번째 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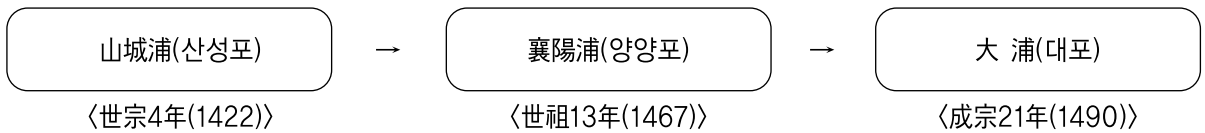
6) 세조실록 46권, 세조 14년 6월 4일 임진 3번째 기사

전부터 남대천 하구에서 대포영성 앞까지 하나의 큰 호수였다. 지금은 전담으로 조성되어 농사를 짓고 있지만, 윗대의 어르신들이 전하는 말에 의하면 당시에는 어선들의 정박은 물론 투망으로 소상 어류를 잡아 생계를 유지하였다.⁷⁾고 한다.

양양부사 이해조(李海朝(1660~1711))의 현산 30영(峴山三十詠) 중 제29영(第二十九詠)⁸⁾ 납호당망해(納灑堂望海, 납호당에서 멀리 바다를 보다)란 시를 보면, “남대천과 늪이 해자(孩子)처럼 겹쳐진 부족한 한쪽을 아름답게 꾸몄네.”라고 읊었다. 호수의 규모는 남대천 하구에서부터 대포영성(大浦營城) 앞까지인데 넓고 커서 선척(船隻)⁹⁾이 유사시에 원활히 해상작전을 전개할 수 있었던 곳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한 양양 남대천 포구(浦口)인 속칭 조산(造山)호수를 대포(大浦)라 불렀는데 『鄉土誌』자연환경, 하천과 호소(湖沼)편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대포(大浦)는 다른 이름으로 황포(黃浦)라고 한다. 양양면(襄陽面) 조산리(造山里) 전방 남대천(南大川) 하류구(下流口)에 있다. 파도가 심하면 하구가 막혀서 호수(湖水)가 조산리(造山里) 앞까지 차오른다. 호(湖)의 서북에 대포성(大浦城)이 있었으므로 그 뜻을 따서 대포(大浦 또는 한개목)라 명칭하였다.(水軍萬戶가 駐屯하였다)”¹⁰⁾ 라 하였다.

2. 대포명칭(大浦名稱)의 변천



7) 최홍회(남. 85세, 양양읍 조산리), 면담자료(2021. 04. 16).

8) 李海朝 <峴山三十詠>第29詠納灑堂 納灑堂 在太平樓東數十步許 俯海一面 舊爲遊賞之所 堂毀未復

납호당(納灑堂)은 부의 태평루(太平樓)에서 동편으로 수십보 정도에 있다. 한 면을 굽어 바다를 보면서 예전에 유상하던 곳이나, 당은 훼손되었으며 복구되지 않았다.

第29詠 灑堂望海 納灑堂(납호당에서 멀리 바다를 보다)

習池與漢水(습지여한수) 남대천과 늪이 해자처럼 겹쳐진/不足一染指(부족일염지) 부족한 한쪽을 아름답게 꾸몄네./卷我黃竹簾(권아 황죽렴) 내 누런 죽렴을 말아 올리고 보니/盡納滄溟水(진납창명수)납호의 끝은 큰 바닷물과 이어졌네./鯨鵬戲樽俎(경봉희준조) 영웅호걸들은 연회를 즐기는데/鶻鴉掠枕几(슴아락침개)달 같은 계집은 침상서 노니네./時時遇槎仙(시시우사선) 때때로 뗏목의 신선을 만나서/窮河問道里(궁하문도리)물길이 얼마나 되는가 묻노라.

9) 船隻(지식백과)배, 제포(諸浦)에 관선(官船)으로 배치된 병선(兵船)·조선(漕船) 등을 가리킴

10) 襄陽文化院『鄉土誌』1976. p.61.

1) 산성포(山城浦)

『세종실록』에 의하면 세종 4년(1422)에 사헌부에서 계(啓)하기를 전 판정주목사(判定州牧事) 변처후(邊處厚)가 일찍이 양양(襄陽)에 군수(郡守)로 있을 때에 비리와 관련해서 “경내 낙산사의 진수정 염주 21개를 비밀리에 사고 또 경내(境內)의 산성포 만호(山城浦萬戶) 이양수(李養脩)에게 소금을 청하여 면화(綿花)와 닥나무[楮]를 바꾸었습니다.¹¹⁾” 라는 대목에서 산성포(山城浦) 이름이 처음 등장하는데 낙산사의 경내에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세조 8년(1462) 병조에서 “강원도 산성포(山城浦)는 즉 포구(浦口)에 모래가 메워져서 배가 드나들 수 없고 정박(定泊)하기가 어려우며, 연곡포(連谷浦)는 포구에 암석이 많아서 역시 배를 정박시키기가 어려우니 만호(萬戶)를 두기가 마땅치 못하고, (중략) 청컨대 산성만호(山城萬戶)·연곡만호(連谷萬戶)를 없애고 울진·삼척에 만호를 두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¹²⁾라고 했다. 위의 자료에서 보았듯이 산성포(山城浦)란 명칭은 세종 4년에 처음으로 등장하였다가 세조 8년에 혁파(革罷)되었다.

2) 양양포(襄陽浦)

『세조실록』세조 13년(1467)의 기록을 보면 안인포는 해문이 광활하게 통하고 또 수심도 배를 정박할 수 있는 곳으로 개선되었으나, 강릉은 거주하는 인구가 많아서 연곡(連谷)·양양(襄陽) 두 포(浦)를 개선하여 선군(船軍)과 강(江)의 선소(船艘)를 다시 설치하고 만호(萬戶)가 수어(戍禦)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¹³⁾라고 하였다. 여기서 세조 8년의 산성포는 세조 13년의 양양포와 동일한 곳임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세조 14년(1468)의 기록에 의하면 병조(兵曹)에서 강원도의 병마절도사(兵馬節度使)·수군절도사(水軍節度使)의 계본(啓本)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강릉의 안인포(安仁浦)는 삼척(三陟)과 고성(高城) 사이에 있어, 해구(海口)가 통활(通闊)하며 병선(兵船)이 정박할 만합니다. 강릉은 거주하는 인구가 조밀하여 왜구(倭寇)가

11) 『世宗實錄』세종 4년(1422) 司憲府啓: “前判定州牧事邊處厚曾任襄陽時, 衙中所藏廬布九十匹, 乾魚百五十首, 鹽十斗等物來處, 不直答通 又以衙中乾魚及官中乾魚并百五十首, 海藿四十束, 換生繭六石私用 又收巫女鎗鐵十一兩并衙中鎗鐵, 造鎗鉢私用 又密買境內洛山寺眞水精念珠二十一枚. 又請鹽于境內山城浦萬戶李養脩, 換縣花及楮 辭連各人, 明白納招, 而處厚不承, 請收職牒鞠問 上以犯在赦前, 命勿論

12) 『世祖實錄』世祖8年 9月 14日 兵曹據都體察使韓明滄啓本啓: 江原道山城浦則浦口填沙, 船不得出入, 泊立爲難, 連谷浦則浦口多巖石, 亦難泊船, 不宜置萬戶 蔚珍, 三陟兩浦則賊程要衝, 乃以守令兼管, 倘有事變, 則兼治水陸軍, 其勢甚難 請革山城, 連谷萬戶, 置萬戶於蔚珍 三陟 從之

13) 『世祖實錄』世祖13年 8月 24日 兵曹據江原 黃海道體察使韓繼美啓本啓: “曾革江陵安仁浦, 海門通闊, 且水深可爲泊船之處, 況江陵府在海邊中央, 人居稠密, 請以曾革連谷, 襄陽兩浦船軍及江艘復設, 萬戶戍禦.” 從之.

있을까 염려되니, 청컨대 일찍이 혁파(革罷)한 연곡포·양양포 두 포의 선소(船艘)과 수부(水夫)를 안인포에 이속(移屬)하고 만호(萬戶)를 차견(差遣)하여 방어를 굳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¹⁴⁾라고 하였다. 이 자료를 통해 세조 8년의 산성포가 세조 14년에 기록된 양양포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일찍이 혁파한 포(浦)는 양양지역에서는 산성포(山城浦)가 유일하다.

3) 대포(大浦)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보면 진보(鎭堡)와 관방(關防)인 대포영(大浦營)은 양양 동쪽 12리에 위치하며, 조선 성종 21년(1490년)에 강릉 안인포(安仁浦)에서 양양으로 옮겼다.¹⁵⁾ 『鄉土誌』에는 인조 4년(1626) 병인(丙寅)에 방위지(防衛地)가 못 된다고 혁파하였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일각에서는 1605년(선조 38년) 을사포락(乙巳浦落) 때에 군항의 기능이 마비되어 혁파한 것으로도 보고 있다.¹⁶⁾

지금으로부터 180여 년 전인 조선 순조 34년(1834)에 김정호가 제작한〈그림 4〉『청구도』에는 대포(大浦)의 위치가 남대천 하구로 표기되어 있다. 김정호(金正浩)가 제작한 지도내용을 살펴보면 대포(大浦)를 중심으로 서쪽으로 양양도호부 위치가 표기되어 있고 북쪽으로 낙산사 오봉산(五峯山)이, 남쪽으로 동면(東面)의 쌍호(雙湖)가 각각 표기되어 있다.

〈그림 5〉『대동여지도』에는 대포(大浦)의 위치가 남대천 하구 북쪽 방면의 양양읍 조산리가 아니고 남대천 하구 남쪽 방면인 손양면 오산리 부근으로 옮겨 그려져 있는데, 현 대포영지가 남대천 하구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착오로 보인다. 그러나 남대천 하구에 위치하고 있었음은 분명하다.



〈그림 4〉 청구도의 대포 위치



〈그림 5〉 대동여지도의 대포 위치

14) 『世祖實錄』世祖14年 6月 4日. 兵曹據江原道兵馬, 水軍節度使啓本啓: "江陵安仁浦, 在三陟, 高城之間, 海口通闊, 可泊兵船 且江陵人居稠密, 慮有倭寇, 請以曾罷連谷, 襄陽兩浦船艘及水夫, 移屬安仁浦, 差遣萬戶, 以固防禦" 從之

15) 『新增東國輿地勝覽』卷之四十四 襄陽都護府 關防 大浦營 在府東十二里 成宗二十一年 自江陵安仁浦移泊于此 水軍萬戶一人 正德庚辰築石城 周一千四百六十九尺 高十二尺

16) 李鍾萬〈남. 87세. 양양문화원부설향토사 교문〉. 면담자료(2021. 04. 15)

Ⅲ. 양양 대포영지 유적

1. 오봉산성(五峯山城)

■ 소재지 :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전진리, 조산리 오봉산(낙산산성)이며 지방문화재 제33호이다.

■ 위치 및 현상

오봉산고성(五峯山古城)은 洛山寺 寺城을 둘러싸고 있는 토석혼축성(土石混築城)의 포곡형으로 봉우리와 봉우리를 연결하여 성곽을 축조하였다. 낙산산성은 기록¹⁷⁾에 의하면 ‘낙산사가 있는 오봉산을 둘러싼 고성으로 설악산의 동쪽 한 가지가 동해안에 머무른 곳에 흙으로 쌓아 졌으며 그 양양도호부 북쪽 혹은 동북쪽 15리에 있는 오봉산 일명 낙산에 홍예석문을 가진 낙산사가 있다’고 하였다. 다른 이름으로 낙산산성(洛山山城)이라 하는데, 오봉산성(五峯山城)은 성곽의 전체 길이는 약 1,150m, 높이는 잘 남아있는 부분이 약 1,5m, 폭 약 2m이다. 전체적으로 성벽은 잘 남아있으나 일부 무너진 것이 있어 정비 복원이 시급하다고 본다.¹⁸⁾ 라 했다.

이곳 오봉산산성은 채집기와 등의 유물 등을 살펴볼 때 고려시대 이후에 축조되었을 것으로 사료되며, 왜구의 침입 등에 대비한 사찰 자체방어 시설로 유추할 수 있다.¹⁹⁾

따라서 양양의 대포영이 본 사찰을 중심으로 서쪽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남쪽으로 약 2km 지점의 남대천 하구는 대포진(大浦鎭)이 설치되어 선척(船隻)의 입출항이 용이하여 적의 해상 침투방어 전진기지(前進基地)로 활용하였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림 6〉 오봉산성 위치도



〈그림 7〉 오봉산성 채집기와

17) 『新增東國輿地勝覽』卷之四十四 襄陽都護府 山川 五峯山 在府東北十五里 或稱 洛山

『大東地志』卷十六 襄陽 城地 五峯山古城 土築 有紅霞石門 洛山寺在其中

18) 지현병·전유길 江陵大學校 博物館, 앞의 책 p.219.

19) blog.daum.net/kimseongsoo/11615926

2. 대포영지(大浦營址)

- 소재지 :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조산리 성내 말
- 위치 및 현상

양양의 대포영지(大浦營址)는 대포성과 같은 것으로 추정되나 기록에는 따로 분류하였다.²⁰⁾고 했다.『新增東國輿地勝覽』에 보면 진보(鎭堡)와 관방(關防)인 대포영은 양양 동쪽 12리에 위치하며 강릉 안인포에서 조선 성종 21년(1490)에 양양으로 옮겨 왔고 중종 15년(1520년)에 석축을 쌓았는데, 성곽 둘레가 1,469척(445.1m)에 높이가 12척(3.6m)이다²¹⁾ 라고 했다.



〈그림 8〉 현 대포영지 전경

대포영은『대동지지(大東地志)』·『동국여지지(東國輿地志)』·『여지도서(輿地圖書)』·『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등에도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자료의 끝부분에 공통으로 금폐(今廢)라 했다. 이 시기가 언제인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추정할 수밖에 없다. 1976년 양양문화원이 발행한『鄉土誌』에는 인조 4년(1626년)에 혁파(革罷)하였다.²²⁾라고 하였다. 『朝鮮寶物古跡調査資料』에는 "성지(城址) 양양면 조산리 마을에 근접한 서방봉근(西方峰筋)에 있다. 주위 약 삼백간(約三百間) 토축 일부 석축 불완전(不完全)²³⁾"이라 하였다.

20) 江陵大學校 博物館. 1994.『襄陽郡의 歷史와 文化遺蹟』p. 209.

21) 『新增東國輿地勝覽』卷之四十四 襄陽都護府 關防 大浦營 在府東十二里 成宗二十一年 自江陵安仁浦移泊于此 水軍萬戶一人 正德庚辰築石城 周一千四百六十九尺 高十二尺

22) 襄陽文化院, 1976년『鄉土誌』p. 101.

23) 朝鮮總督府. 1942년『朝鮮寶物古跡調査資料』P. 5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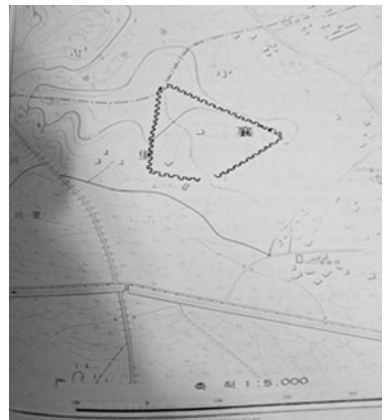
『文化遺蹟總覽』上卷에는 “1490년 안인진에서 옮겨 왔으며 1520년 석축(石築)으로 수축(修築)한 것을 알 수 있다. 지금은 모두 허물어졌는데 성내(城內)에서 초기철기시대의 토기편이 발견되고 있고 토성은 이때부터 있었던 것인지도 알 수 없다.”고 하였다.

강릉대학교 박물관과 양양군에서 공동으로 발간한『襄陽郡의 歷史와 文化遺蹟』에는 대포성지의 모양은 평면 삼각형으로 낮은 구릉과 평지를 연결한 평산성으로 성(城)의 남서편(南西便)은 문지로 추정되고, 동편 성벽 차른 면에 큰 화강암 석재가 3~4단으로 남아있고 성 안쪽에는 동명서원과 민가 2채가 자리하고 있다. 성벽의 전체 폭은 약 4m 정도이고 외벽은 잘 다듬어진 석재로 쌓았으며 안쪽 면은 토축(土築)이다. 성의 동쪽 끝과 북쪽 끝은 가장 높은 지역으로 해발 약 33m와 45m 높이로 급격히 돌아가는 것으로 보이는 성곽으로 추정된다. 성의 북쪽 면에는 도로가 나 있는데 북문지로 추정되며 안쪽에서 보아 좌측 면에는 문지의 기초석이 잘 남아있다. 성(城) 안쪽 면은 대부분이 경작지로 변하여 알 수 없는 상태이나 성벽 외각 전체 길이는 약 550m이고, 폭은 약 4m이다. 전체적으로 성곽이 잘 남아 있으나 북쪽 면은 군(軍)의 교통호 설치로 일부가 파괴된 상태이다.²⁴⁾라 했다.

성안에는 시멘트로 만든 우물이 있는데 우물 외부에는장방형의 보호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데 “庚午 7月 建設”이라고 음각된 글자가 보인다. 경오(庚午)라면 일제강점기인 1930년에 만든 것으로 지금으로부터 90여 년 전이 된다. 우물의 시설 규모는 밑바닥 주변에는 깎 돌로 50cm 높이로 쌓았고 그 위에 시멘트로 보호대를 4m정도 깊이로 쌓았다. 보전되어온 시설의 규모로 보아 협소하고 보잘것없다 하겠으나, 역사적인 측면에서 대포영성과 연관 지어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림 9〉 현 대포영지 석축 모습



〈그림 10〉 大浦營城 위치도



〈그림 11〉 대포영지 우물터로 추정

3. 대포영 관사를 학사(學舍)로 활용

양양군 양양읍 조산리에 소재한 동명서원(東溟書院)은 인조 6년(1628)에 건립되었다. 당시 양양도호부사(襄陽都護府使) 조위한(趙緯韓)은 흥학(興學)에 뜻을 두고 그 방안을 강구 하던 중 대포영(大浦營)의 군용 건

24) 지현병·전유길 江陵大學校 博物館, 『襄陽郡의 歷史와 文化遺蹟』1994年. p.212.

물이 방치되어 장차 헐리게 될 것을 발견하고 이곳을 학사(學舍)로 전용토록 하였으며, 이것이 서원이 건립되는 단초(端初)가 되었다. 서원 건립을 위해 숭모(崇慕)의 상징이 될 만한 선현을 물색하던 중 전정언 노경복(前正言/盧景福) 사람 최정립, 이현일 등의 향론으로 양열공 조인벽이 추천되었으며, 이에 조위한부사의 협조로 강당 뒤편에 사당을 건립하여 忠賢祠라 명명하고 조인벽을 봉향하였으며, 동명서원(東溟書院)으로 현판(懸板)하였다.



〈그림12〉 동명서원 전경

아울러 부사 조위한은 전답과 소금 굽는 가마와 어선 한 척을 지원하여 전속시켜 서원의 운영을 협조하였다.²⁵⁾

IV. 수군만호 이봉(李芑)의 墓地石 出土

1. 수군만호 李芑

2011년 강원도 양양에 사는 전주이씨 완남군파(完男君派)의 납골묘 조성 과정에서 조선조 중종 때 대포만호(大浦萬戶)를 지낸 이봉(李芑)의 묘지석이 출토된다. 문중의 기록에 의하면 이봉(李芑)은 강원도 양양출신(襄陽出身)인데 그의 조부 진릉군[晉陵君/司憲府:執義]이 계유정란(端宗癸酉靖亂)으로 삼척(三陟)에 유배(流配)되었다가 4년이 지난 1456년 봄에 풀려나 양양으로 이전하여 터를 잡는다. 간성군수 겸 강릉진병마동첨절제사(杆城郡守兼江陵鎭兵馬同僉節制使)를 지낸 그의 부친 교리공(校理公)은 두 아들을 두었는데 대포만호(大浦萬戶) 이봉은 그의 둘째 아들이다.

묘지석에 의하면 이봉은 21세인 1507년 충무위 무관 벼슬길에 나가고, 1526년 내금위로 전보되었다가 3년 만인 1529년에 공을 인정받아 43세에 서반 정3품 당하관인 어모장군 신분으로 대포만호에 임명된다. 조선왕조실록에 의하면 조선 성종(成宗) 21년(1490년)에 강릉대도호부(江陵大都護府) 안인포(安仁浦)에 있던 수군기지(水軍基地)가 양양도호부(襄陽都護府) 대포로 옮겨오고 중종(中宗) 15년(1520년)에 둘레1,469척, 높이 12척의 석성(石城)을 쌓았다고 하니 그는 군항(軍港)으로서 대포영의 모습이 어느 정도 갖춰진 후에 근무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 묘지석에는 그가 퇴직하여 강촌에서 쉬면서 고향 선비 선배들과 지내다가 1552년 2월 1일 자택에서 66세를 일기로 병사하여 동년 4월 9일 양양부 북리 위산촌(지금의 양양읍 기정리)에 묻혔다고 기록되어 있다. 당시의 풍습이나 환경으로 미루어 볼 때, 그가 살던 집과 묘소가 멀지 않았을 것이고 그의 근무처와 거처

25) 지현병·전유길 江陵大學校 博物館, 앞의 책 고 한다.

(사저이든 관저이든)가 근거리에 있었을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이러한 유추를 감안하거나 청구도에 표기된 대포의 위치를 볼 때 대포영은 현재의 기정리와 인접하고 하구가 잘 발달된 조산리 인근에 위치하였다는 설명이 설득력이 있다.

2. 교리공(校理公) 문중의 방조산소(傍祖山所) 관리

교리공(校理公)은 아드님 두 분을 두었는데 제1남은 성균진사(成均進士) 휘 옹(翬)으로 후손들이 왕성하게 번성하여 승조돈종의 씨족문화를 계승하고 있으나, 제2남인 대포만호(大浦萬戶) 휘(諱) 봉(芑)은 삼대(三代) 밖에 잇지 못하고 절손되었으니 500여 년이 훨씬 지난 이 날까지 교리공(校理公) 제1남의 후예(後裔: 이하 교리공파라 칭함)들이 방조의 묘소관리와 봉제사(奉祭祀)하여 왔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사회는 시대사조(時代思潮)에 의해 숭고한 우리 민족의 미풍양속, 고유 전통문화는 날로 퇴폐화(頹廢化)의 늪으로 몰락하고 있으며 장묘문화(葬墓文化)는 시대에 따라 편리하게 변질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변 일부에서는 방조산소(傍祖山所)를 봉제사하는 교리공파 문중에 대하여 힐난(詰難)하는 퇴폐풍조가 안개같이 일어나는 현실을 극복하고자 부득이 문중 결의를 거쳐 한곳에 납골묘(納骨墓)를 조성하고 영원히 봉제사하고자 2011년 3월 21일 양양군 손양면 학포리 산10번지 선영하(先塋下) 건좌손향원(乾坐巽向原)에 조부모(祖父母) 다섯 부부의 유해를 봉안하게 되었으며, 이곳 납골묘에 모신 방조(傍祖)는 다음과 같다.

어모장군행대포만호휘봉	(禦侮將軍行大浦萬戶諱芑)
배숙부인강릉박씨	(配淑夫人江陵朴氏)
통훈대부행내수사별좌사헌부감찰휘공추	(通訓大夫行內需司別座司憲府監察諱公樞)
배숙인안성이씨	(配淑人安城李氏)
통덕랑행순릉참봉휘공권	(通德郎行順陵參奉諱公權)
배공인정선전씨	(配恭人旌善全氏)
내금위장휘공로	(內禁衛將諱公櫓)
배정부인강릉김씨	(配貞夫人江陵金氏)
계공랑행군자감직장휘경림	(啓功郎行軍資監直長諱景霖)
배안인강릉박씨	(配安人江陵朴氏)

3. 傍祖墓所 啓墓에 대한 有感

우리 사회에서는 조상의 묘소를 천장(遷葬)하는 사례를 많이 본다. 계묘(啓墓)하는 과정은 통속화된 사례

편람에 의한 개장 절차에 따랐다. 지난 2011년 3월 21일 일찍부터 부슬부슬 차가운 봄비가 내리는 가운데 포클레인을 앞세우고 교리공파문중 회장 정하(正河), 총무 주성(柱誠)외 종원 5명[주희(柱禧)·복수(福洙)·주일(柱一)·주천(柱千)·종우(鍾禹)] 이 대포만호 이봉(李芑)의 개산부터 착수했다.

먼저 대포만호(大浦萬戶) 이봉(李芑)의 신상(身上)을 살펴보면 품계는 정3품이며, 어모장군(禦侮將軍)이다. 조선 성종(成宗) 21년(1490년)에 강릉대도호부(江陵大都護府) 안인포(安仁浦)에 있던 수군기지(水軍基地)가 양양도호부(襄陽都護府) 대포[大浦: 지금의 양양읍 조산리 성안말]로 옮겨왔다.

당시에는 대포영(大浦營)의 남쪽 일대가 포구로써 군항(軍港)이었다. 조선 중종(中宗) 15년(1520년)에 축성(築城)한 석성(石城)의 규모는 둘레1,469척, 높이12척의 수군기지(水軍基地)였으며, 대포영(大浦營)의 수군만호(水軍萬戶)는 오늘날의 동해안방어(東海岸防禦) 해군기지의 사령관 지위(地位)였다.

계묘(啓墓) 과정을 보면 포클레인 날이 회곽(灰槨)을 열지도 못하고 깨뜨리지도 못하여 오랜 시간 실랑이 끝에 회곽 뚜껑을 깨뜨렸다. 문화재 관리기관의 협조하에 개장했어야 하는 것을 문중의 주도로 개산한 것이 문제였다.

당시의 상황은 옷칠을 한 관(棺)과 곽(槨)이 2중으로 되어 있고, 시신을 감당한 수의는 비단으로 여겨지는데 그 두께가 무려 10cm 정도였다. 전부 훼손되고 유품도 파손되어 수습이 불가능한 상태였으며 다만 관모에 달렸던 구슬 백 여 개는 수습하였다.

다행스럽게도 육안으로 보아 3cm 정도의 두께에 30cm 정도의 정방형 현무암으로 추정되는 묘지석(墓地石) 한 장만은 온전하게 수습하여 판독하였다. 다른 4기의 묘소 개장도 유골만은 제대로 온전하게 수습하여 화장을 마쳤으나 유물은 수습하지 못하고 옹기로 구운 깨진 지석은 수습하였으며 개장 작업과정에서 몇 자는 훼손되어 읽을 수는 없었으나 판독은 가능했다.

안타까운 것은 500여 년의 장구한 세월이 지난 이봉(李芑)의 산소 납골묘 설치는 완료하였으나, 개장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서투른 일 처리로 귀중한 소장품들이 일시에 훼손(毀損) 되었다는 데 대하여 심각한 우려와 개탄(慨嘆)을 금치 못한다.



〈그림 13〉 이봉 대포만호 봉분 출토유물

4. 出土한 地石과 族譜上の 墓地 記錄

1) 大浦萬戶 諱 芑 地石 收拾

〈묘지석 원문〉

禦侮將軍行大浦萬戶李公諱芑字而栗其先完山人考諱
皇明嘉靖三十一年四月日誌
禦侮將軍大浦萬戶李公諱芑字而栗其先完山人考諱
承福奉列大夫宰于杆城母延日鄭氏封今人三峯先生
道傳之後鍾之女成化丙午六月念有一日生于襄陽正
德二年始仕于忠武衛嘉靖丙戌遷仕于內禁衛第三年
六月以建功諷大浦萬戶取後不仕退休江村天粟謹厚
接人以慣一鄉士林咸以長者享之歲在壬子二月初一
日病終于家越四月初九日葬于襄陽府北里位山村兌
來乾坐巽向之山娶齊浦僉使朴公成轍之女生子三生
女一長子公權學術該博次子公櫓武材超越又其次公
榘早年寒疾夭焉女適陽村先生之裔進士權堰長男任

〈묘지석 원문 번역〉

어모장군 행 대포만호 이공 지묘

서기 1552년 4월 일 기록

어모장군 대포만호 이공의 휘는 붕, 자는 이율이며. 선친은 봉열대부(중4품)로서 간성군수를 지냈고, 어머니는 연일 정씨 삼봉 정도전의 아들 추의 딸이다.

서기 1486년 6월 21일 양양에서 출생하여, 1507년 2월 비로소 충무위 무관 벼슬길에 나갔고, 1526년 내

금위로 전보되었다가, 3년만인 1529년 6월 나라를 위해 큰 공을 세우고자 대포영(당시 강원도 양양도호부의 남대천 하구 북단에 위치한 군항)의 만호로 부임하였다.

그 후 벼슬길을 마치고 강촌에서 타고난 기품이 신중하고 중후하신 성품으로 고을의 선비들과 함께 한결 같이 유유자적하다가 1552년 2월 1일(향년 66세)에 병으로 자택에서 별세하여 동년 4월 9일 양양부 북리 위산촌(지금의 양양읍 기정리 진동) 동쪽 산에 건좌손향(乾坐巽向)으로 장사를 지냈다.

부인은 제포첨사 박성철의 딸이다. 3남 1녀를 두었는데 맏이 공권은 학문과 예술이 해박하고, 둘째 공로는 무예가 뛰어나고, 셋째 공건은 어려서 한질로 요절했으며, 딸은 양촌선생(권근)의 후예인 진사 권언의 장남과 혼인하였다.

V. 맺음말

우리나라는 바다와 연결되는 하천이 많아 일찍부터 물자와 사람을 운송하는데 선박을 이용하였으며, 자연스럽게 군사적인 측면에서도 활용하게 되었다. 기록을 통해 볼 때 이미 삼국시대부터 수군을 전투에 활용하고 있으며, 고려,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이는 더욱 발전하게 되었다. 조선시대에는 군사체제에 수군이 완전히 정규군으로 편제되어 수군 병종을 따로 설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각도별로 수군절도사를 두고 예하 부대를 배치하여 방어태세를 갖추었다.

조선 초기 강원도 동해안 지역에는 6개 수군만호진이 설치되어 있었다.

대포는 세종4년(1422) 산성포라는 이름으로 처음 등장하여 세조 8년(1462) 포구에 모래가 메워져서 배가 정박하기 어려우므로 연곡만호와 함께 혁파되어 울진, 삼척으로 옮겨갔다.

그후 세조 13년(1467) 다시 양양과 연곡의 두포를 개선하여 선군과 강의 선소를 다시 설치하고 만호를 두었으나 세조 14년(1468) 안인포로 이송하고 만호를 차견하였다.

여기에서 세조 8년의 산성포는 세조 13년의 양양포와 동일한 곳임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의하면 대포항은 양양동쪽 12리에 위치하며, 강릉 인인포에서 조선 성종21년(1490)에 양양으로 옮겨왔고 중종 15년에 성을 쌓았다고 했다.

성종 때 안인포에서 대포로 만호영을 옮겨 온 것도 안인포가 돌로 막혀 있어 배의 출입이 용이하지 못하기 때문이었다. 대포영이 폐지된 시기는 정확하지 않으나 선조실록에 의하면 1605년에 을사포락이 있었고 양양 동명 서원기에 의하면 1628년 조위한 부사가 취임하여 폐사된 대포 만호영 관사를 동명 서원으로 임시 활용하였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즈음 폐지된 것으로 본다.

수군만호 이봉은 양양출신으로 1529년 43세에 대포만호에 임명된다.

발굴된 묘지석에는 그가 퇴직하여 고향에서 지내다가 1552년 66세 일기로 병사하여 양양부 북리 위산촌에 묻혔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곳은 그의 근무처와 거처의 근거리임을 알 수 있다.

문중에서 2011년 납골묘를 조성하고자 묘소를 개장하는 과정에서 소장품의 일부와 묘지석을 수습하였는데 원문에서 대포영 만호를 부임했음을 확인하였다.

이것으로 대포만호영 이전에 관한 내용을 고찰하고 확인하였으나 영의 폐지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더 많은 고증적인 연구와 조사가 필요하다고 본다.

【참고문헌】

『新增東國輿地勝覽』

『增補文獻備考』

『世宗實錄』

『世祖實錄』

『成宗實錄』

『輿地圖書』

『大東地志』

『東國輿地志』

『鄉土誌』1976年. 襄陽文化院

『朝鮮寶物古跡調查資料』1942. 朝鮮總督府

『襄陽郡의 關防遺跡』江陵大學校博物館

『襄陽郡의 歷史와 文化遺蹟』1994. 지현병, 전유길

『世宗、世祖實錄상의 東草浦와 山城浦의 위치 비정연구』2001년 강원도향토논문발표대회

『峴山三十詠』第29詠 納灝堂望海. 李海朝



문화학교 교실별 수료자

교 실 명	강 사	수료자	교 실 명	강 사	수료자
서예교실(한글)	김 광 희	22	사물놀이교실	홍 이 표	18
서예교실(한문)	함 연 호	18	색소폰교실	이 명 재	20
한국화교실	조 정 승	18	난타교실	주 동 진	12
수채화교실	김 영 덕	21	민요교실	이 건 남	22
인두화교실	조 혜 성	10	600합창단교실	김 영 삼	33
한시교실	이 종 우	15	통기타교실	강 명 근	25
민화교실	정 복 자	13	태평소교실	박 하 나	7

우수 수강생

교 실 명	성 명	교 실 명	성 명
서예교실(한글)	전 선 주	사물놀이교실	조 민 경
서예교실(한문)	최 용 일	색소폰교실	김 주 용
한국화교실	어 정 수	난타교실	허 옥 환
수채화교실	심 정 순	민요교실	김 선 옥
인두화교실	김 순 희	600합창단교실	박 숙 희
한시교실	김 준 호	통기타교실	이 용 수
민화교실	이 영 주	태평소교실	황 영 애

한글서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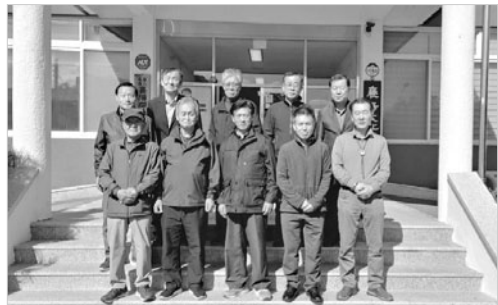
수상

- ❖ 2022대한민국서예전람회:입선 - 김순자, 노복현
- ❖ 2022세종대왕전국회화대회 : 특선 - 홍의태 | 입선 - 조일배, 로재창
- ❖ 2022강원도서예전람회 : 특선 - 홍의태 | 입선 - 조일배, 로재창
- ❖ 2022대한민국운곡서예,문인화대전 : 특선 - 김주희, 전선주, 전성호, 홍의태, 조일배, 이주옥
입선 - 전선주 초대출품 - 김영순

전시

- ❖ 속초시립박물관초청지역작가초대전 : 대출품 - 김순자, 노복현, 심현순, 박경숙, 김영순

한문서예



수상

- ❖ 2022 강원미술대전 : 특 선 - 이광우, 김기송
입 선 - 윤지환, 김덕주, 박상율, 최용일, 오경환, 이근천
- ❖ 2022 신사임당 미술대전 : 특 선 - 오경환
입 선 - 이광우, 최용일, 김기송, 김덕주, 박상율, 윤지환
- ❖ 2022 운곡서예대전 : 특우수 - 윤지환 | 특선 - 오경환, 김기송, 박상율

❁ 한시



수상

- ❖ 한시교실 한시백일장 : 장원 - 김덕주
 차상 - 황광수, 김경일
 차하 - 박문희, 추종삼, 김무풍
 참방 - 박상형, 황재권, 김준호, 김인숙
 가작 - 이성복, 김윤래, 김기승
- ❖ 제7회 전국한시지상백일장 : 차상 - 김준호
 차하 - 김윤래

❁ 한국화



수채화



전시

- ❖ 군민과 함께하는 나눔수채화 전시회 (제10회 양양수채화 동호회 회원전)

민화



수상

- ❖ 제6회 사단법인 한국민화 진흥협회 전국민화 공모대전
입상 : 김금희, 김이남, 김순이, 고민숙, 이영주, 현담스님

전시

- ❖ 10월05일 ~ 11일 속초시립박물관
- ❖ 10월14일 ~ 20일 양양군문화복지회관

❁ 인두화(우드버닝)



수상

- ❖ 제3회 전국인두화 우수작가전
작가상 : 김순희, 오현주, 이기순, 장미경, 남기란, 대해스님

❁ 난타



공연

- ❖ 양양문화원 제5회 가을밤의 문화공연

민요



수상

- ❖ 샤이니스타를 찾아라 - 샤이니스타상(단체)

공연

- ❖ 양양문화원 제5회 가을밤의 문화공연 - 국악협회 정기공연
- ❖ 국악활성화공연 (서면아라리, 간곡리모심는소리)

사물놀이



수상

- ❖ 제26회 강원도사물놀이경연대회 - 장려상

공연

- ❖ 양양문화원 제5회 가을밤의 문화공연 - 전통시장활성화 공연
- ❖ 한시백일장 공연 - 제11회 전국민요경창대회 공연

태평소



공연

- ❖ 양양문화원 제5회 가을밤의 문화공연
- ❖ 양양국악협회 정기발표회

색소폰



공연

- ❖ 양양문화원 제5회 가을밤의 문화공연
- ❖ 국군의 날 축하공연

통기타



공연 ❖ 양양문화원 제5회 가을밤의 문화공연

600합창단



공연 ❖ 양양문화원 제5회 가을밤의 문화공연

2022

양양출신 조선천재음악가 허억봉 선양사업 대금반

1. '허억봉'은 조선 후기에 통소와 대금 연주자로 당시 장악원(지금의 국립국악원) 총책임자인 전악까지 오른 천재 음악가로, 악인들이 악기를 연습할 수 있도록 '금합자보'라는 악보 제작에 참여하였다. 금합자보의 서문에는 “허억봉은 대금으로 세상에 이름을 떨친 사람”이라고 기록되어있다.



2. 강좌를 통해 익힌 연주법을 바탕으로 평생학습 및 여가생활을 지속하며, 문화원 및 타기관, 단체의 다양한 행사에 연주봉사를 다짐으로 우리 전통악기에 대한 인식 구축하고, 마땅한 취미활동이 없는 지역민들에게 적절한 취미생활과, 수강생들 간의 연주에 대한 소통, 연주 연습을 통해 지역민의 생활을 좀 더 풍요롭게 합니다.



3. 대금연주는 호흡하는 방법부터, 악보를 읽는 방법까지 같이 익혀야 하기에 폐활량 및 집중력이 향상에 좋고, 오랜 시간의 곡 습득을 통해 작품 완성에 대한 성취감 및 봉사활동 등 공연에 대한 관심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양양문화원에서는 허억봉 선생의 업적 선양을 위해 우리전통악기의 전수에 나설 계획을 가지고 지역민의 문화예술 평생학습 욕구충족 및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하여 ‘대금 연주 배우기’ 반을 운영 하오니 여러분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4. 비고

- 수 강 생 : 18명
- 공연내역 : 2022. 10. 7. 2022년도 양양문화원 가을밤의 문화공연





양양지역의 황장봉산과 최근 발견된 금표의 실태를 알아본다.

황장봉산(黃腸封山)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보호(保護)되어 왔는가?

황장목(黃腸木)을 함부로 벌채하지 못하도록 금령(禁令)이 내린 산을 황장봉산(黃腸封山) 또는 황장금산(黃腸禁山)이라고 한다. 경세유표(經世遺表) 제14권 총론에 황장(黃腸) 주(註)에 보면 황장이란 황장목의 준말이라 하였는데, 황장목은 소나무의 속고갱이가 황색 부분이었기 때문이다. 조선왕실에서 주로 관곽재(棺槨材:왕족이 사망하였을 때 관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 목재)와 궁궐 건축에 쓰일 목재를 확보할 목적으로 별목과 개간을 일체 금하는 곳이다.

신보수교집록(新補受教輯錄) 형전 금제조(刑典禁制條)에 의하면 “봉산(封山)의 큰 소나무를 10주 이상 벤 자는 효시(梟示)하고 10주 이하인 경우에는 감사정배(減死定配)한다.”고 했으며 “황장봉산의 소나무 1주를 벤 자는 논하여 무겁게 다스렸다. 수교(受教)에 의하면 곤장 일백에 3년 복역에 처하였다.”하니 황장금표의 입표에는 범법(犯法)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경계의 의미도 포함되었을 것이다. 이와 같이 황장목의 남획에 대해서는 국법으로 지나칠 정도로 엄히 다스렸는데 그 이유는 황장목의 중요성에서 기인되었다고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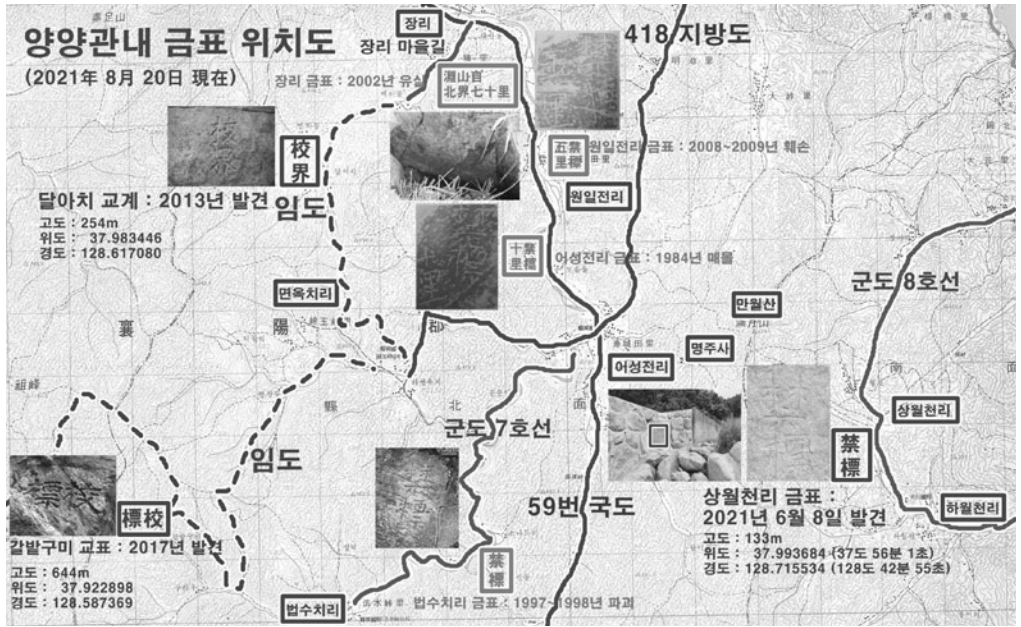
비변사인방안지도의 양양 황장봉산 2처는 ‘부연산봉산’과 ‘전림동봉산’이다.

조선시대 군국사무를 관장하던 비변사에서 만든



비변사인방안지도

양양부의 비변사인방안지도(備邊司印方眼地圖)에 표기되어 있는 현북면 법수치리 일원의 부연산 황장봉산과, 서면 갈천리 일원의 전림동 황장봉산을 표기한 것으로 그 내용과 같다.



양양관내 금표현황도

부연산 봉산

은 관아로부터 80리 거리에 위치하며 나무를 베는 것을 금지하는 구역의 둘레는 300리이다. 동쪽으로는 모무동에 이르기까지 60리, 서쪽으로는 면옥치에 이르기까지 60리, 남쪽으로는 강릉 경계에 이르기까지 70리이며, 북쪽으로는 장동에 이르기까지 80리이다

이와 관련한 것으로 추정되는 입산을 금지하는 암각 금표가 현북면 장리 1개소와 원일전리 1개소, 아성전 1개소, 법수치리 용화사입구에 1개소가 발견되었으나 집중 호우로 인하여 유실되고 마을 개발사업과정에서 모두 훼손되거나 매몰되어 지금은 형체를 찾을 수가 없다.

반면 서면 갈천리 일원의 전림동 황장봉산은 양양부 관아로부터 100리 거리에 위치하며, 나무를 베는 것을 금지하는 구역의 둘레가 330리이다. 동쪽으로는 영덕에 이르기까지 70리, 서쪽으로는 춘천과 경계를 이루는 지점까지 70리라고 기록되어 있다.

최근에 새로 발견된 금표(禁標)에 대해 알아본다.

지난 6월 8일 양양군 현남면 잔골(상월천리 297번지)에서 발견된 금표는 수해복구 공사 중 토지소유자인 오봉현(남, 57세)이 '禁標'라 쓰인 바위를 발견하고 양양군에 신고하면서 양양문화원으로 알려지게 되자 향토사연구원들은 한국학중앙연구원 신종원 명예교수, 강원대학교 박봉우 명예교수, 문화재청 문화재전문위원 김도현 박사 등 암각문 전문가를 대동하고 금표가 발견된 공사현장에 도착 암각을 답사한 전문가들은 "양양

군의 두 곳 봉산 가운데 하나인 부연산(釜淵山) 황장봉산의 금표로 추정 된다”라고 말했다.

그 후 동년 10월 25일 강원대학교 박봉우 명예교수로부터 현 홍천군 내면 명개리 산43번지에서 금표가 발견되어 홍천군 박물관으로 이전하였다는 제보를 접했다. 양양향토사 연구원들은 이 소식을 듣고 동년 11월 5일 홍천군박물관을 직접 방문했는데, 암각 문의 내용은“襄陽. 箭林. 黃腸山. 南界百里. 周回三百. 三十里 (양양전림황장산남계백리주회삼백삼십리)”라 각자 되어 전림 황장봉산의 금표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양양 전림 황장봉산 금표

암각 문에 양양이란 지명이 표기된 것으로 보아 조선시대에 이미 각자 된 것을 모르고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었다는 것으로 인식되며, 1973년 이전은 명개리가 양양의 행정 관할 구역이며, 이 지역이 전림동 황장봉산 구역에 포함되어 비교적 각자 내용이 훼손되지 않아 다행이지만, 아쉽다면 금표 각자 바위가 홍천군 박물관에 안치(安置)될 것이 아니라 역사 현장인 명개리 산 43번지에 원형보전 되어야 했었다.

일제강점기 “오색령” 2등 도로 개착(開鑿)을 영동·영서는 함께 원했다.

양양군민이 주도적으로 오색령 2등 도로 개착(開鑿)을 추진하다.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 전인 1922년 12월 6일 양양군민들은 오색령 2등 도로 개착(開鑿:산을 뚫거나 땅을 파서 길을 냄)을 위한 기성동맹규약(期成同盟規約)을 만들었는데, 모두 17개 조항(條項)이며, 구성원(構成員)은 회장단과 평의원 50여 명이며, 임기 2년으로 하는 실천규약(實踐規約)을 만들어 천명(闡明)한 바 있다.

본 기성동맹규약 제1조의 내용에서 양양군의 흥망 문제인 양양~인제 간 오색령 2등 도로 개착은 향후 3년 안에 완성하기로 목표를 세운 점으로 볼 때, 우리 선조들의 간절한 소망과 강력한 추진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이에 따라 영서의 4개 군(춘천·홍천·인제·양구군)의 유지들에게도 전해져, 진정서(陳情書)를 강원도청에 잇따라 제출하였고, 영동에서도 강릉·삼척·울진군의 역장동성(亦將同聲) 협찬(協贊)한 결과 강원도에서 오색령 2등 도로 개설을 승낙한 사실이 조선총독부 매일신보(每日申報)에 보도되었다.



〈그림 1〉 양양직통의 필요로 춘천에서도 진정 양양오색령통과 기성동맹규약 1조~17조 (매일신보 1922.12.6.)

매일신보 기사를 통한 영동·영서의 오색령 도로 진정 상황(眞情狀況)

■ 양양 직통의 필요로 춘천에서도 진정 (1922. 12. 6.)

당시의 매일신보 춘천발(1922. 12. 6.)에 의하면 경성오리진선(京城 ~ 五里津線)이 간성선(杆城線)으로 변경(變定)됨에 따라 양양의 진정위원(陳情委員)들이 급히 상도(上道)하여 오색령 도로 개착의 당위성을 홍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춘천 입장에서는 간성(杆城)만 개통되고 양양은 개통치 아니함 보다 양양으로 개착(開鑿) 함이 춘천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하여 춘천 읍내 유력자 다수가 춘천군청(春川郡廳)에서 집회하고 만단협(萬端協議)한 결과 오색령 도로 개착을 위한 진정위원을 선정하여 강원도청을 방문하여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 오색령 도로 개착(開鑿)과 홍천군민의 희망 (1923. 2. 8.)

양양 직통인 오색령 2등 도로 개통에 대하여는 홍천군민도 희망하는바, 군유지(郡有志) 김성원(金聲遠) 외 64명은 연명하여 도에 진술서까지 제출하였다. 특히 홍천군과 양양군과는 고래(古來)로부터 밀접한 관계가 있는바, 물물교환 상통은 자연의 영향이라 하겠으나 대시장(大市場)인 원주와 양양의 경유지로서 본선로(本線路)는 경제적 또는 문화적으로 보아 급속 개통의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도에 제출했다.



〈그림 2〉 오색령 도로 개착과 홍천군민의 희망(매일신보 1923.2.8.)

연의 영향이라 하겠으나 대시장(大市場)인 원주와 양양의 경유지로서 본선로(本線路)는 경제적 또는 문화적으로 보아 급속 개통의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도에 제출했다.

■ 오색령 도로 개착(開鑿)과 인제 군민의 진술 (1923. 2. 10.)

인제군 발전을 위하여 경성(京城, 서울)으로부터 동해안에 달하는 강원도 횡단도로 개착(開鑿)에 관해 인제 군민이 올린 진정내용을 요약하면, 인제군은 교통이 타군에 비하면 열세이다. 특히



〈그림 3〉 오색령 도로 개착과 인제군민의 진술 (매일신보 1923.2.10.)

물의 경우 양양시장에 반출되고 해산물 잡화 등의 필수품은 전부 양양군으로부터 이입(移入)되는 현상임으로 본 도로가 개통되어야 산업진흥과 지방개발 및 기타 편의를 증진케 된다.

■ 오색령 도로 개착과 양구군민의 희망 (1923. 2. 17.)

양양 직통인 오색령 이등도로 개착에 대하여는 양구군민도 찬동 희망하는바, 그 진술서 내용을 요약하면, 양구군은 본도 중부 산간의 벽지로 교통 불편의 소치로 군세가 부진하다. 경성으로부터 동해안에 달하는 도로개통에 관하여 본 군민도 다년 숙망 하기 진술하니 어감찰(御監察)하여 주시기를 바란다는 진술서를 제출했다.

■ 오색령 2등 도로 개설을 승낙한 사실이 매일신보에 보도되다. (1931.11. 21.)

양양군민이 10여 년을 두고 열망하던 서로 개척 문제(西路開鑿問題)에 대하여 양양과 인제 양 군 사회(襄陽麟蹄兩郡社會)에 호소식(好消息)이 전해졌다. 본 도 당국으로부터 해직로답사(該直路踏查)의 하명(下命)이 있으므로 양양군수 박재식(襄陽郡守 朴在洙)이 인제군청을 방문하여 인제군수 김극일(麟蹄郡守 金極一)과 직접 만나 원만한 협정을 마친 후 오색령 도로를 시찰하고 동 14일 귀청(同十四日歸廳)하였다고 매일신보에 보도되었다.

오색령 명칭으로 환원해야 하는 당위성과 항거의지(抗拒意志)의 표출

위와 같이 오색령 2등 도로 개착(開鑿) 승낙 소식은 양양군민의 주도면밀한 계획하에 영동·영서가 함께 노력해 얻은 결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총독부 육지측량부가 저지른 왜곡된 지명 한계령을 청산하지 못하고 지연됨에 따른 군민의 저항의지(抵抗意志)를 표출(表出)하기 위해 지난 2016년 9월 한계령 정상 양양방면에 “백두대간 오색령”이란 대형 표지석을 세웠다.

관동읍지(關東邑誌)에 수록된 양양부 관아(官衙)에 대해 알아본다.

〈관동읍지 : 1871년에 편찬된 강원도 내 26개 군현의 읍지를 합편한 강원도 도지〉



보기 :

- ① 아사(衙舍) ② 작청(作廳) ③ 사령청(使令廳) ④ 객사(客舍) ⑤ 태평루(太平樓) ⑥ 군청(軍廳)
- ⑦ 관노청(官奴廳) ⑧ 창(倉) ⑨ 형리청(刑吏廳) ⑩ 남문(南門) ⑪ 동문(東門) ⑫ 상운관(祥雲館)

양양부의 일반현황

- **강역(疆域)** : 동쪽으로 바다까지는 10리, 서쪽으로 춘천 경계까지는 50리, 남쪽으로는 강릉 경계까지는 70리, 북쪽으로는 간성 경계까지 35리에 이른다. 서쪽으로 서울까지 거리는 510리 6일 여정이고, 서남쪽으로 강원감영(江原監營)까지 거리는 400리 5일 여정이다.
- **방리(坊里)** : 12개면-부내면(府內面), 위산면(位山面), 사현면(沙峴面), 부남면(部南面), 서면(西面), 동면(東面), 남면(南面), 현북면(縣北面), 현남면(縣南面), 강선면(降仙面), 도문면(道門面), 소천면(所川面) 이었는데, 지금은 도문면과 소천면은 속초시에 편입되었다.
- **관직(官職)** : 부사(府使) 1인은 문관으로 당하관(堂下官) 종3품과 당상관(堂上官) 정3품 중에서 선발 임명되었으며 임기는 5년으로 지방의 삼권(三權)을 장악한 막강한 지위에서 양양지방의 향민을 다스렸다. 그 부사의 아래에는 좌수(座首) 1인과, 별감(別監) 3인, 군관(軍官) 15인, 아전(35인), 지인(知印) 16인, 사령(使令) 19인, 관노(官奴) 23인, 관비(官婢) 16인의 관원(官員)으로 양양도호부의 정무를 수행하였다.

관아(官衙)의 의미와 역할

관아(官衙)는 조선시대 관리들이 모여 나랏일을 처리하던 관공서로 일명 공해(公廡)라고도 불렀다. 관아(官衙)에는 지금의 군수 격인 부사(府使)가 정무(政務)를 수행하는 동헌(東軒)이 있었고, 국왕의 전패(殿牌)가 모셔져 있는 객사가 있었으며 이곳에서는 부사의 이취임(移就任)의 예의(禮儀)를 행하였고, 조정에 고위직 인사 또는 암행어사와 같은 중앙관리가 부사를 감찰하려고 내려오면, 이 객사(客舍)에 거처하였다.

그 외 부사를 보좌하던 자문 기관으로 고을 양반들의 대표자인 좌수와 별감이 집무하는 향청(鄉廳)과 육방(六房)의 아전들이 일을 보는 작청(作廳), 죄인의 죄를 다스리던 형리청(刑吏廳), 군사를 관장하는 군청(軍廳), 노비들이 사용하는 관노청(官奴廳), 관아의 심부름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사령청(使令廳) 등이 있었다.

당시 읍성의 관리 실태와 관아의 시설 규모

읍성(邑城)의 실태는 돌로 쌓은 곳은 둘레가 403척(尺)이고, 높이가 5척(尺)이다. 흙으로 쌓은 것은 둘레가 2,825척이며 성안에는 우물 2곳이 있었다. 지금은 성벽 대부분이 무너져 버렸고, 다만 동·남·서문만 남아있다고 했다. 그리고 관아(官衙)의 시설 규모는 객사(客舍) 35칸, 아사(衙舍) 108칸, 향청(鄉廳) 10칸, 훈련청(訓練廳) 14칸, 군기청(軍器廳) 10칸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관아와 함께 중요시한 태평루(太平樓)는 16칸 규모로 객사 앞에 위치하였었다. 고려 예종(睿宗) 연간(1111~1120)에 건립되었는데, 내부에는 우암(尤庵) 송시열(宋時烈), 외부에는 안평대군(安平大君) 필적 ‘太平樓’ 편액이 게시되었었다. 그 외에 태평루를 거쳐 간 고려와 조선의 명관 안축(安軸)·조준(趙浚)·정추(鄭樞)·이곡(李穀) 등의 시문이 빼곡히 게시되었었다. 세월 따라 태평의 운율(韻律)이 양양 고을에 메아리쳤었고, 양양읍성 동문밖에는 양양 남쪽의 인구역에서부터 멀리 북쪽 흡곡(歙谷)의 정덕역(貞德驛)까지 동해안 16개 역을 관장하던 상운관이 자리하고 있었다.

일제강점기 양양지역 첫 전등불 점화를 알아본다.

양양지역의 쌀, 목재, 자철광, 수산물 등을 수탈하기 위해 일제에 의해 1909년 대포항이 개항되었고, 동해 북부선이 1937년 12월 개통하기 위한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또 1938년 서면 장승리 철광 채굴을 위해 일본 중연공업주식회사가 광업소를 개발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리하여 양양군 지역에 전력공급이 필요불가결하게 되었다.

그래서 1910년경 전력사업을 독점한 일제는 1934년 춘천전기회사 양양지점을 개설하였고 명년 9월에 발전소를 세웠다.

우리나라 최초 전등이 점화된 지 47년 후 1935년 11월 1일 양양 읍내에 처음 전등불이 밝혀졌다.

전기 관련 신문 기사와 역사 기록의 내력

■ 1934년 12월 13일자 동아일보에는 춘천전기회사 양양(襄陽)에 지점(支店) 설치

임시주주총회에서 5만 3천 원을 증자(增資)하기로 결정되었는데 앞으로 강원도에도 각 군, 읍을 위시하여 농촌까지 전기화될 것이 멀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그림1. 춘천전기회사 양양에 전기지점설치

■ 1935년 7월 3일자 조선신문에는

춘천전기주식회사(春川電氣株式會社)가 양양지점(襄陽支店)에 사무실을 설치하고 300마력 발전소 부지 2871평, …… 11월에 일천등(一千燈)을 점화할 건물과 배전 공사를 급히 하기로 하였다고 나온다.

■ 1935년 7월 6일 매일신보에는 춘천전기가 양양에 진출, 구월 중에 실현

근래 발전기의 두 배의 발전력을 가진 디젤 300마력 200kw 발전기를 새로 설비하고자 준비를 급히 하고 있는데 춘천전기주식회사의 획기적 계획인 동해안 양양군에 진출, …… 도(道) 주산중 사장, 궁내 지배인이 출장을 와서 지주측과 일체의 교섭을 마치고 9월 중에 춘천 본사에서는 새로 5만 3천 원을 증자하였는데 대부분은 구주주(舊株主)가 인수하고 잔여만 양양군에 분배하였다고 나온다.

■ 1935년 9월 14일 동아일보에는 전등 전화 신설, 양양읍에서

[양양] 춘천전기회사에서는 양양(襄陽)에다가 전등 가설 계획을 세우고 작년부터 활동하더니 최근에 이르러서 전주를 세우고 실내 전등 장치까지 하였는데 점등은 아마도 11월 1일부터 될 것 같다고 한다. …… 그리고 발전소는 양양군 속초리에 설치하기로 하였다.

■ 1935년 10월 29일 조선신문에는

시험 점등하기 위하여 일주일간 무료송전 … 한다고 보도했다.

■ 1935년 11월 1일 조간 3면 11단수 동아일보에는 양양에 전등

[양양] 강원도 양양-속초(襄陽-束草)간 전기는 수년래의 숙망이던바 11월 1일로 실현을 보게 되었다는데 양양읍번영회(襄陽邑繁榮會)에서는 이 기회를 축하하기 위하여 29일부터 3일간 축하운동회(祝賀運動會)를 개최한다고 나온다.



그림2. 춘천전기가 양양에 진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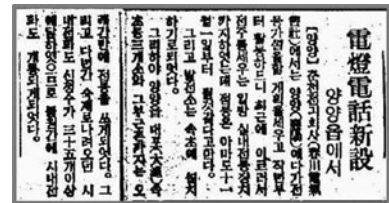


그림3. 전등전화신설 양양읍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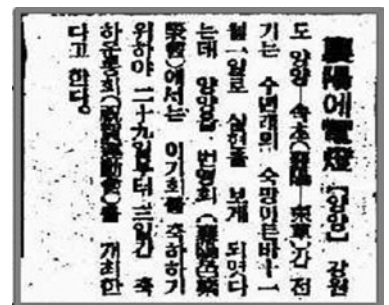


그림4. 양양 전등신설

■ 양주지에 의하면

1936년 일본 중연공업주식회사에서 개광용(開鑛用)으로 양양읍 청곡2리에 화력발전소 300마력, 250마력, 도합 550마력을 설치하여 330kw의 송전으로 산업용과 일반 가정용으로 충당하여왔으나 이 역시 부족하였다고 한다.

일제강점기에는 일본의 필요에 따라 양양 읍내와 광산이 있는 인근 마을 장승리와 서선리 등에서만 전등 불을 사용하고, 양양군 농촌, 어촌, 산촌에서는 여전히 실내에 코쿨(고쿨 ; 두메에서 밤에 불을 켤 때 불붙은 관솔을 올려 놓기 위하여 벽에 만들어 놓은 자리)을 설치하여 소깁이(관솔)로 조명하거나, 식물성과 동물성 기름, 어유 등을 연료로 하는 등잔(호롱불)과 1876년경에 일본으로부터 석유가 수입되어 연료로 사용하면서 뚜껑을 덮는 폐쇄형 등잔 또는 남포등(lamp)으로 조명하였다. 또 광산 갱도 안에서는 '간데라(candle)'를 이용하였다.

고구려와 신라의 접경지였던 양양에 불교 문화가 불같이 일어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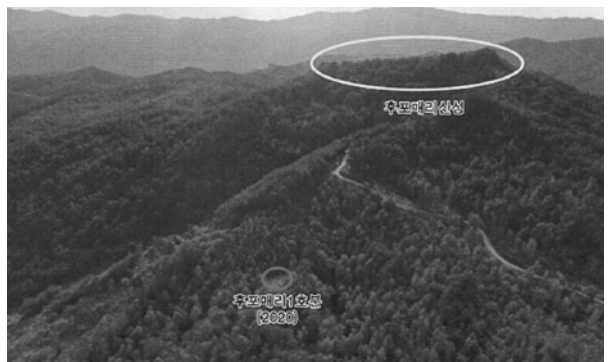
양양은 고구려와 신라의 접경지였다.

1. 삼국시대 양양지방은 고구려에 속하여 익현현(翼峴縣) 또는 이문현(伊文縣), 신라 경덕왕16년(757)에는 익현현을 익령현(翼嶺縣)이라 개칭하여 불렀던 우리 양양에는 통일신라대의 와편 등의 유물이 출토된바 있는 석성산성(石城山城)이 있었으니 이것이 바로 신라와 고구려의 접경지역임을 반증하는 것이다. 바로 이 석성산성은 오늘날 양양군 임천리 상수도사업소가 있는 석성산이며, 현남면 포매리와 견불리 일원에는 신라산성이 위치하고 있다.



임천리 석성산성 남벽모습

2. 고구려의 변방 장수가 신라 19대 눌지왕 34년(450) 가을에 실직[삼척]의 들에서 사냥을 하다가 하슬라성[강릉] 군사의 공격을 받아 죽었으며, 신라 20대 자비왕 11년(468년) 봄에 고구려가 실직성을 습격하니 그해 가을 9월에 신라에서는 하슬라 사람들을 동원하여 니하(泥河)에 성을 쌓았다.[지금의 현남면 포매리와 견불리 일대의 신라 산성으로 추정된다.]



후포매리 신라산성

3. 신라에서는 24대 진흥왕 29년(568년) 겨울에 달흘주(지금의 고성)를 설치하고, 29대 태종무열왕 5년(658년) 3월에 실직을 북쪽 진지(北鎭)로 삼았다.
4. 이상의 기록으로 보아 신라와 고구려가 양양을 사이에 두고 수시로 빼앗고 빼앗기는 전운(戰雲)이 가지 않는 변방이었음을 알 수 있다.
5. 6세기 후에는 신라의 영토가 되면서 고승대덕들의 발자취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수려한 산과 하천, 호수 그리고 동해의 자연환경은 화랑도의 도량을 이룸으로써 신라문화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 지역이다.

양양에는 불교의 문화가 불같이 일어났다.

오늘날 양양문화의 근간을 이루는 불교 문화도 이 시기에 불같이 일어났던 것으로 보아 진다.

진덕여왕 6년(652년)에는 자장을 사가 신흥사의 전신인 향성사(香城寺)를 창건한 이래, 문무왕 11년(671년)에는 의상대사가 낙산사를 창건하였고, 신문왕 9년(689년)에는 원효대사를 창건주(創建主)로 한 영혈사가 창건되었다. 이 시대가 양양불교의 황금기라 하겠다.

이를 전후하여 양양에는 대사찰이 연이어 창건되었는데, 강현면 둔전리의 진전사, 서면 황이리의 사림사(억성사·선림원), 서면 오색리의



사적 제495호 낙산사 일원 전경

오색석사, 서면 서림리의 서림사 등도 신라의 고찰이었으니, 이때 양양지방은 불교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었으며, 양양은 불교의 정토(淨土) 문화가 꽃피게 된 것이다.

“낙산이대성(洛山二大聖)”을 근간으로 불교 설화가 양양사람의 정서를 읽게 한다.

한 지역의 문화를 알아보는데 가장 근간(根幹)이 되는 것은 그 지역의 설화일 것이다.

설화는 언제 어디서 누구와 같이 들을 수 있는 열린 구조의 문화양식으로 민중적 향유의 폭이 넓어서 설화를 통하여 당시 사람들의 삶과 오늘의 현실을 재인식하는 틀을 마련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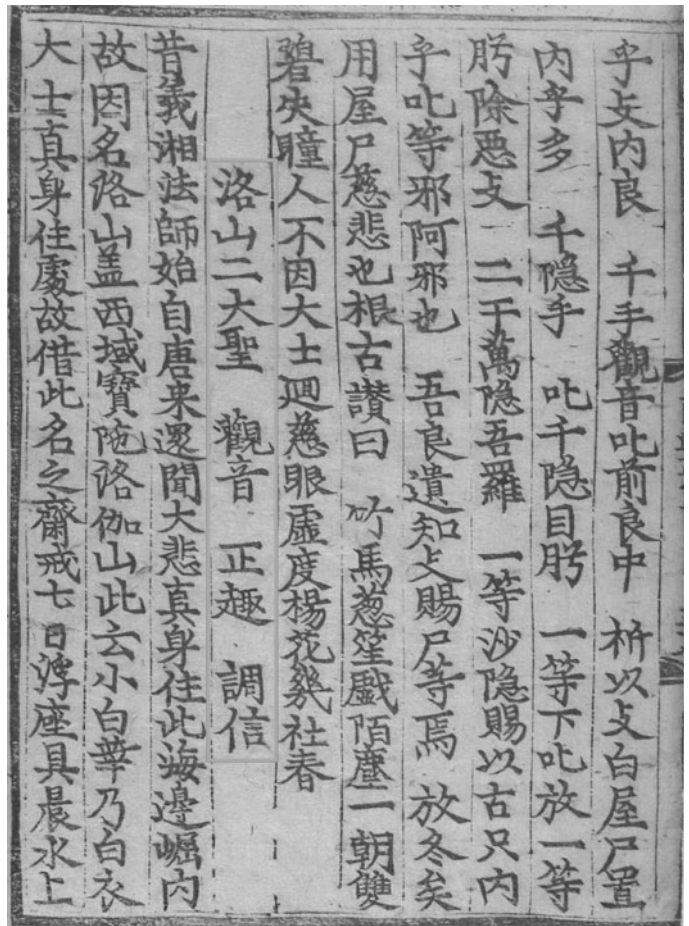
설화 속에는 면면히 이어온 조상들의 정신과 삶의 모든 방정식이 녹아있기 때문이다.

양양에는 삼국시대의 불교 설화뿐만 아니라 고려와 조선 시대를 거치면서 형성된 수많은 인물의 설화가 전승되고 있지만, 가장 오래된 설화는 신라의 의상과 원효로 대표되는 불교 설화일 것이다.

주지하는바 원효와 의상은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고승이었다. 이들이 남긴 발자취는 양양 지역 곳곳마다 어리어 있고 그것이 여러 설화를 낳게 하였다.

“삼국유사”의 3권에 기록되어 있는 “낙산이대성 관음 정취 조신(洛山二大聖 觀音 正趣 調信)”은 역사의 기록물로서 또한 하나의 설화로 구전되고 있으니 낙산의 이대성 의상과 원효, 정취전(正趣殿)을 낙산사의 경내에 세운 범일, 괴로운 인생을 한 마당의 꿈으로 깨닫게 한 세규사의 승려 조신의 설화가 전승되면서 양양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다.

앞으로 기회가 주어지는 데로 낙산사에 얽힌 설화를 양양사람들의 정서를 살피 전개해 보리라.



삼국유사 권3 (낙산 이대성 관음 정취 조신)

낙산이대성(洛山二大聖)

1. 낙산사를 창건한 의상대사(義湘大師)의 설화

낙산사(洛山寺)는 워낙 우리나라 동해안의 이름난 대찰(大刹)이다 보니 고승대덕(高僧大德)들의 발자취가 끊이지 않는 곳이다.

낙산이대성 의상(義湘)과 원효(元曉)뿐 아니라 《삼국유사》 ‘洛山二大聖 觀音 正趣 調信’ 편에 기록된 낙산사에 정취전(正趣殿)을 세웠다는 범일국사(梵日國師), 세규사(世達寺)의 승려 조신(調信) 그리고 고려시대 몽골군[서산대병(西山大兵)]의 침략으로 낙산사의 두 성전[대웅전, 정취전]이 불탈 때 활약한 ‘주지선사 아행(住持禪師 阿行)’ 과 ‘절의 종 걸승’의 설화가 양양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한다.

이번 호에는 낙산사를 창건한 의상에 관한 설화를 살펴보자.



의상대사 진영

의상을 향한 선묘낭자(善妙娘子)의 애뜻한 사랑 이야기

당나라에 유학을 온 의상을 보자마자 첫눈에 반해 짝사랑하던 신실한 불자 선묘낭자는 현세에서 이룰 수 없는 사랑임을 알고 내세에서 비익조가 되어서라도 함께 하기를 기원하였다. 그 후 의상이 10년간 삼장(三藏)을 공부하고 신라로 돌아간다는 소식을 듣고 손수 지은 가사장삼을 전해주고자 바닷가로 갔으나 이미 배가 항구를 떠나고 있었다. 이에 선묘는 가사장삼이 전달되기를 빌면서 배를 향하여 던지니 무사히 의상의 품안으로 떨어졌다한다. 의상과 함께 할 수 없게 된 선묘는 바다의 용이 되게 해달라고 하늘에 빌면서 황해에

몸을 던졌다. 하늘이 감동하여 용이 된 그녀는 의상이 무사히 신라에 당도하도록 배를 수호하였다고 한다. 의상이 귀국 후 처음으로 양양에 낙산사를 창건하였는데 아마 용이 된 선묘의 넋을 기리기 위해 바닷가에 세웠는지도 모른다.



원통보전내의 비익조

관음을 친견하려고 양양에 오다

관음보살이 머무는 산을 보타낙가산이라한다. 양양 낙산사가 있는 산 이름이 낙산인 것은 이곳이 대자대비(大慈大悲)하신 관음보살[白衣大士]의 진신이 거처하는 성지이기 때문이다. 이곳은 항시 바닷물이 출렁거리고 파도가 심하여 일찍 아무도 들어가 본 사람이 없는 곳이기에 불교의 성지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의상대사는 강원도 양양 낙산에 성지가 있다는 말을 듣고 당나라 유학을 마치고 신라에 돌아오자 가장 먼저 대비진신(大悲眞身.관음보살)에게 예불하기 위해 양양을 찾아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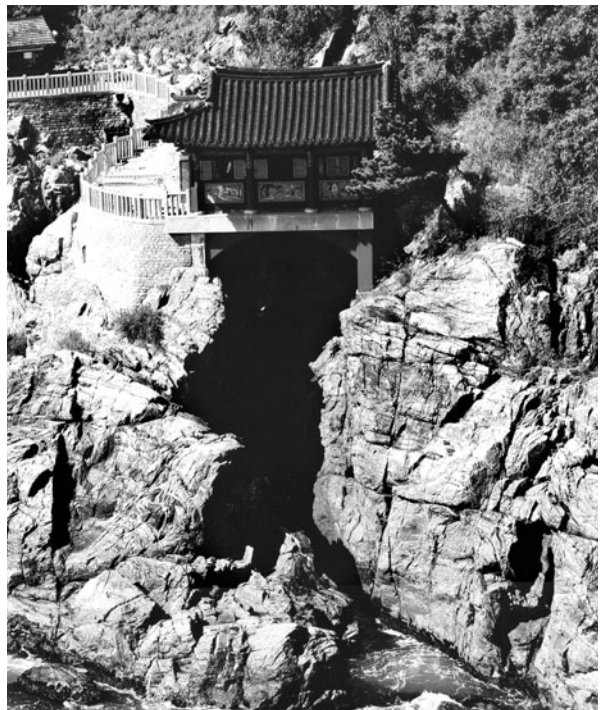
관음보살을 친견하다

의상은 이곳에 이르러 목욕재계 후 바닷물에 돛자리를 깔고 올라앉아 기도하니 7일째 새벽에 용천팔부[龍天八部, 불법(佛法)을 지키는 신장(神將)들, 곧 천(天)·용(龍)·야차(夜叉)·건달바(乾闥婆)·아수라(阿脩羅)·가루라(迦樓羅)·긴나라(緊那羅)·마후라가(摩候羅伽)의 팔신(八神)] 시종이 굴속으로 의상을 인도하였다. 공중을 향하여 예배를 드리니 수정염주(水晶念珠) 한 꾸러미를 내어주므로 받아들고 물러나 나오는데 동해의 용이 또한 여의보주(如意寶珠) 한 알을 바치므로 이것도 받들고 나왔다. 다시 7일을 수행하여 드디어 관음의 진용을 보았는데 말씀하기를, “이 자리 위의 꼭대기에 한 쌍의 대나무가 솟아날 것이니, 그 땅에 불전을 지음이 마땅하리라. 그곳이 바로 금당(金堂) 자리니 그곳에 절을 지으면 불법이 크게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였다.

관음의 뜻을 받들어 낙산사를 창건하다

의상은 바로 낙산에 올라가 관음이 일러준 자리를 이리저리 찾아보았으나 대나무 같은 것이 보이지 않았다. 실망하여 한참 동안 두리번거리고 있는데 멀리 바라보이는 동해에서 “대사는 너무 성급하게 찾지 마시오. 때가 되면 찾을 수 있을 것이요.”라는 말소리가 바람결에 아련히 들려왔다. 의상은 느낀 바 있어 그 자리에 앉아 염주를 굴리면서 때를 기다리고 있노라니 바로 눈앞에서 두 그루의 붓끝 같은 대순이 솟아오르기 시작하더니 곧 큰 대나무가 되었다. 의상은 그제야 마음을 놓고 “바로 이곳이 금당 자리로구나!” 하늘을 우러러 소리치며 합장 기도하고 곧바로 땅을 고르고 재목을 다듬어 금당을 짓고 관음상을 빚어 모시니 그 원만한 모습과 고운 자질은 하늘이 낸 듯하였다. 그곳의 대나무는 다시 없어졌다. 그제야 이곳이 관음보살께서 지내시는 곳임을 알았다.

이로 인해 그 절 이름을 ‘낙산사’라고 하고, 의상은 관음굴에서 받은 구슬을 성전에 모셔두고 남쪽으로 떠났다.



홍련암(관음굴)

낙산이대성(洛山二大聖)

2. 관음의 진신을 뵈지 못한 원효대사(元曉大師)의 설화

낙산이대성인 원효(元曉)는 의상(義湘)과 같이 661년(문무왕 원년) 당나라로 떠나려 당항성(棠項城: 지금의 경기도 안산시)으로 가던 길에서 원효는 해골에 끈 물을 마시고 “진리는 결코 밖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서 찾아야 한다.”라는 깨달음을 터득하고 의상과 헤어져서 돌아왔다 라는 일화가 전해진다.

낙산사를 찾아오는 들길에서 벼를 베는 부인을 만나다.

원효대사가 양양 땅에 들어와 멀리 낙산(오봉산)이 보이는 논두렁길을 걷고 있노라니 논에서 흰옷을 입고 벼를 베고 있는 부인을 만나 “남편은 무엇 하기에 부인 혼자 이 호젓한 들판에서 벼를 베고 있소. 나 같은 중이 업어가면 어찌려고?”라고 말을 던지니 부인은 대사를 쳐다보며 웃으면서 “나 같은 못생긴 여자를 어떤 남자가 업어가겠소. 요석공주처럼 곱게나 생겼으면 원효대사 같은 훌륭한 스님이 반하여 업어가겠지만...”한다.

한때 요석공주와 연정을 불태워 아이[설총(薛聰)]까지 낳았던 원효는 이 말을 듣고 마음이 뜨끔하였다. 초면에 중에게 서슴없이 받아넘기는 그 여자의 모습에는 범할 수 없는 기품이 있어 보였다. 원효는 그 기품 때문에 짐짓 “소승은 그따위 파계승 원효와는 다른 비구니니 업어갈 염려는 없습니다.”라고 자신을 옥해보는데 그 여자는 “원효대사는 자비심이 많고 너그러운 스님입니다. 자비심과 관용이 있었기에 요석공주의 애처로운 애정을 받았지요, 목석(木石)같은 외고집 중들



원효대사 진영

은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라고 뜻밖의 말을 하기에 호기심이 생겨 “그럼 부인도 원효대사가 구애한다면 요 석공주처럼 그 청을 들어주시겠소.”라고 은근히 떠보았다. 그러니 그 부인은 “나는 사정이 좀 다르오.”라고 대답하는 말을 듣고 정신이 번쩍 들어 혹 이 여자가 부처님의 화신이 아닐까 하고 생각되었다.

그래서 농을 거두고 “부인에게 실례되는 말을 하여 죄송합니다. 뜨내기 나그네 중의 말을 허물치 마십시오. 하도 관음보살같이 아름답고 다정하신 분이라 심심해서 한 말입니다.”하고는 “이렇게 오는 길에서 만나 이 이야기하게 된 것도 하나의 인연이니 벼 이삭 하나를 주면 낙산사 부처님께 추수를 감사하는 뜻으로 바치겠다.”라고 하였다.

그랬더니 부인이 “그렇지 않아도 올해 부처님 은덕으로 대풍년이 들어 보은의 뜻에서 낙산사 부처님께 바치려고 사실은 스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라고 대답하면서 건네주는 벼 이삭을 받아들고 헤어졌다.



멀리 낙산사(오봉산)가 보이는 강현면 답리,주청리 들판

다리 밑에서 월수백(月水帛)을 빠는 여인을 만나다.

원효는 재촉하여 낙산사로 향해 한참 가니 맑은 시냇가 다리 밑에서 소복을 한 여자가 생리대를 빨고 있었다. 원효는 목이 말라 그 여자에게 물 한 모금을 청했다. 여자는 빨래가 잠겨있는 아랫물을 떠주었다. 화가 난 원효는 그 물을 엥질러 버리고 “같은 값이면 빨래 위쪽의 맑은 물을 떠줄 것이지...”라고 하면서 손수 내려가 퍼마셨다. 빨래하던 여인은 이 광경을 물끄러미 바라볼 뿐 겹언쩍어하거나 부끄러워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다.

이 일을 당하고 나서 원효는 “기이한 일도 다 보겠다.” 혼자 중얼거리면서 언덕을 올라 발길을 재촉하였다.

길옆 소나무 위 파랑새를 만나다.

원효는 혼자 중얼거리며 가는데 길옆 소나무 위에 파랑새 한 마리가 날아와 앉으며 “휴제호화상(休醜和)

尙/그만두시오)”이라 크게 한 마디 울고는 어디론지 날아갔다. 원효는 “이상한 말을 하는 새로구나.” 뇌까리며 그 소나무 밑을 보니 벗어놓은 신발 한 짝이 있었다.



낙산사 흥련암(관음굴) 앞의 파랑새 모습

법당에 들어가서 깨달음을 얻었다.

원효가 낙산사에 이르러 예불하려고 법당에 들어가 보니 관음보살의 불상 밑에 여자의 신 한 짝이 있었다. 자세히 보니 파랑새가 앉아 울던 소나무 밑에 있던 그 신짝과 똑같았다.

그제야 벼를 베던 여자와 월수백을 빨던 여자가 사람이 아니고 관음보살의 화신으로 나타나 나를 시험해 보려고 했던 것이라 깊이 뉘우치며 깨닫게 되었다.

이런 설화가 있는 뒤부터 이곳에서는 파랑새가 앉았던 소나무를 관음송(觀音松)이라고 기리고 있으며, 낙산사에서 파랑새를 만나면 관음의 진상을 뵈는 듯 기뻐한다.

양양 진전사에서 시작된 한국의 조계종

양양은 명실공히 불교의 성지이다. 법성종을 창종(創宗)한 원효는 설악산 신흥사에, 화엄종의 개조인 의상은 해안절벽 오봉산 낙산사에 그리고 조계종의 종조인 도의는 설악산 화채봉 자락 진전사에 깃들었는데 진전사는 선교일치(禪敎一致)를 표방하는 대한불교조계종의 모태(母胎)다.

도의선사는 당나라에 유학하여 달마로부터 내려온 면벽(面壁) 수행법을 익힌다. 깨우침을 얻은 그는 ‘누구든 참선만으로 성불할 수 있다’는 선종의 교리를 전파하고자 귀국하나 왕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교종으로부터 ‘마귀의 소리’를 지껄인다고 배척받는다. 유랑길에 오른 도의는 신라의 북쪽 변방 설악산 아래 외진 마을 둔전리에 진전사를 창건한 후 40년을 지내며 수도하다 열반한다.

경전을 공부하지 않고도 성불할 수 있다는 선종의 구도방식은 글을 배우지 못한 불제자들 마음속에 복음처럼 파고들었고 내 마음이 곧 부처[자심즉불:自心卽佛]라는 생각은 대중을 매료시켰을 것이다. 자신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직지인심:直指人心] 문자를 넘어[불립문자:不立文字] 마음과 마음을 연결하여[이심전심:以心傳心] 본래 지닌 인성을 살피 부처에 다다르자는[견성성불:見性成佛] 선종의 교리는 신라 말에 번성하여 고려 창건에도



진전사, 진전사지



진전사지 삼층석탑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런 도의의 사상과 수행법은 염거에게 전해지고 염거의 가르침은 다시 체징에게 전해지는데 체징은 가지산문(迦智山門)을 이룬다. 이런 연유로 도의는 장흥 보림사 가지산문의 개조(開祖)가 되고 후에 조계종의 종조로 추앙받는다.

진전사의 명운

진전사는 낙산사보다 150년 이상 늦은 9세기경 통일신라 때 세워졌는데 삼국유사를 지은 일연이 계를 받은 곳이기도 하다. 고려의 국사(國師)를 지낸 일연은 진전사의 교세 확장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렇듯 건재하던 진전사가 조선조에 들어 언제 어떤 연유로 폐사되었는지도 모르는 잊혀진 절이 되었다. 절터 발굴과정에서 진전(陳田)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기와가 발견된 후 고증을 통해 도의선사가 머물던 진전사로 밝혀졌다. 진전사가 조선조에 쇠멸하였다면 억불정책과도 연관 지어볼 수 있겠으나 낙산사와 견주어볼 때 그것만으로 해석하기에는 석연치 않은데 구전에 의하면 화적의 습격을 받아 폐망하였다고도 한다.

낙산사는 이성계의 증조부 익조가 정숙왕비와 함께 관음굴(홍련암)에서 기도하여 이성계의 조부인 도조를 잉태하였다는 설화가 있을 정도로 조선 건국 전부터 이씨 가문과 인연이 깊다. 이런 관계 때문인지 억불 군주인 태조는 낙산사에 행차하여 법회를 열고 세조는 사찰을 크게 중창한다. 낙산사는 왜란, 호란 및 몇 차례 화재를 겪으며 소실되었으나 그때마다 왕조의 후원을 받았던 반면 진전사는 부지불식 몰락해버렸다. 혹시 낙산사와 진전사 두 사찰 사이에 갈등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산속 묵정밭에 애써 일구었던 사찰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릴 명운을 도의선사는 미리 예견했던 것인가. 묵을 진(陳) 밭 전(田) 절 사(寺), 이름이 운명을 좌우한다던데 묵정밭절이라니. 하기가 묵정밭이나 절이나 부처가 계시기는 매일반일 터이니...



진전 명 외편 (1965년 출토)

진전 명 외편



도의선사 옛 부도

진전사지 부도탑을 돌며

한상호

1

설악산 영봉靈峯

화채봉 가는 길

신라 선승 도의

걸음 멈추다

2

생각 끊고 마음 이어

조근조근 돌계단 쌓았으리라

한 칸 한 칸 지은 산속 절간

무처불통無處不通 큰 바다를 꿈꾸었을 것이다.

3

오오,

허물어져 세워진 큰 문자

목을 진陳, 밭 전田, 절 사寺

목정밭이 곧

절집인 것을

천경天經 그 만론萬論이 모두

바람에 이는 파도*인 것을

* 조오현, 〈파도〉 일부

【참고 1】 도의국사의 출생과 사망 연대는 기록이 전하지 않는다. 성은 왕 씨이고 도의는 법명이다. 신라 선덕왕 5년(784)에 당나라에 가 37년을 공부하고 헌덕왕 13년(821)에 귀국하였다.

【참고 2】 진전사지 발굴 시 출토된 기와에 적힌 중국연호를 대조해보면 1467년 조선 세조 13년에 해당한다. 이로 미루어 진전사는 최소한 그때까지 존속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영혈사(靈穴寺)의 영천(靈泉)에 얽힌 설화

원효가 설악산 관모봉 동남쪽 명당에 영혈사를 세웠다.

삼국유사 원효불기(元曉不羈)에 원효는 신라의 경주궁궐 앞 거리에서 “누가 자루 빠진 도끼를 허락하려는가? 나는 하늘을 받칠 기둥을 다듬고자 한다.(誰許沒柯斧 我斫支天柱, 수허몰가부 아작지천주)”라고 소리 높여 노래하니 신라 29대 태종무열왕이 그 뜻을 알아차리고 그를 요석궁(瑤石宮)으로 맞아드려 혼인한 지 사흘 만에 남편을 잃고 청상과부가 된 요석공주와 정을 맺게 하였다. 영민한 설총(薛聰)의 아버지가 된 원효는 양양의 관음굴에서 관음진신을 친견하지 못하고 명산인 설악산에 들어가 관모봉 동남쪽 기슭의 명당자리에 신라 31대 신문왕 9년(689년)에 영혈사를 짓게 하였다. (창건연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영혈사에 금당에 모셔진 원효대사 진영

원효가 영천을 찾고서 절 이름을 영혈사라 하다.

절을 일으켜 세우고 보니 만물의 생장에 절대 필요한 샘물이 없어 절 근처에 샘이 날 만한 곳을 두루 찾아보았으나 샘을 얻을 방도가 없자 원효대사는 밤낮으로 부처님께 샘이 솟는 곳을 찾아 달라고 기도를 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대사의 꿈에 백발노인이 나타나 절 근처 한곳을 가르쳐주며 “이곳을 파면 물맛이 좋은 샘이 나올 것이다. 이 샘은 그대의 정성이 지극하여 솟는 샘이니 보통 샘과는 다르다. 아무리 가물거나 장마가 저도 이 샘은 물량이 변동 없을 것이다. 만약 그 샘물이 다른 곳으로 갈리어 가면 이 샘의 물도 줄거니와 이 절도 크



영혈사

게 번성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어디론가 사라지고 말았다.

꿈에서 깨어난 대사는 백발노인이 알려주던 장소에 가서 샘터를 팠더니 과연 맑은 샘이 솟아났다. 어느 때를 막론하고 샘물의 양이 일정하게 솟아나므로 이 샘을 영천(靈泉)이라 이름하고, 이 절 이름도 영혈사(靈穴寺)라 부르게 되었다.

원효가 영혈사의 영천을 홍련암(紅蓮庵)에 끌어온 샘터의 설화

원효는 영혈사를 세운 뒤에 낙산사에 가서 한때 홍련암에 기거하고 있었다. 이 암자에 식수가 없어 낙산사 본사의 샘물을 길러다가 먹는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대사는 이곳을 찾아드는 신도와 승려의 불편을 덜기 위하여 샘을 하나 찾아야 하겠다고 마음먹고 며칠을 두고 홍련암 근처를 여기저기 파보았으나 샘은 나오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꿈에 전에 영혈사에서 샘 때문에 고생할 때 찾아왔던 그 노인이 나타나서 “홍련암 옆 바른쪽에 샘터가 있다.”라고 알려주면서 “그런데 그 샘물줄기는 영혈사의 영천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영천의 물이 반으로 줄어들 것이다.”라고 알려주곤 어디론지 사라졌다.

대사는 잠에서 깬 그 날 새벽에 일어나 백발노인이 알려준 곳을 찾아가서 파보니 과연 맑은 샘물이 솟아나고 물맛 또한 영혈사의 영천 물맛과 똑같았다. 이 샘이 지금도 홍련암 옆에 있는 바로 그 샘물이라고 전한다.

영혈사의 영천과 낙산사 흥련암과의 역학관계

대사는 지난날 영혈사의 영천을 얻을 때 백발노인이 일러주던 꿈 생각이 뇌리에 스친다. ‘만약 그 샘물이 다른 곳으로 갈리어 가면 이 샘의 물도 줄거니와 이 절도 크게 번성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일러준 말의 생각에 가슴이 철렁한다.

낙산사는 대찰이니 더 번창하지 않아도 좋거니와 또한 흥련암도 식수의 불편함이 있으나 수고로울 뿐 견딜만하였었는데, 모처럼 세워놓은 영혈사가 번창하지 않아서는 아니 되겠다고 생각하고 흥련암의 샘을 막아 버리기로 작정하고서 샘이 터져 나온 샘구멍을 막으려고 온갖 방도를 다 썼으나 한번 터져 나온 샘구멍은 막을 수가 없어서 샘터를 깨끗하게 정리하여 놓았다.

대사는 영천의 물이 정말로 반으로 줄었는가를 알아보려고 다음 날 행장을 꾸려 달음질쳐 영혈사에 다다르니 영혈사의 중들이 울상이 되어 “어제 갑자기 영천의 샘물이 반으로 줄어들어 겨우 우리들의 식수를 이어줄 정도밖에 되지 않겠으며, 예불하러 찾아오는 신도들의 용수로는 부족할 것입니다. 전과 같이 샘이 솟아나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 영혈사의 미래가 걱정됩니다.”라고들 한다.

대사가 이 말을 듣고 영천에 가보니 과연 샘이 반으로 줄어 있어 뉘우치는 바가 없지 않으나 별도리가 없다고 홀로 탄식하였다.

매년 석가탄일에는 영혈사에도 등불이 불야성을 이룬다.

영천의 물을 흥련암으로 반이나 보내준 탓일까? 영혈사는 낙산사처럼 크게 번창하지 못한 채 명맥만을 이어가고 있는 듯 한적하나 6·25전쟁 때 설악산지구 전투에서 숨겨간 호국영령들의 위패를 모셔 둔 지장전(地藏殿)이 있어 해마다 석가탄신일에 인근 부대의 국군장병들이 참여하여 호국영령 천도제를 여는 호국의 사찰로 명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주】 : 영혈사는 사찰 명칭이 영혈(靈穴)이어서 “영험한 굴”이 있다는 것인데 이곳에는 영천(靈泉)이라 하여 샘이 솟는 바위가 있어 영혈사라 이름하였다. 숙종 16년(1690) 사승(寺僧) 취원(聚遠)이 영혈사를 중건하고 “영천사”라 개칭한 바 있으며, 고종 24년(1887) 사승 지화(知和, 도윤(道允)이 영천사를 중수하면서 다시 “영혈사”로 고쳤다. 신령스러운 샘[泉]에서는 깨끗하고 맛좋은 약수가 솟아나 많은 방문객이 찾고 있다.



영혈사 합동위령제 사진
<출처 : 네이버 블로그 설악산공의하루>

관음성지(觀音聖地) 오봉산(五峯山) 낙산사(洛山寺)

낙산사(洛山寺)는 신라 의상법사(義相法師)가 671년에 창건한 사찰이다. 금당(金堂)은 원통보전(圓通寶殿)으로 관세음보살(觀世音菩薩)을 모시고 있다. 이곳은 우리나라 3대 관음도량 중 최고이며 관세음보살이 늘 계시는 곳이다. 의상법사가 보살을 친견했던 신비한 관음굴은 지금도 홍련암(紅蓮庵)의 법당 마루에 난 작은 구멍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법사께서 항상 관세음보살의 설법을 듣고 완전한 깨달음을 얻어 중생제도를 소원했던 관음성지(觀音聖地) 낙산사에 얽힌 이야기를 통해 불멸의 법을 마주해본다.

왜 “낙산(洛山)”이라 부르게 되었을까?

낙산(洛山)이란 지명은 관세음보살(觀世音菩薩)이 보타낙가산(寶陀洛伽山)에 사신다하여 이를 줄여서 낙산이라 하였다. 원래 이 산은 서역(인도) 남쪽 해안에 있으며 한자로 번역하면 백화수산(白花樹山)이라고도 한다. 중국도 당나라 때 절강성의 주산군도(舟山群島)에 관세음보살이 거주한다고 믿으면서 이 지역에 있는 두 섬을 보타산과 낙가산이라 부르게 되었고, 오늘날까지 관세음보살께서 머무는 성지로 추앙되고 있다.



보타낙가산에서 유래한 보타전

낙산사가 불자들의 최고의 기도처가 된 까닭은?

관세음보살은 일체중생의 모든 고뇌를 없애주기 위하여 온세계 모든 국토에 나타나며 대상에 따라 32가지

로 몸을 바꾸면서 중생을 제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도 가피(加被, 혜택)를 받는다. 여러 보살 중 가장 대자대비(大慈大悲)하여 부처님 다음가는 성인으로 꼽힌다. 특히, 관세음보살을 부르기만 해도 즉시 나타나서 꼭 필요로 하는 맞춤형 자비를 베풀어주신다고 알려져서 이루고자 하는 소원이 있는 중생은 낙산사를 찾게 된다.

낙산사 창건과 설화의 성립은 어느 것이 먼저일까?

삼국유사 “낙산이대성(洛山二大聖)” 편에 의하면 의상법사가 당나라에서 공부하고 돌아왔을 때 관세음보살께서 낙산에 머문다는 말을 듣고 이곳에 찾아와 엄숙하게 기도한 지 7일 만에 관세음보살을 직접 뵈고 대나무 한 쌍이 솟은 곳에 낙산사를 창건하게 된다.

설화에는 관음이 머무는 곳이 ‘낙산’이라서 낙산사를 창건하였으니 낙산이 낙산사보다 먼저다. 그러나 이 지역을 ‘낙산’이라고 부른 시기(10세기 초)와 의상대사의 활동 시기(7세기 후반)는 실제로 250년이나 차이가 있다. 그 이유는 의상과 관련된 낙산 설화는 낙산사가 창건되고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는 견해가 정설이다. 낙산사 창건 설화를 그린 수월관음도가 10세기 초엽인 고려시대에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설화는 불화가 그려지던 즈음에 성립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이렇게 이어지던 설화가 익장(益莊) 스님의 낙산사기에 기록되었고, 약 50년



광여도에 표기되어있는 이화정(梨花亭)

후인 고려 말(1281년)에 일연 스님이 채록하여 삼국유사로 전해진다.

백화도량과 이화정!

낙산은 흔히 백화도량(白花道場) 이라고 하는데 “흰 꽃나무가 있는 산”이라는 의미의 백화수산(白花樹山)이다. 의상법사의 신앙 고백을 담은 백화도량발원문(白花道場發願文)도 이 같은 연유로 신성한 백화도량에서 발원을 한 것으로 전한다.

또한 낙산사에는 언제부터지는 모르나(조선 초기로 예상) 배꽃을 상징하는 이화정(梨花亭)이란 정자가 있었다. 높은 곳에서 바다에 임해 있어, 해와 달이 그 아래로 출입하였다고 했다.



낙산사 파도소리 해조음(海潮音)

조선시대 홍문관 제학을 지낸 정두경(1597~1673)은 낙산사에 와서 '바다 위의 정자에는 배꽃이 만발하고 낙산 곁의 바다는 아득하다'라는 시를 지었고, 인조 때 강원도 관찰사 조문수

(1590~1647)가 낙조(落照) 후에 달이 바다 위로 떠오를 때 이화정에 수레를 멈추고 조산 쪽을 바라보면서 시를 지었다 하니 이화정은 내로라하는 문신들이 이곳에 올라 주변에 흐드러지게 핀 배꽃을 지평선에 부서지는 흰 파도에 비유하는 장소였다.

능엄경(楞嚴經)에는 ‘진정한 깨달음은 들음으로써 들어간다.’는 관세음보살의 수행법인 이근원통(耳根圓通; 귀로 듣는 것을 근본으로 하여 깨닫는 방법)이 있다. 낙산의 파도 소리인 해조음(海潮音)을 들으면서 의상대사가 바라던 깨달음을 얻기를 염원한다.

신라의 동해안 북진을 위한 전략적 요충지 양양

(후포매리산성과 고분군의 고찰)

1. 서언

최근 산 좋고 물 맑은 양양은 육해공에 걸쳐 종합 운송 수단을 갖춘 교통의 요충지로서 동해안의 중심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많은 사람이 양양의 변화를 주목하고 관심을 갖고 있다. 1500여 년 전의 양양은 어떠하였을까. 양양은 수백 년 동안 고구려의 땅이었지만 5세기 후반 ~ 6세기경 신라 정부는 양양을 동해안 북진의 전략적인 요충지로 삼아 고구려에 대항, 교통로와 보급로 확보, 지방통제, 외부의 공격에 대한 방어 등의 기능을 담당할 전진기지로 구축하여 신라 팽창의 거점으로 삼고자 했다. 이는 후포매리 산성과 그 주변에 분포되어있는 고분군을 통해 충분히 증명되고 있다.

2. 후포매리산성

후포매리산성은 양양군 현남면 인구리와 견불리의 경계 일대에 위치한다. 이 산성은 삼국시대에 처음 축조된 성으로 그 위치상 고도가 높고 험한 산봉우리 정상에 만들어졌으며 북쪽의 산봉우리로부터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낮아지는 긴 타원형이다. 산성은 잘 남아있으며 성벽의 둘레가 약 450m 정도이다. 산성에서는 인구 앞바다, 후포매리의 포매호와 주문진까지 조망된다. 성벽의 축조 방법은 2~3단의 석축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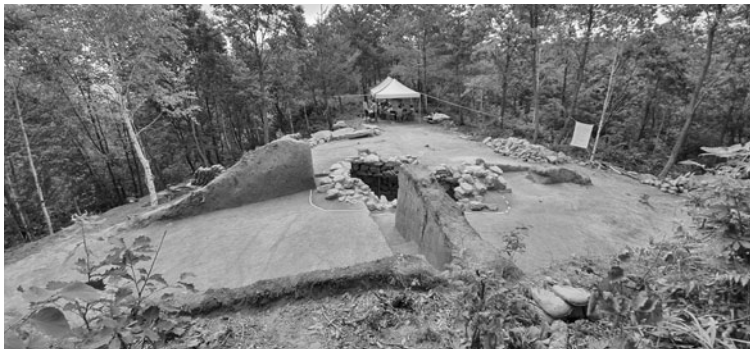
후포매리 신라산성

낮게 기반을 만든 후 그 위에 토축(土築)을 하는 기반석축형(基壇石築型) 토성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토성(土城)으로 판단한다. 산성 내에서는 경주계 토기들이 다량 보인다는 점에서 경주 세력의 강한 영향력과 신라 중앙세력의 다양한 지방 지배의 통제 방식과 관련지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지역이 신라 북쪽의 동해안 변경에 위치한 까닭에 고구려 및 외부의 공격에 대한 방어를 위해 산성은 다소 평지와 먼 거리이면서 높은 고도에 축조되었고 이후 신라의 동해안 진출과 관련하여 군사적 거점이나 동산현(洞山縣)의 치소(治所) 또는 배후성(背後城)으로 활용되었을 것이다.

이는 진흥왕이 함경도로 진출할 때 양양이 교두보 역할을 했으며 신라의 전성시기를 구축하는 군사적 요충지였다는 것을 시사한다.

3. 후포매리 고분군

후포매리산성 주변으로 후포매리고분군 I·II가 분포한다. 후포매리고분군 I이 후포매리산성의 남쪽 가까운 곳에 위치한 반면 후포매리고분군 II는 산성에서 동쪽으로 1.5km 떨어진 지점에 위치한다. 2017년 지역주민 제보로 후포매리 산85번지 일대에 대한 기초 조사를 실시하고 2020년 강원고고문화연구원에서 후포매리고분군 I 내의 고분 1기를 학술발굴조사 하였다. 이 고분은 영동지역 최북단의 옛 신라 앞트기식돌방무덤(橫口式石室墓)으로 확인되었다. 앞트기식돌방무덤이란 묘실(墓室)의 한쪽 벽을 뜯고 출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 추가 매장을 의도한 무덤 형태로 6세기부터 조성되었다. 또한 고분에서는 신라 6세기대로 추정되는 토기와 마구류(馬具類), 철도자(손칼) 등의 유물이 발



후포매리에서 발견된 아트기식 돌방 무덤,



고분 석실 덮개석

굴되었다.

양양 후포매리고분의 발견은 그간 옛 신라 고분이 여럿 발견된 강릉 일대보다 더 북쪽까지 신라가 영역을 넓혔다는 의미이며 앞서 1990년대에 고구려 고분으로 발견된 양양 포월리 고분군과는 직선거리로 3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사실을 통해 당시 양양이 양국 국경선 다툼에서 요충지였음을 추론해 볼 수 있다.

4. 양양의 고분군들의 상관관계

양양지역 남쪽에 위치한 원포리고분군은 5세기 중엽부터 6세기 중엽까지 조영된 신라의 고분군으로 5세기 중엽에는 원포리 일대까지 신라 영역권에 포함되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양양지역 북쪽에 위치한 포월리 고분군은 고구려 계통의 관고리가 보이는 등 무덤의 구조와 매장 방식 그리고 출토유물을 통해 고구려 고분군으로 확인된다. 서로 다른 성격을 띠는 두 고분군의 중간 지대가 5세기 중엽까지의 신라-고구려의 경계 지역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5세기 후엽에 들어서면서 신라는 고구려의 압박에서 벗어나 경계를 확장하고 소백산맥 이북에서 전투를 벌이고 새로이 축성(築城)하거나 개축(改築)하는 등 점차 북진하는 양상을 나타낸다. 5세기 후엽부터 6세기 중엽까지 신라는 소백산맥을 넘어 남한강 상류 역까지 많은 산성과 고분군을 조영한다. 강원지역 역시 이러한 흐름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이는 산성과 고분군이 여럿 확인된다. 이와 같은 흐름 속에서 동해안의 고구려와 신라의 경계, 신라의 북방진출을 크게 뒷받침하는 역사적 자료가 바로 양양의 후포매리산성과 후포매리고분군이다.

5. 역사적 의의

후포매리 산성은 강원도 동해안에서 최초로 발견된 그리고 최북단에 위치한 신라성이다. 지금까지 강원도 동해안의 고고학적 조사는 신라 고분 자료가 대부분이었으나, 이 후포매리산성은 후포매리고분군과 함께 후포매리산성의 지리적 위치에 따른 고대 교통로, 고구려·신라의 군사적 긴장이 한층 고조되었던 5~6세기 강원 영동지방의 역사적 변동상황, 신라 고분 문화의 지방 확산 향상 등을 연구하는데 매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양양에 담겨있는 지리적 역사적 가치를 다양하게 만나볼 수 있을 것이다.

교통의 요충지 양양

양양은 요즘 시대 말로 핫 플레이스(Hot Place :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유명한 장소)이다. 특히 교통적으로는 양양국제공항과 고속도로, 그리고 동해북부선 철도까지 예정되어 있어 기대감에 부풀어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 지역의 교통 환경을 통하여 조선시대 양양의 위치를 살펴보고자 한다.

양양의 지정학적(地政學的) 위치

조선시대 강원도는 태백산 동쪽에 아홉 고을(통천 ∞ 울진)이 있었는데 남북으로는 천 리지만 동서로는 백 리도 못 되는 거리로 그중 양양이 유독 한양과 최단거리이며 동해안의 중심이다.

이러한 연유로 조선시대 강원도 동쪽을 남북으로 양분하여 그 북쪽은 양양(襄陽)의 상운도(祥雲道)가 양양(襄陽)-간성(杆城)-고성(高城)-통천(通川)-흡곡(歙谷)까지의 15역로(驛路)를 관할하였으며, 남쪽은 삼척(三陟)의 평릉도(平陵道)가 강릉(江陵)-삼척(三陟)-울진(蔚珍)-평해(平海)까지를 관할했다.

신증동국여지승람(1530년) 권44 양양도호부 역원



(상운도 관할 15역이 기록되어 있고, 양양의 인구 · 연창 · 강선역이 별도로 표기되어있다)

역참(驛站)의 역할

국가의 행정 명령과 공문서의 전달, 변방의 긴급한 군사 정보 및 외국 사신 왕래에 따른 영송(迎送)과 접대, 그리고 공공 물자의 운송 등을 위하여 설치된 교통 통신기관으로, 흔히 우역(郵驛), 역관(驛館)이라고도 하였다. 역참은 군사·외교면 뿐만 아니라 행정적인 측면에서도 중앙집권적인 사회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육상에는 육참(陸站)을 설치하여 주로 역참이라 하였고, 해상이나 강변에는 수참(水站)을 설치하여 수로와 육로를 연결하였으며, 때로는 통행인을 검문하는 관방(關防)의 구실도 하였다.

조선 시대에는 고려의 역참 조직을 계승하면서 30리를 1식(息)이라 하여 약 30리마다 1개 역을 설치하였다.

또한 역촌을 중심으로 지방에는 촌락이 형성되고 교통의 요지가 되어 상업 도시가 발달하는 요인이 되었다. 이와 같은 역참의 전통 아래 1896년 갑오개혁 이후 현대적인 도로·교통 체제가 발달하면서 폐지하게 되었다.

상운도(祥雲道)의 위상

상운도(祥雲道)의 유래는 고려시대의 명주도(溟州道)와 삭방도(朔方道)에서 찾을 수 있다. 이 두 역도(驛道)에 속한 역들이 조선 전기 세종 연간에는 대창도(大昌道)에 소속되었다가 세조와 성종을 거치며 상운도로 독립되었다.

『경국대전』(1485년)에 수록된 전국의 역참 조직은 41역도 543속역으로 편성되는데 상운도는 16개의 속역 중 양양의 상운역을 본역(本驛)으로 하였으며, 성종 때까지는 역승(驛丞)이, 중종 이후에는 찰방(察訪 : 종6품)이 파견되어 역무를 맡아보았는데, 『승정원일기』에 인조 9년(1631)에 신적도(申適道) 부터 고종 31년(1894)에 김교명(金敎命)까지 약 160여 명이 상운역 찰방으로 관직을 제수(除授)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증보문헌비고』에는 전국 40개 역도, 535개 역에 5,380필의 말이 있었는데 전국의 역은 9등급으로 나누어져 1등부터 9등까지 대마(大馬), 중마(中馬), 소마(小馬)를 구분하여 차등을 두었는데 역의 대부분은 7~9등 로(路)에 속하였다.

『여지도서(輿地圖書)』에는 상운도(祥雲道)에 역리(驛吏) 1,202명, 역노(驛奴) 347명, 역비(驛婢) 186명이 배정되어 역무를 담당하였으며, 역마는 93필이 배속되어 있었다는 기록이 있다.

찰방의 업무는 말(馬) 관리뿐만 아니라 유량인 체포와 죄인 압송, 군사 요충지 방어, 왕이 행차 시 접대, 역사(驛舍) 관리, 도성 축성과 구휼(救恤), 목장 감독, 도첩(度牒) 없는 승려 색출, 환곡(還穀) 담당 등 광범위한 일을 하다 보니 엄청난 인력을 관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상운도의 본 역인 상운역(祥雲驛)의 경우 역리 154명, 역노 30명, 역비 29명과 역마 11필이 배치되어 있었다는 기록이 있다. 『관동지(關東誌)』와 『양양읍지』에도 대마 3필, 복마(卜馬 : 짐을 싣는 말) 8필 등 총 11필의 역마가 배속되었다는 기록을 보면 7등 로(路)에 속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상운역은 세종 때 대창도에 편성되었다가, 세조 8년(1462)에 상운도로 이속(移屬) 되었다. 성종 24년(1493) 미시파령(彌時波嶺) 길을 개척함으로써 양양의 오색역을 폐지하고 간성에 원암역(元巖驛)을 설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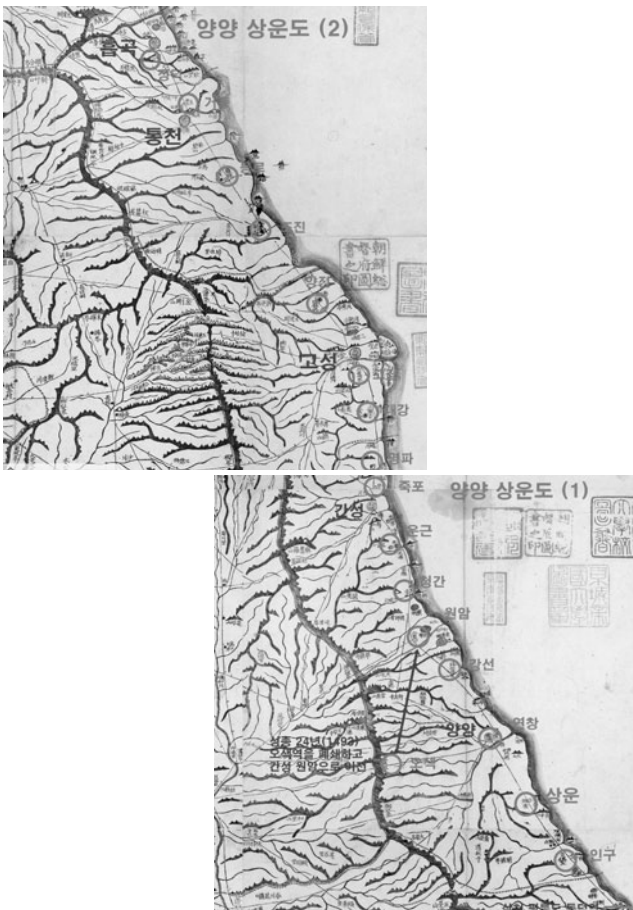
선조 23년(1590)에는 상운역에 있던 “상운관(祥雲館)”을 양양도호부 관아와 인접해 있는 연창역으로 이건(移建) 상운도(祥雲道) 15속역(屬驛)을 관할하였다.

교통과 양양의 미래

위와 같이 조선시대 이래로 양양은 가히 교통의 중심지였다. 하늘길이 열리고 국제적 관광지로 도약하고 있으며 육로로는 고속버스가 연일 수도권 왕복하고 있다.

이러한 때 1937년 12월 1일부터 운행되던 양양∞안변간 철도를 이용한 물류와 금강산 수학여행을 상기하며 다시 한 번 동해북부선의 조기 완공으로 지역 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을 기원한다.

조선시대 양양 상운관할 역도 위치도



제7회 전국한시백일장 (願雪嶽五色索道建設) 입선시



入選詩

제7회 전국한시백일장(願雪嶽五色索道建設) 입선시

壯元

台岡 宋 聲 鎬

願雪嶽五色索道建設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지곡로 294 그린A 222동 1301호

名區五色冠吾東
索道希求萬姓同

명구 오색은 오동에서 으뜸인데
케이블카를 희구함은 만성이 같도다.

足下展開新景物
窓邊羅列美屏風

발아래는 새로운 경물이 전개되고
창가에는 아름다운 병풍이 나열되리라.

無瑕設計應無過
有價經營必有功

하지없는 설계엔 응당 허물도 없고
가치있는 경영엔 반드시 공이 있으리.

雪嶽便安登頂際
襄陽郡勢益興隆

설악을 편안하게 등정할제
양양의 군세는 더욱 흥룡하리라.

次上

願雪嶽五色索道建設

雪嶽崢嶸聳海東
必要索道萬人同

早期許可望恩澤
卽刻施行待惠風

由此觀光成盛業
賴斯經濟得豐功

無難大事能完遂
發展襄陽郡勢隆

直山 金 鍾 大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천로 233,
월드메르디앙 105동 301호

설악산 쟁영하게 해동에 솟았으니
삭도가 필요함이 만인이 같구나.

조기에 허가하여 은택을 희망하고
즉각 시행하여 혜풍을 기대하노라.

이로말미암아 관광이 성업을 이룰것이요
이에 힘입어 경제는 풍공을 얻으리라.

무난하게 대사를 완수하게 되면
발전하는 양양 군세가 융성하리라.

次上

願雪嶽五色索道建設

雪嶽巍巍冠大東
吾曹索道一心同

郡民宿願衝天勢
萬姓希求起國風

環境親和傾總力
自然保護盡多功

順調本事能成就
賴此襄陽永遠隆

嘏朗 金 俊 鎬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장산5길 59-12

드높은 설악산은 우리나라에서 으뜸인데
우리들은 삭도를 일심으로 동의하노라.

국민의 숙원이 하늘 찌를 기세이고
백성이 희구함에 국풍이 일어나네.

환경친화에 모든 힘을 한 곳에 기울이고
자연보호에 많은 공을 다 쏟아야지.

순조롭게 본 공사가 능히 성취되면
힘입은 양양은 오래도록 융성하리라.

次下

願雪嶽五色索道建設

雪嶽靈峯聳出東
開通索道願心同

望人刮目驚奇景
乘客浮空醉爽風

文化提供成動力
觀光活躍現殊功

新臨統領行公約
課業完工郡勢隆

慧耘 姜 聲 浩

경상북도 안동시 영호4길 10 혜운정사

설악산 영봉이 솟아난 동편에
삭도개통을 원하는 마음 한가지로다.

망인은 눈을 비비며 기이한 풍경에 놀랄것이오
승객은 공중에 떠올라 상풍에 취하리라.

문화를 제공하는 동력을 이룰 것이오
관광 활약에 수공으로 나타날 것이로다.

새로운 대통령께서 공약을 이해하시어
과업을 완공하면 군세가 융창하리라.

次下

願雪嶽五色索道建設

絕勝襄陽秀大東
徹天索道懇望同

靈山建設隨人海
秘境加工起國風

官吏堂堂傾死力
鄉民烈烈取成功

老齡障礙須期待
皆主名區美化隆

蒼波 金 允 來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포월윗말길 40

우리나라에서 빼어난 절승지 양양에
하늘에 사무치도록 삭도를 간절히 바란다.

영산에 건설하니 인해가 따르고
비경에 가공하니 국풍이 일어난다.

관리는 당당하게 사력을 기울이고
향민은 열렬하게 성공을 이루리다.

노령인 장애인 모름지기 기대하는 바이니
모두 주인인 명주로 극진히 아름답게 꾸미자.

次下

願雪嶽五色索道建設

碧菴 朴 水 植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 3길 22-3

雪嶽南枝五色東
懇望索道一心同설악산 남쪽 오색 동쪽에
케이블카 설치를 모두가 한마음으로 간망하네.即時實踐殫全力
近日施工起烈風즉시 실천하자고 전력을 다하고
근일에 시공하자는 열풍이 일어나네.上下相扶遺偉業
京鄉共助豎洪功상하가 상부하면 위업을 남길 것이오
경향이 공조하면 큰공 세우리라.郡民宿願完成後
從此襄陽被澤隆주민의 숙원사업을 완성 후에는
이에따라 양양군이 혜택을 입어 융승해 지리라.

參榜

願雪嶽五色索道建設

月湖 金 教 遠

부산시 북구 만덕로 8, 만덕동 베르빌A 101동 1804호

雪山絕景最吾東
索道造營希願同설악산 절경은 이나라에 최고이며
삭도를 조영하는되 원하고 바람은 갈네.政府傾誠挑熱氣
鄉民盡力起旋風정부가 경성하는되 열기를 도우며
향민이 진력하니 선풍이 일내나네.完全準備成鴻業
徹底施行樹大功준비는 완전하니 흥업을 이루고
시행을 철저하게하여 대공을 세우네.各界各層支援裡
賴斯誘致郡興隆각계각층이 지원하는 속에
이에 힘입어 유치되면 군이 흥융하리라.

參榜

願雪嶽五色索道建設

雪嶽名山冠海東
峻峰索道願心同

推知設置含祥氣
豫見施行起順風

政府傾誠成偉績
鄉民盡力樹豐功

今番大事竣工際
地域繁昌郡勢隆

梧田 金 榮 弼

경상북도 영주시 지천로 46 휴천현대A 107-602

설악명산이 이 나라에 으뜸이고
준봉에 삭도함은 원하는 마음은 같네.

추지하니 설치하여 상기가 머금고
예전한데 시행하니 순풍이 일어나네.

정부는 경성으로 위적을 이루고
향민은 진역하여 풍공을 세우며.

금번대사는 준공할 즈음에
지역번창하여 군세가 융성하여라.

參榜

願雪嶽五色索道建設

襄陽五色雪山東
索道希求萬姓同

魏魏懸公成偉業
堂堂宏貌振威風

尖端設計垂鴻蹟
堅固施工樹大功

協力官民誠意極
將看畢役賀聲隆

靜齋 金 冑 植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 245번길 21, 화서역
우방 센트럴파크 314동 1503호

동역 양양 설악산 오색에
삭도를 바라는 것 만성이 같도다.

높은 현공에 위업이 이루어지고
당당한 평모가 위풍 진동할 것이네.

첨단설계로 홍적 드리우고
견고 시공으로 대공 이룰 것이네.

협력 관민이 성의극하여
장차 필역하여 하성융할 것이네.

參榜

願雪嶽五色索道建設

一字 金 浩 喆

경상북도 영주시 참진로 194길 202

雪山五色在關東
索道希心老少同

설악산 오색은 강원도에 있는데
케이블카를 바라는 마음은 노소가 한가지네.

政府施行殫熱意
郡民推進起旋風

정부는 시행의 열의를 다하고
군민은 추진하는 선풍을 일으키네.

障人探訪扶難步
弱者登攀有隱功

장애인이 탐방하는데 어려운 걸음 도와주고
노약자가 등반하는데 숨은 공이 있겠네.

大選當時公約事
早期建設可能隆

대통령 선거당시에 공약한 사항이라
빠른 시일에 건설할 가능성이 높네.

參榜

願雪嶽五色索道建設

雲亭 裴 然 禹

서울 강서구 개화동로 5길 17-13

雪山景概最吾東
索道開通念願同

설악산 경계 오동에 으뜸인데
케블카 개통을 모두 염원하네.

若驚輕飛膽碧海
如機快走灑清風

솔개처럼 가볍게 날며 푸른 하늘 보고
비행기처럼 빨리 달려 맑은 바람 쏘이리.

出資黨政施深德
役事官民樹大功

당정은 출자하여 심덕을 베풀고
관민은 역사하여 대공을 세우자.

一目瞭然神秘境
觀光產業益豐隆

신비경을 한눈에 바라보는
관광산업 더욱 풍성 융흥하리오.

參榜

願雪嶽五色索道建設

素心 李 外 任

경남 거창군 거창읍 상동7길 93

勝地襄陽最海東
掛空索道願心同

승지양양은 해동에서 제일인데
삭도를 쾌공하기 원하는 마음 한가지네.

自然生態萬年畫
神妙景光千歲風

자연의 생태계는 만년의 그림이고
신묘한 경관은 천세의 모습이네.

政府公言成偉業
官民協力樹豐功

신정부 공언 지키면 위업을 이룰것이며
관민이 협력하여 풍공을 세우리라.

早期設置開通日
名所雄飛永久隆

조속히 설치하여 개통하는 날부터
명소는 웅비하여 영구이 융성하리.

參榜

願雪嶽五色索道建設

龍南 李 在 島

경상북도 영주시 선비로 215, 현대강변타운 3동 507호

雪山壯觀秀吾東
索道官民設願同

설악산 경관은 오동에 빼어났고
삭도는 관민이 설치함을 원하는 것 한가지네.

遠望扶桑增瑞氣
俯看洛寺起和風

멀리 동해상을 바라보니 상서로운 기운 더해지고
굽어살펴보니 낙산사는 화한 바람 일어나네.

奇巖怪石神仙跡
幽壑高臺造主功

기암괴석은 신선의 자취이고
그윽한 골짜기와 높은대는 조물주의 공이라네.

奧妙景光尤絕讚
天慳勝地喊聲隆

오묘한 경광은 더욱 절찬인데
하늘이 감춘 승지 함성이 높아지네.

參榜

願雪嶽五色索道建設

雪嶽靈山闡海東
施工索道願心同國家推進造成業
政界強行建設風老少圖謀傾總力
女男協助樹豐功觀光五色希望溢
遠近儒林祝賀隆

草堂 林 樂 相

경북 예천군 용문면 직동길 180

설악영산이 해동에 열려있고
삭도시공을 원하는 마음이 똑같네.국가가 추진해서 조성하는 일을 하고
정계가 강행하여 건설의 바람 이르켜야.노소는 도모하여 총력을 기울이고
남녀협조로 풍성한 공을 심어야.오색 관광은 희망이 넘치고
원근유림들모여 축하가 융성하네.

參榜

願雪嶽五色索道建設

索道將飛五色東
早期建設願心同奔忙計劃遺鴻業
迅速施工起順風老少相扶專協力
官民共助必成功觀光發展由斯促
可待襄陽遂日隆

一弘 趙 貞 淑

울산시 중구 우정6길 11

케이블카가 장차 오색에서 나르니
조기에 건설을 원하는 마음은 같네.분명한 계획은 큰업을 남기고
신속한 시공은 순풍을 일으키겠네.노소가 상부하여 오로지 협력을 하고
관민이 공조하면 반드시 성공할 것이요.관광발전은 이를 말미암아 재촉하니
가히 기대한다 양양이 날로 더 융성해지길 .

參榜

雲谷 崔 海 大

願雪嶽五色索道建設

울산시 중구 우정3길 9, 우정선경1차A 106동 1001호

雪山景致冠吾東
索道運營祈願同

설악산 경치가 오동에 으뜸이니
삭도 운영을 기원함은 같네.

經濟賴茲加活氣
觀光將次起旋風

이로 힘입어 경제가 활기를 더하고
이로부터 관광은 선풍을 일으키겠네.

奔忙計劃成鴻業
早速施工樹大功

분망한 계획에 흥업을 이루겠고
조속한 시공에 대공을 심겠네.

丕事必然完遂後
前程郡勢日增隆

큰일을 반드시 완수한 후에
앞길에 군세가 날로 더 융성하겠네.

佳作

溪山 姜 壽 均

願雪嶽五色索道建設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노이길 28-1

靈山雪嶽冠吾東
索道希望老少同

영산 설악은 해동의 으뜸이라
삭도 건설을 희망함은 노소가 같으네.

五色仰看沾瑞露
萬臺俯察趁祥風

<삭도를 타고가며>
오색 계곡 바라보니 서기로운 이슬에 젖고
만경대 굽어보니 상서로운 바람부네.

黎民竭力終成志
青史傳名永有功

여민이 힘을 다해 삭도 건설 뜻을 이루면
청사에 그 이름 오래 전하리.

環境親和完璧建
襄陽勝地大興隆

환경 친화적 공사로 완벽하게 건설되면
양양 승지는 크게 훌륭하리.

佳作

願雪嶽五色索道建設

東河 權 良 植

경기도 평택시 오성면 길음2길 29-4

雪嶽名區冠我東
運行索道讚辭同설악산 명승지 우리나라에 으뜸이니
삭도 운행에 찬사를 함께 하네.遠瞻潔淨飛巖瀑
俯瞰清涼起海風멀이 바라보니 폭포는 바위에서 날으고
굽어보니 시원한 바람은 바다에서 일어나네.舉世遊人安玩賞
龍山新府待恩功세상에 유인들은 구경을 편히 하고저하니
용산에 새로운 정부의 은공 기다리네.襄陽宿願終成後
經濟伸張國步隆양양에 숙원 사업이 마침내 이루어진 후에
경제 신장 국운이 융성 하리라.

佳作

願雪嶽五色索道建設

東山 權 榮 泰

경상북도 상주시 성동1길 74, 경희A 101동 610호

雪嶽靈峰秀海東
人人欲上一心同설악의 영봉이 해동에 빼어나니
사람마다 오르고 싶은 마음은 같도다.若成索道仙源景
假設虹橋佛國風삭도를 이루면 선원의 경치요
홍교를 가설하면 불국의 풍경이라.經濟伸張垂偉積
觀光誘致立奇功경제를 신장하여 위적을 드리우고
관광을 유치하여 공을 세우세.完工此業開通日
襄邑名聲萬丈隆이 사업을 완공하고 개통하는 날에
양양의 명성이 만길 높으리라.

佳作

願雪嶽五色索道建設

三松 琴 鏞 斗

부산시 남구 못골로 69번길 37, 연송주택 305호

靈山雪嶽冠吾東
索道運行咸願同

신령스런 설악산 우리나라 으뜸인데
이곳에 삭도 운행하길 모두 똑같이 바라네.

五色猶凌巫峽境
萬臺可勝武陵風

오색 계곡 오히려 무협 계곡을 능가하고
만장대는 가히 무릉경치 보다 더 좋네.

郡民竭力成多業
政府傾誠樹大功

군민들 힘을 다하면 많은 업적 이룰 것이고
정부는 정성 기우려 큰공을 세워야지.

若有開通誰上易
觀光自此必興隆

만약 개통해서 누구나 쉽게 오를 수 있다면
관광사업 이로부터 꼭 크게 일어나리라.

佳作

願雪嶽五色索道建設

松圃 金 敬 洙

충북 제천시 명륜로 16길 10, 학은서당

雪嶽靈山冠海東
希求索道郡民同

설악영산은 해동에서 으뜸이로다
삭도를 희망요구 군민이 함께하오네.

仙峰玉立清閒境
鳳瀑銀翻皎潔風

선봉이옥립하여 청한경계요
봉폭이 은빛으로 번디기니 교결한 풍광이로다.

重疊層岩成地勢
崢嶸絕壁作天功

거듭첩첩한 층암으로 지세를 이루었고
높고 까파른 절벽 천공으로 되었네.

日新政府關心裡
建設完工祝盛隆

나날이 새로워지는 정부의 관심리에 케이블카를
건설완공하면 축하가 성음하리라.

佳作

願雪嶽五色索道建設

如河 金 源 泰

충청북도 충주시 지곡10길 8, 103-904

雪嶽山川殊海東
何誰索道願望同

설악산의 산천은 우리나라에서 빼어나니
누구라도 삭도 건설을 바라는 것은 한가지일세.

復興商業逢天日
開發觀光見國風

상업이 다시 일어나는 운명의 날이되고
관광을 개발하는 국가의 모습을 보네.

物貨流通傾總力
人波逕至樹豐功

물화가 유통함에 총력을 기울여서
인파가 답지하는 큰공을 세우는도다.

登臨老弱歡呼裏
富邑襄陽景氣隆

노약자가 정상에 올라 내려다보고 환호할제
부유한 양양 경기가 융성하리라.

佳作

願雪嶽五色索道建設

泉岩 金 潤 壽

경북 청도군 이서면 상철업길 24

襄陽五嶺首吾東
勝景觀光錦繡同

양양의 오색령은 우리나라에서 으뜸인데
승경을 관광하니 금수와 한가지이네.

飛瀑虹懸含瑞色
長松鶴住帶清風

비폭에 무지개가 걸려 서색을 머금고
장송에 학이 머무르니 청풍을 띄웠구나.

奇巖萬嶽天神造
玉水千溪地氣功

만학기암은 천신의 조화로움이고
천계의 맑은 물은 지기의 공덕이네.

索道施行完備裡
人波玩賞讚聲隆

삭도 시행을 준비하는 속에
많은 사람들이 구경하면서 찬양하는 소리가
웅성하네.

佳作

三浦 金 恩 斗

願雪嶽五色索道建設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덕양로 398, 101동 202호

雪嶽煙霞冠我東
橫空索道願心同

설악의 산수 우리나라 으뜸일세
공중을 가르는 케이블카 원하는 마음 한가지네.

俯觀怪石無雙景
仰看奇巖第一風

괴석을 굽어보니 들도없는 경치요
기암을 우러보니 제일의 풍광이네.

老少傾誠成大業
官民盡力樹鴻功

노소가 정성기울기면 대업을 이루겠고
관민이 진력하면 홍공을 이우겠네.

至情不息完工後
賴此前程永世隆

지극한 마음 쉬지않고 완공하면
이에 힘입어 앞길은 영세토록 융성하리.

佳作

兩仟 金 仁 燾

願雪嶽五色索道建設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동 진등로 19번길 77
대하서예학원

名區雪嶽秀吾東
讚嘆人人每歲同

설악 명구가 우리나라에 빼어나니
사람마다 감탄하여 칭찬이 해마다 같네.

遠近千峯承麗日
高低萬壑動微風

원근의 봉우리에 화창한 날이었고
고저의 골짜기에 미풍이 움직이네.

獸禽戲豫山川德
草木繁昌雨露功

금수가 즐겁게 노는 것은 산과 내의 덕이요
초목이 무성한 것은 비와 이슬의 공일세.

細密研窮成此事
襄陽發展必興隆

세밀하게 연구하여 삭도 건설을 성취하면
양양발전에 반드시 흥하여 번성하리라.

佳作

願雪嶽五色索道建設

亭村 金宰顯

경북 안동시 감나무2길 31-18(태화동)

勝區五色首吾東
索道運行念願同

승구는 오색계곡이 우리나라에서 으뜸인데
케이블카 운행이 염원임이 모두 같구나.

登頂苦難消似露
下山安樂訪如風

정상에 오르는 고난은 이슬같이 사라지고
하산시에 안락은 바람처럼 찾아 오리라.

尖端技術施工監
優秀資材建設功

첨단기술로서 시공하도록 감리하고
우수한 자재를 써서 건설해 뜻을 이루리라.

大選約言完遂後
襄陽玩賞漸增隆

대선시 공약의 말씀 완수한 후에
양양의 좋은 경치 즐길이 점차 증가해 융성하리라.

佳作

願雪嶽五色索道建設

無非不 金忠道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양덕로 60
풍림아이원 106동 1901호

將開索道雪山東
槿域歡呼讚嘆同

장차 설악산에 케이블카가 설치되면
온 나라가 환호하고 찬탄을 함께하리.

空約舊朝虛送月
確言新廷祇迎風

지난 정부 빈약속에 세월을 허송했으나
새 정부의 확실한 말 정중히 맞이하세.

民官共助垂徽積
老少相扶樹大功

민관이 공조하여 휘적을 드리우고
노소가 서로 도와 대공을 세우세.

五色仙寰探萬客
名區聲勢必興隆

오색령의 선경을 만객이 찾게되면
명구양양의 성세는 반드시 흥룡하리.

佳作

願雪嶽五色索道建設

雪嶽雄姿冠我東
 希求索道萬人同
 鄉民共助模新物
 政府相扶起熱風
 早速施工成大事
 最先建設樹鴻功
 觀光勝地從茲活
 五色將來必是隆

浩廣 柳 亨 薰

경상북도 안동시 은행나무로 95-1,
제니스빌 B동 401호

설악산의 응자는 아동에서 으뜸이고
 삭도를 희구함은 만인이 한가지네.
 향민들이 협조해서 새로운 물건을 찾고
 정부가 상부해서 열풍을 일으키세.
 조속히 시공해서 대사를 이루고
 가장 먼저 건설해서 큰공을 세우세.
 관광승지가 이에 쫓아 활기를 찾으면
 오색은 장차 필히 융창하리라.

佳作

願雪嶽五色索道建設

雪嶽青峯聳海東
 勝區遊覽感歎同
 萬臺怪石神奇貌
 五色煙霞恍惚風
 官吏獻身弘報德
 郡民削髮舉論功
 襄陽索道促求襄
 宿願解消期待隆

小岩 朴 在 奎

강원도 삼척시 월계길 33-17

설악산 대청봉이 해동에 높이 솟았으니
 명승지 유람하니 감탄은 모두 같더라.
 만경대 괴이한 암석은 신기한 모양이고
 오색 계곡 안개 놀 황홀한 경치로다.
 관리들은 힘을 다해 홍보한 덕택이고
 군민들은 머리 깎고 거론한 공로로다.
 양양에 삭도 건설 촉구하는 속에서
 오랜 숙원 해소되길 기대가 높습니다.

佳作

願雪嶽五色索道建設

雪嶽煙霞最我東
萬民登頂願望同

地藏藥水含靈氣
神造仙臺帶瑞風

弱者設施傾總力
遊人逕至樹豐功

完工索道縣崖上
名所觀光振盛隆

祥文 徐萬興

경북 포항시 북구 양학로 34번길 14,
대림힐타운 103동 303호

설악산 아름다운 경치는 우리나라에 제일인데
만민이 등정을 원하고 바람은 갈네.

땅에 감춘 오색약수는 영기를 품고
신이 만든 등선대는 서풍을 들렀네.

약자를 위한 시설에 총력을 기울이면
여행객이 답지하여 풍공을 거두리라.

현애에 케이블카를 완공하면
관광의 명소로 융성함을 떨치리라.

佳作

願雪嶽五色索道建設

雪嶽煙霞冠海東
群生欲賞切情同

萬臺最好屏中境
龍瀑雖休畫裏風

弱者登山非易事
老人耽景有難功

因斯索道觀光願
必建民聲日益隆

聞均 孫鳳翼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대안길 56, 106동 605호
(용흥동 우방타운)

설악산의 경치가 우리나라에서 으뜸이니
많은 사람들의 구경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은
한 가지일세.

만경대는 가장 좋으나 병풍속 경계요
용소폭포가 비록 아름다우나 그림 속 풍경일세.

약자가 등산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고
노인이 경치 즐기기는 어려움이 있는 일일세.

이로인하여 케이블카 관광을 원하니
반드시 건설하자면 백성의 여론이 날로 더욱
높구나.

佳作

願雪嶽五色索道建設

襄陽雪嶽冠吾東
索道願心民意同

五色將乘連瑞日
大峯可搭接祥風

鄉邦協力成鴻業
朝野傾心得大功

建設無瑕終役事
賴斯郡勢益興隆

智石 宋 鎬 丙

부산시 금정구 안뜰로 16, 201호

양양의 설악산 우리나라 으뜸인데
삭도를 원하는 마음 군민 뜻이 같도다.

오색에서 장차타게되면 서일이 이어지고
대청봉까지 타게되면 상풍이 영접하리.

지방과 정부가 협력하면 흥업을 이루고
조야가 마음쓰면 대공을 얻으리.

하자없이 건설하여 역사를 마친다면
이에 힘입어 근세는 더욱 크게 일어나리.

佳作

願雪嶽五色索道建設

雪嶽靈山闡海東
施工索道願心同

國家推進來堯日
政界強行起舞風

老少圖謀傾總力
女男協助樹豐功

觀光五色希望溢
遠近儒林建設隆

李洙 辛 守 煥

경북 예천군 개포면 용개로 1381-18

설악영산은 해동에 드러나고
색도 시공원하는 것은 같은 마음이고.

국가 추진하면 요임금날이오고
정계에서 강행하면 순임금 바람이 부는구나.

노소도모로 총력을 기울이고
남녀 협조로 풍공을 심어.

오색관광에 희망이 넘쳐
원근 유림들은 건설이 성대하길 바라고.

佳作

願雪嶽五色索道建設

杜陵 安 龍 福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오션시티 11로 51,
퀵덤A 317동 703호

雪嶽名山冠海東
願言索道道民同

설악명산은 해동에 으뜸인데
그곳에 케이블카 설치함을 도민과 함께 원하네.

老人歎望雲中岫
壯者奚耽頂上風

노인들은 탄식하며 구름속 산만 바라보고
장자들만 어찌 정상 바람 즐긴단 말인가.

督促官家成大事
強求政府樹豐功

관가에서 공사가 이루어지기를 독촉해야하고
정부는 큰공 이루기를 강구해야 하리.

着工即效觀光活
賴此襄陽郡勢隆

착공 즉시 관광의 효과 살아날 것이니
그렇다면 양양의 군 살림살이 융성하리.

佳作

願雪嶽五色索道建設

書村 俞 德 聖

경기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358번길 45, 3층

雪山五色秀西東
索道新開衆願同

설악산 오색은 서동이 빼어나니
삭도 새로 건설하길 여러 사람 함께 원하도다.

設計無瑕堪暴雨
施工完璧耐強風

설계는 하자없이 폭우에도 견디어 내고
시공은 완벽하게 하여 강풍에도 견디어 내야하네.

郡民盡力成鴻業
政府傾心樹偉功

군민은 진력하여 흥업을 이루고
정부는 경심하여 위공을 세워야 하네.

萬客觀光尋訪日
襄陽市勢必興隆

만객이 찾아 관광하는 날에
양양 시세 반드시 흥융하리라.

佳作

牛山 李 光 茂

願雪嶽五色索道建設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지곡로 294 그린2차 228-1203

雪嶽山光冠我東
新營索道願情同

설악산 산경치는 우리나라 으뜸이니
새로이 삭도를 운영하길 원하는 마음 같다네.

襄陽漸盛促求氣
槿域尤高和應風

양양에서는 점점 촉구하는 기색 성해지고
근역에서도 화응하는 바람 더욱 높아지네.

萬客便安多有利
千林保護豈無功

만객이 편안하니 유리함이 많은데다
천림을 보호함에 어찌 공이 없으랴?

名區五色加名物
不絕人波郡勢隆

명구 오색에 명물이 더해진다면
인파가 끊이지 않아 군세가 융성하리라.

佳作

靑巖 李 東 仁

願雪嶽五色索道建設

경북 포항시 북구 학전로 35, 청운우방 101동 1801호

勝區五色在關東
索道施工總贊同

승구오색이 강원도에 있는데
삭도 시공을 모두가 찬동 한다오

今關襄陽仙界景
將吹槿域雪山風

이제 양양에는 선계의 경치가 열리면
장차 온 나라에는 설악산 바람이 불리라

屢回建議坊民績
一次呼應政府功

여러 차례 건의 함은 방민들의 업적이고
한 차례 호응함은 새 정부의 공이로다

誘致完全成事後
此鄉發展日尤隆

삭도 유치가 완전히 성사된 후면
이 고장의 발전은 날로 더욱 융성하리라

佳作

願雪嶽五色索道建設

錦靖堂 李 壬 出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 151길 7

雪山嶮峻冠吾東
建設索途希願同설악산이 험준하기로 오동에서 으뜸인데
삭도를 건설하기를 함께 바라고 원하노라五色特區浮上策
襄陽名所造成風오색특구를 부상하는 대책이오
양양 명소를 조성하는 바람일세黎民協力供鴻業
方伯傾誠樹大功여민이 협력하여 홍업에 이바지하고
군수는 정성을 기우려 큰공을 세울세라不遠開通堪逆境
觀光圓滑讚聲隆역경을 견디고 멀지않아 개통하면
관광이 원활하여 칭찬소리 융숭하리

佳作

願雪嶽五色索道建設

東坵 李 定 栽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로 79, 대림A 106-1005호

靈山雪嶽屹關東
五色纜車心願同영산 설악이 관동에 우뚝 솟아 있으니,
오색 케이블카를 마음속으로 바램은 같구나.鶴舞景臺仙界色
鹿鳴錢谷別天風학이 춤추는 만경대는 선계의 형색이고,
사슴이 우는 주전골은 딴 세상의 풍광일세.自然善用須傾力
生態長存必獻功자연을 선용함에 모름지기 힘을 기울이고,
생태를 길이 보존함에 반드시 공을 드릴지라.探賞便宜完備際
遊人還至勝區隆탐상의 편의시설을 완비할 즈음에는,
구경꾼이 몰려들어 명승지구가 융흥하리라.

佳作

願雪嶽五色索道建設

南耕 李 恒 揆

경북 안동시 남후면 오미길 5-4

靈山雪嶽冠吾東
索道登高懇願同

영산설악은 우리나라에서 최고인데
삭도로 등정을 간절히 원함은 가가지라

雲捲萬臺除舊俗
錦粧五色變新風

운권한 만경대 옛 풍속을 버리고
금장한 오색 계곡 새로운 바람으로 변하기를

黎民竭力終成志
政府施恩必有功

여민은 힘을 다해 마침내 뜻을 이루고
정부에서는 은혜를 베풀어 반드시 공이 잇기를

寶庫名區能發掘
白頭大幹讚聲隆

보고의 명구를 능히 발굴한다면
백두대간은 칭찬의 소리 높으리라

佳作

願雪嶽五色索道建設

然岩 張 明 韓

대구광역시 동구 동촌로 100, 태왕아너스 107동 402호

勝山雪嶽冠吾東
容易登躋望共同

송산으로 설악은 우리나라 으뜸이라
쉽게 오를수 있기를 공동으로 바라지

怪石奇巖含瑞氣
茂林鬱樹吐清風

기암괴석에는 서기를 먹음었고
무림 울수는 청풍을 뿜어내니

萬臺別景知天德
五嶺名區感地功

만경대의 별경은 하늘의 덕임을 알고
오색령 명구는 땅의 공로임을 느낀다

索道開通成宿願
鄉民賞客讚聲隆

삭도 개통의 숙원을 이룬다면
향민과 상객들의 찬양의 소리가 융성하리

佳作

願雪嶽五色索道建設

撐天雪嶽屹吾東
五色連峰仙境同

活畫成屏添妙態
織羅作瀑起清風

女男欲瞰官民德
老少將登郡邑功

索道着工祈願裏
觀光名所嘆聲隆

靑溪 張文洙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지곡로 303
삼성그린빌라 322동 103호

하늘을 떠바치는 설악이 우리나라에 우뚝 솟았으니
오색에 이어지는 봉우리가 선경과 같구나.

살아있는 그림이 병풍을 이루니 묘태를 더하고
비단을 짜서 폭포를 만드니 청풍이 일어나도다.

남녀가 굽어보고자하니 관민의 덕분이고
노소가 장차 오르려하니 군과 읍의 공이로세.

삭도 착공을 기원하는 속에
관광 명소라고 감탄하는 소리가 드높도다.

佳作

願雪嶽五色索道建設

靈山雪嶽冠吾東
索道運行祈願同

百尺奇峰凝瑞氣
千年古刹起清風

鄉民盡力成弘業
當局傾心樹大功

五色煙霞如活畫
襄陽勝地必興隆

樂隱 趙顯道

부산시 북구 만덕1로 51번길 11, 만덕동
휴먼시아 201동 2403호

설악영산 우리나라에 으뜸이요
상객을 위한 케이블카 운행을 다함께 기원합니다.

백척이나되는 기이한 봉우리엔 서기가 영기고
천년을 이어온 고찰에는 맑은 바람 일어나네.

고을 백성이 힘을 다해 추진하니 흥업을 이루겠고
당국이 마음을 기우리니 대공을 세우겠도다.

오색령의 경치 살아있는 그림같고
하늘이 아낀 양양승지 반드시 행세가 크게
일어나리라.

佳作

願雪嶽五色索道建設

雪山景概最吾東
索道希望萬口同

設計圖謨挑活氣
施工迅速起旋風

協和官吏必成事
支援鄉民能畢功

不遠人波雲集續
觀光發展益興隆

清湖 韓廷錫

경상북도 문경시 매봉4길 9 영풍A 102동 1305호

설악산 경계는 우리나라에서 최고인데
삭도 설치 희망을 모든 사람들이 함께하네.

설계를 도모하면 생활의 활기를 북돋우고
시공을 빨리해 선풍을 일으키세.

협화하는 관리들은 반드시 일을 성사하고
지원하는 향민들은 능히이 공사를 완수하리라.

멀지않아 인파는 구름 같이 이어지는 속에
관광 발전은 더욱더 흥융하리라.

佳作

願雪嶽五色索道建設

靈山雪嶽冠吾東
索道希求老少同

五色谷中流藥水
大靑峯上勃仁風

實行設計官廳德
推進過程鳳闕功

完建遊人雲集裏
願裏氣像日如隆

小峯 許範亮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외대역동로 101, 102동 602호

영산인 설악이 우리나라 으뜸이니
케블카 회구함은 노소가 한 가지다.

오색곡 중에는 약수가 흐르고
대청봉상에는 인풍이 발한다.

실행 설계는 관청의 덕이고
추진 과정은 봉월의 공이다.

완전하게 세워 유인이 운집한 가운데
양양 기상 해와 같이 융성하기 바란다.

佳作

願雪嶽五色索道建設

長山 洪 僖 杓

경기도 부천시 조마루로 231 동성A 931동 501호

靈山雪嶽冠吾東
索道于今建設同

설악산은 영산으로써 우리나라에서 으뜸이요
오색에 케이블카를 우금에 함께 건설 한다면.

經濟伸張成盛世
農商并進起新風

경제가 신장하여 성세를 일울 것이요
농상이 병진하여 신풍이 일어날리라.

三千里內無雙慶
半萬年間第一功

삼천리 내에 무쌍의 경사요
반만년간 공이 제일이네.

遠近騷人歡氣溢
京鄉賞客讚聲隆

원근소인들은 환기가 넘치고
경향의 상객들이 찬성이 융성하리라.



조화벽선양문예대회 공모전 입선작

시

강원도교육감상 대상

독립의 빛이 되다

상평초등학교(현서분교) | 4학년 1반

이도혁

일제강점기
사람들은
아무것도 볼 수 없었던
깜깜한 밤에 살았어요.

그러던 어느날
양양에서 슈퍼우먼이 나타났어요.
바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사람
그 이름은 조 화 벽
작은 여자아이는 열심히 공부하며
성장했어요.

그 소녀의 마음에 태극기가 찾아왔어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모아
외쳤어요.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그 소녀는 독립선언서를
공공 숨겨서 왔어요.
그 곳은 바로 양양이에요.
양양시장에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만세운동을 했어요.

또 배우지 못한 사람들과
함께 공부하며
큰 빛이 되었어요.
사람들은 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일본의 나쁜짓에 분노했어요.
힘든 일들도 이겨내고
의기양양 독립의 빛이 되었어요.

대한독립만세

평창초등학교 | 5학년 2반

최 성 호

작은몸 작은 움직임이

조화벽 거리를 거닐며

하나로 뭉쳐 큰 물결 만들어

그날의 함성을 느껴본다

힘차게 외치고 또 외친

“대한독립만세”

“대한독립만세”

“대한독립만세”

어리고 약한 소녀의 희생과 노력으로

태극기 휘날리며

손에 손잡고 앞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그때 그날의 외침을

조화벽 지사

양양초등학교 | 5학년 1반

오 유 진

누구보다도 멋지신 독립운동가

자랑스러운 태극기를

조화벽.

존중하는 우리들

별보다 빛나는 분

대한민국 만세!

힘들지만 열심히 하신

독립 운동가들이 계셔서

멋있는 우리 대한민국

태극기도 멋있고

운동가들도 멋있고

이런게 대한 민국

독립

죽왕초등학교 | 6학년1반
전성민

누구나 원하던 독립

많은 사람의 희생도 있었고

부자나 돈이 없는 사람이거나

힘든 일도 많았지만

평민이든 양반이든

무릎 꿇지 않고 한 번이라도 더 이 악물고 나간다

직업이 있든 없든

누구나 원했던 독립

나이가 많은 적든

드디어 이루어진 독립

남녀노소 뛰쳐나와 소리친다

대한 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조화벽 지사

교동초등학교 | 6학년 2반
남시온

제가 다니고 있는 양양교회에는 조화벽 기도실이 있습니다. 처음 '조화벽'이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그저 조금 특이한 단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조화벽이 이름이고, 그 분이 양양만세운동을 일으킨 여성 독립운동가라는 사실을 듣고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몰랐던 조화벽지사님의 일생과 업적을 알고 나니 그 분이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조화벽지사님은 1895년 양양에서 무남독녀로 태어나셨습니다. 당시 일제 강점기에, 남녀편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성 호수돈 여학교에 진학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호수돈 비밀결사대라는 비밀 독립운동단체에 가입하여, 3월 3일 개성독립만세운동을 일으키셨습니다. 일제는 학교에 휴교령을 내리고 독립운동을 막았습니다. 그러나 지사님의 애국심은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양양으로 돌아오면서 지사님은 솜버선을 뜯어 버선목에 직접 필사한 독립선언서를 숨겼습니다. 대포항에서 경찰에게 붙잡혀 조사와 심문까지 받았지만 다행히 들키지 않았습니다. 그 후 지사님은 만세운동 참여를 의심받아 움직임이 자유롭지 못했음에도 청년들과 독립선언서와 태극기를 만들고, 드디어 4월 4일부터 9일까지 1만 5천명의 양양시민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대한독립만세를 외쳤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용기 있게 독립운동을 실천하신 조화벽 지사님의 행동이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버선목에 독립선언서를 숨길 때, 경찰에게 끌려갔을 때, 얼마나 두려우셨을까요? 만약 저라면 혹시 들키지 않을까 조마조마하고 두려워서 시도할 생각조차 못했을 것 같습니다. 조화벽 지사님은 어떻게 그 두려움을 이겨내셨을까요? 제 생각에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두려움을 이겨내셨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무언가를 나섰다가 실패하거나 좋지 못한 결과가 나오면 바로 포기하고 다시 도전하는 것을 싫어하곤 했습니다. 그러다 좋은 기회인데도 용기를 내지 못해서 놓쳐버린 적도 있습니다. 수많은 어려움을 이겨내신 조화벽 지사님의 용기를 본받아 저도 두렵고 걱정되는 일이라도 시도해보고 만약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다시 일어나려고 노력 하겠습니다.

저는 그동안 애국심에 대해 깊게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조화벽 지사님을 통해 제가 실천 할 수 있는 애국심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러한 독립운동가님들을 기억하고 이러한 글들을 쓰며 그들의 노력을 아는 것,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여 더 좋은 나라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사람이 되라’는 조화벽지사님의 이름처럼 저도 지사님의 용기와 열정 그리고 애국심을 본받아 더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조화벽 지사님처럼 일제에 당당히 맞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신 수많은 독립운동가분들이 있어 지금 이 자리에 제가 있을 수 있음을 항상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조화벽 지사님 감사합니다!

우리나라를 위해 힘써 주신 독립운동가님들 감사합니다!

관용표현으로 따라가 보는 조화벽

상평초등학교(현서분교) | 6학년 1반
최준서

마른하늘에 날벼락, 나라를 잃었습니다.

눈앞이 캄캄한 일제강점기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조화벽은 어려운 우리나라 현실을 바라보게 됩니다.

과연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고민하던 조화벽은 쇠뿔도 단김에 빼듯 3월 3일 개성만세운동을 이끌었습니다.

또 고향 양양에 아픈 우리나라의 상황을 알리기 위해 독립선언서를 품고 왔습니다.

일본의 감시에 간 떨어지는 순간도 있었지만, 드디어 독립선언서를 버선목에 숨겨왔습니다.

개성 만세운동 참여를 의심받아 행동에 발이 묶였지만, 어금니를 악 물고 양양 3·1 만세운동을 이끌게 됩니다.

이후 낫 놓고 기역자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공든 탑이 무너지랴! 드디어 손꼽아 기다리던 독립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여성이지만 독립운동에 발 벗고 나선 여성 독립운동가 조화벽.

“대한국 독립만세”를 외쳐봅니다.

그 현장이 눈에 밝힙니다.

나라면 어땠을까?

양양초등학교 | 5학년 3반
진민성

어느 날 엄마가 나에게 물었다.

민성아, 너는 조화벽에 대해 알고 있니?

나는 자신있게 대답했다.

응! 알지 조화벽 거리에 있는 그 벽이잖아!

엄마는 내 대답을 듣고 아주 크게 웃으셨다. 아 ~ 내가 틀렸구나 하고 조금 부끄러웠다.

그래서 엄마는 같이 조화벽에 대해 찾아보고 그림을 그려보라고 했다.

그런데 문득 고민이 되었다.

나는 아직 어려서 나라를 잃은 슬픔이 뭔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나는 생각을 하다 그림 대신 글을 쓰기로 했다.

나라면 어땠을까? 곰곰히 생각을 하던 중에 엄마가 생각이 났다.

만약 우리 집이 없고 우리 엄마가 없다고 생각을 해보니 너무 슬펐다.

내가 이렇게 따뜻하고 좋은집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도 다 엄마랑 우리 집이 있기 때문인 것 같다.

나라를 잃는다는건 웬지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지만 일제의 총칼 앞에서 나라를 위해 독립운동을 하는 일은 정말 큰 용기가 필요했을 것 같다.

특히 조화벽 지사님은 목숨을 걸고 버선발에 독립운동서를 숨겨오셔서 양양에 독립운동을 일으키셨다고 하는데 그런 용기가 존경스럽다.

나라면 어땠을까? 나는 겁이 많아 아무것도 하지 못했을 것 같다.

하지만 어떤 힘이 센 나쁜 아저씨가 우리 엄마를 괴롭힌다면 나는 나무 막대기를 들고 가서라도 엄마를 구하려고 할 것 같다.

많은 독립운동가와 조화벽 지사님도 이런 마음이었을까?

나는 조화벽 지사님에 대해 알아보다 또 문득 생각을 했다.

나는 우리나라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일단 작은 것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길거리에 쓰레기 버리지 않기.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분리수거 잘하기 등..

그리고 나는 오늘부터 감사하기로 했다. 우리나라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청대초등학교 | 2학년 2반

김민준

오늘 가족과 함께 양양 3·1운동의 불씨가 된 조화벽 지사님에 대한 그림과 글을 보러 갔다.

조화벽 거리에 도착해서 나는 103년 전에 조화벽 지사님과 같이 이 곳에 있었다면 함께 독립운동을 했을 거라고 엄마께 말씀드렸다.

엄마는 내가 겁도 많은데 어떻게 독립운동을 할 수 있냐고 물어보셨다.

나는 아직 어리지만 한 나라의 국민이고 나라를 지키지 못하면 옛날 일본 같은 나쁜 나라한테 나라를 빼앗겨 고통스럽게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조화벽 지사님은 3·1독립 선언서를 버선목에 숨겨서 고향으로 돌아오셨다는 것을 읽고 대단하다고 느껴졌고 나는 어떻게 했는지 엄마와 얘기도 했다.

그래서 지사님의 용기를 본받아 감사의 마음을 담아 편지를 쓰고 싶었다.

조화벽 지사님께

안녕하세요 조화벽 지사님 저는 김민준 이라고 합니다.

조화벽 지사님이 양양 3·1운동에서 나라를 지켜주셔서 지금의 제가 있어요.

저는 지사님의 이름을 항일독립운동이라는 책에서 처음 보었고 오늘 조화벽 거리에서 더 잘 알게 되었어요. 아빠의 고향이며 우리가 사는 고장에 독립의 희망을 가득 품고 나라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신 멋진 지사님이 계셨다니 정말 자랑스러워요.

이제라도 지사님의 훌륭한 업적을 더 알게 되어서 기쁘고 친구들에게도 알려주고 싶어요.

저도 지사님을 본받아 나라가 위험에 빠지면 자신을 아끼지 않고 나라에 필요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오늘 지사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글을 쓸 수 있어서 좋았어요.

그럼 지사님 안녕히 계세요.

김민준 올림

포스터

강원도교육감상 대상



양양초등학교 | 6학년 4반

임태화



양양초등학교 | 6학년 4반
이 지 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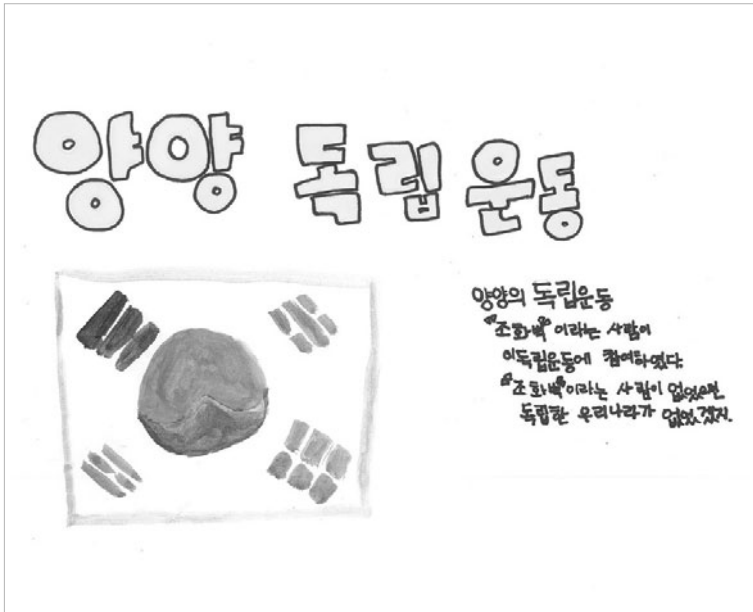
양양초등학교 | 6학년 4반
추 예 은



남호초등학교 | 1학년 4반
이 한 음



양양초등학교 | 2학년 2반
전 소 울



슬샘초등학교 | 2학년 1반
장 예 음



양양초등학교 | 3학년 3반
이 주 혁



청봉초등학교 | 4학년 4반

황라희



양양초등학교 | 2학년 4반

김래안



2022 청소년과 함께하는 도자기 체험

- 일 시 : 2022년 11월 22일(화) 09:00~12:30
- 장 소 : 양양중학교 3학년 1반~6반 교실
- 참여인원 : 150명



소감문

김호경

도자기에 그림을 그려 넣는 과정에서 한 가지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던 점, 내가 그린 그림이 생활에서 사용되는 그릇에 적용되는 점에서 보람을 느꼈던 점이 좋았다.



김나연

얼굴이나 피부에 페인팅을 해보긴 했지만 그릇에 페인팅을 하는 것은 처음이라 인상 깊었다. 그리고 쉬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어려웠고 연필로 스케치 하면 지워지지만 안료 올리오로 페인팅을 하면 안 지워진다는 것을 알았다. 또 처음 보는 도구들로 체험을 해볼 수 있어서 감회가 새로웠다. 다음에도 이런 체험을 할 수 있게 되면 좋을 것 같다.

김강운

이 핸드페인팅이라는 것을 하여서 내 그릇에 곰돌이를 그려 넣었는데 활동 자체는 만족스러웠다. 그리고 선생님께서 이 작품에 대해서 도와주셔서 작품이 더욱 화려해져서 뭔가 뿌듯했다. 그리고 핸드 페인팅이라는 활동을 그릇에 하는걸 처음 해봤는데 재밌었다.

이선구

핸드페인팅이라는걸 처음 해봤는데 생각보다 재미있었다. 선생님께서 친절하게 도와주셔서 좋은 작품이 나온 것 같아 뿌듯하다. 그리고 한 번 만들고 버리거나 잘 안쓰게 되는 작품이 아니라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작품이어서 좋았다. 다음에 또 하고 싶다.

박영미

안료 올리오라는 염료는 처음 접했지만 이런 색다른 염료로 작업을 해볼 수 있어 색다르고 새로운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릇에 직접 원하는 그림이나 작업을 해서 나만의 그릇을 만든다는 점이 매우 마음에 들었고, 또 강사 선생님께서 매우 친근하게 다가와 주셨고,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을 잘 도와주셔서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다음에도 이런 활동을 매우 하고 싶습니다.

김가윤

안료로 붓에다 문혀 자기가 원하는 그림을 그릴 수 있어서 재밌었고 그리는게 조금 까다롭고 힘들긴 했지만 나중에 나의 그릇을 보니까 예뻐서 만족 했었던 것 같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체험을 또 했으면 좋겠고 기억에 남을 순간인 것 같다.

박지윤

안료를 이용해서 그릇에 그림을 그리는 것이 재미있었다. 선생님이 다양한 기법을 활용하여 그릇을 꾸미는 것을 보여 주셨는데 정말 흥미로웠고, 생각보다 더 다양해서 놀랐다. 완성품이 맘에 들어서 더 좋았고, 다음에도 기회가 된다면 또 하고 싶다.

최유정

종이에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닌 접시에 그림을 그리는 거라 느낌이 새로웠다. 붓에 안료를 문혀 밑그림을 따라 그리는 거라 종이에 그림을 그리는 것보다 좀 더 어려웠다. 그리고 생각보다 괜찮게 그린 것 같아서 좋았다.



김남걸

핸드페인팅을 하고 느낀점은 원래 종이에만 그리던 그림을 도자기에다 그리니 더 힘들었고 또 붓으로 그림을 그리니 더더 힘이 들었고 도자기가 완성되고 완성된 것에 내 그림이 있을걸 생각하니 오늘 그림을 그린걸 뿌듯하게 생각한다.

김태연

붓으로 무언가를 그리거나 디자인 하는게 어려웠다. 그래도 오랜만에 정성을 들여 나만의 작품을 완성시킨 것 같아 뿌듯했다. 작품에만 온 집중을 할 수 있어 좋았다. 이런 활동들을 하면서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다. 즐거운 시간이었다.

김효경

도자기 만들기라는 체험명이라서 직접 도자기를 빚는 걸까 생각했는데, 접시에 직접 그림을 그리는 것이어서 더 재미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 스케치하는 시간, 선 따는 시간 모두 널널하여 여유롭게 그림을 그릴 수 있었다. 나중에 다 구워질 접시를 상상하니 벌써 기대가 된다.

정보라

도자기에 그림을 그리는 것이 생각보다 어려웠다. 다 그리고 보니 다른 그림을 그릴 걸 하고 아쉬웠지만 도자기에 그림을 그리는 체험은 처음이라서 흥미로웠고 재미있었다. 다음에 한번 더 이런 체험을 해보고 싶다. 다음에 한번 더 이런 체험을 해보면 그림을 더 잘 그리고 더 열심히 그리고 싶다.

문가을

도자기를 디자인하고 그림을 그리며 생각보다 머리가 많이 쓰이고 어렵게 활동한다는 것을 알게되었다. 또한 '도자기/그릇, 접시를 직접 만드시는 분들은 꽤나 힘드시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다. 학교에서 이러한 체험을 하고 할 수 있음에 감사했고 또한 신기함도 있었다. 앞으로 학교에서 또는 교외에서 할 수 있는 도자기체험이 늘었으면 좋겠다고도 생각하였다. 강사 선생님께서는 엄청나게 친절하셔서 편안한 분위기로 부드러운 수업을 이어간 것 같아 좋았다. 직접 그릇을 만드는 것을 해보고 싶었지만, 그릇을 직접 꾸미고 그림을 그려 나만의 그릇을 사용할 수 있음에 보람을 느꼈다. 오늘 하루 수고해주신 강사 선생님께 정말정말 감사했다고 전해드리고 싶다!

신지호

오랜만에 공부도 안하고 그림도 그리고 놀아서 좋았다. 도자기 체험이라고 해서 직접 도자기를 만드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어서 조금 아쉬웠지만.. 그림 그리는 것도 엄청 재밌었다. 다음에는 직접 도자기도 만들고 꾸미고 싶다. 도자기에 뭘 그려야 할지 몰라서 아무거나 막 그렸더니 망한 것 같다. 문어를 그렸는데 뭐.. 나름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도자기 선생님도 엄청 친절하시고 뭔가 귀여우시다. 최경미 선생님! 이름도 너무 예쁘다. 선생



님이 우리 담당 선생님이라서 너무 좋다. 다음에도 도자기 체험을 하고 싶다. 오늘 하루는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 같다. 아주, 매우, 엄청 재밌었다.

허경원

도자기를 깨트릴까봐 조마조마 하면서 열심히 디자인을 했다. 칭찬을 아끼지 않으셔서 좋았다. 내년에도 했으면 좋겠다.

이초휘

도자기에 그림을 그려 넣는다는게 참신하고 신기했다. 그림을 그려 넣으면서 재밌었고 그림을 다 그리고나서도 뿌듯하고 어떻게 나올까하는 궁금증과 기대감이 생겼다. 선생님도 친절하시고 좋으시다! 내가 그린 도자기가 빨리 나오면 좋겠다.

김윤지

도자기 체험이라고 하여 찰흙 비슷한 것으로 만드는 체험인 줄 알았다. 하얀 접시를 받았을 때 하얀 스케치북과 같은 느낌을 받아 도자기 디자인을 빠르게 할 수 있었다. 붓과 검은 먹과 비슷한 것을 받았을 때에는 초등학생때 했던 서예 방과후가 떠올라 더욱 친근하게 느껴졌었다. 붓이 갈라지지만 않았다면 초등학생때 배운 느낌을 살려 글씨를 제대로 쓸 수 있을 것만 같았다. 그 점에 대해서는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다. 프로그램이 예상 시간보다 더 일찍 끝났다는 것에 대해 놀랐다. 2교시 동안이라도 못 끝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것보다 더 일찍 끝날 줄은 몰랐다.

윤현근

도자기에 그림을 그리니 정말 재미있었다. 여러 가지 창의적인 생각을 해서 좋았다. 꼭 선생님들에게 추천하고 싶다. 그리고 도자기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는지 처음 알았다.

양현영

처음엔 뭐하는지 몰랐는데 친절한 선생님께서 열심히 설명해주셔서 멋있게 작품을 끝낼 수 있었다. 오래하지는 않았지만 짧은 시간동안 집중하고 고민해서 예쁜 작품이 나와서 기뻐다. 다음에 다시 하게 될 일이 생기면 다시 하고 싶다.

진세국

도자기를 만든다는 말을 들었을 때 너무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선생님이 잘 설명해주셨고 과정이 어렵지 않아서 재미있게 만들 수 있었다. 도자기에 내가 그리고 싶은 디자인을 모두 그리지 못한 것이 아쉬웠다. 내가 만든 도자기가 어떻게 완성될지 궁금하다. 나중에 한번 더 도자기를 만들어보고 싶다.



남민주

손이 자꾸 떨려서 틀릴까봐 가슴 조마조마 했는데 다행이 빠져나오고 틀린 곳 하나 없이 원하는 대로 그림이 잘 나와서 기분이 정말 좋았다. 그리고 지금도 원하는 대로 그림 완성했는데 완성되면 더 예쁘게 나온다고 하셔서 설렌다. 그리고 선생님이 이해하기 쉽게 알려주셔서 너무 좋았다. 재밌었다.

최의령

도자기를 굽기 전에 직접 만져보고 느껴봐서 신기했고 처음 보는 도자기의 굽기 전 모습이라 색달랐다. 그런 도자기에 직접 그림을 그리니 너무 좋았다. 도자기에 내가 그린 그림이 들어간다고 생각하니 신기했다. 구운 후에 모습을 상상하면 기대가 된다. 다음에도 이런 기회가 있다면 참여할 것 같다.

황서연

도자기에 그림을 그리면서 힐링되고 재밌는 경험이었다. 무슨 그림을 그릴지 고민하면서 그림을 그릴때도 재미있었다. 가족과 예전에 도자기 체험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생각도 나면서 가족들과 한번 더 도자기 체험을 하고 싶다!

노을

오늘 도자기 체험을 하여 기대가 되었던 것과 다른 체험 내용이었지만 도자기에 물감 같은 것으로 색칠하는 것과 글씨를 쓰거나 또는 그림을 그려 도자기를 꾸미는 것도 꽤 재미있었고 미술 시간과는 다른 색다른 느낌을 받을 수 있어서 좋았다. 다음에도 이런 기회가 생기게 된다면 한번 더 체험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김상연

망할거 같아서 선뜻 꾸미지 못했지만 간단한 그림을 그려 귀여운 그릇이 된 것 같고 재밌고 유익한 시간이었다. 선생님께서 친절하게 돌아다니면서 학생들을 잘 도와주셨고 피드백을 통해 그릇이 더 완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

김나래

도자기에 그림을 그리며 집중력을 높이고 나의 상상력을 이용해 상상의 나라의 펼치며 나의 재능을 뽐내는 시간이였음을 느끼고 상상력을 표현하며 그림을 그리는 것이 좋았다. 내년에도 후배들에게 매우 추천함

조민지

도자기에 그림을 그려 나만의 도자기 하나를 만들 수 있어서 좋은 활동이라고 느꼈다. 나만의 도자기를 집에서 쓰면서 중학교 때 있었던 일들을 추억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의미 있는 활동이었다고 생각하였다. 내가 만든 도자기니까 집에서 조심히 다루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김민지

예전에도 해보았던 경험이 있어서 더 잘 즐길 수 있는 체험이었고, 오랜만에 무언가를 그리고 만드는 체험을 할 수 있어서 재미있었다. 앞으로도 이러한 활동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 시간도 빨리가고 의미있는 활동이었다.

김다현

선생님이 친절하였고, 도자기를 꾸미는게 재미있었어요. 나중엔 도자기를 직접 만들어보고 싶다고 생각하였어요. 한번도 한 적 없는 경험이라 너무 흥미로웠다. 그리고 나중에 보게 될 내 그릇을 보는 것이 너무 기대된다. 그릇을 담에 받게 된다면 너무 행복할 것 같다.

신예원

나는 카카오 프렌즈의 춘식이를 그렸는데 간단한 그림인데도 수전증 때문인지 손이 계속 떨려서 빠져나가는 바람에 계속 계속 수정하고, 덧칠하고를 반복했다. 힘들었지만 재밌어서 다음에 또 했으면 좋겠다. 기회가 되면 처음부터 도자기 그릇을 만드는 체험도 해보고 싶다.

김태희

빗살무늬토기가 교육적으로나 학문적으로나 중요한 이유는 그 시대 사람들이 음식을 저장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그들은 음식을 안정적으로 저장함으로써 원활한 정착 생활을 할 수 있었다. 이렇듯 ‘그릇’이란 인류의 역사에서 떼어놓을 수 없는 존재이다. 오늘 체험했던 도자기도 마찬가지이다. 도자기는 점차 음식 저장만이 아닌 예술적인 용도로도 쓰이며 인류의 삶에 함께 해왔다. 그런 도자기를 직접 디자인해본 경험은 굉장히 귀중한 경험이 아닐 수 없으리라 생각한다. 역사가 담겨있는 물건에 나는 오늘 하나의 흔적을 남길 수 있었다. 체험을 기획해주신 모든 분께 깊은 감사를 표한다.

김승혁

핸드페인팅이 뭔지에 대해 배웠으며 그림을 그리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선생님이 친절하게 다가오셔서 도와주셨는데 선생님의 도움 덕분에 더욱 재밌고 유쾌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았다. 다음에도 또 하고 싶은 수업이었다.

노연식

도자기에 이쁜 명화를 그려 너무 기뻐고 처음 해보는 체험이라 매우 신기하고 설레었다. 붓으로 그림그리기가 어려운 걸 알았다. 평소에도 그림을 좋아해서 이번 체험은 나에게 도움이 됐다. 도자기에 그림그리기는 너무 힘들었고 나에게 맞지 않았다.



정효재

- ① 도자기의 질감이 신기하게 느껴졌다. 도자기의 가루가 고운 모래 같았다.
- ② 도자기 위에 그림을 그리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느꼈다. 염료가 도자기에 빨리 흡수되어 칠하기 어려웠다.
- ③ 도자기 위에 나의 그림을 그리는 독특한 경험이 나중에도 기억에 남을 것이다.

이성우

나의 예술적 감각을 활용하여 나만의 접시를 만들 수 있어서 만족했고 불편한 것 없이 활동할 수 있어서 좋았다.

김현아

도자기에 원하는 그림을 샤프로 그리고 안료로 선을 따고 색칠하는 과정이 재미있었다. 처음에는 직접 도자기를 만드는 활동인 줄 알았는데 도자기를 디자인해서 나만의 접시를 만드는 활동이라는 걸 알고 난 후 약간 안심을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아쉬웠던 것 같기도 하다. 다음에 한 번 다시 해봐도 나쁘지 않은 활동인 것 같다.

김민서

내가 하고 싶은 디자인으로 직접 그리고 디자인하여서 좋았고, 중3 마지막을 이런 활동으로 보내게 되어 추억으로 남을 것 같다. 그리고 선생님께서 너무 친절하게 해주셔서 감사했다. 다음에도 이런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

원지은

접시에 핸드페인팅을 하면서 느낀 점은 나만의 그림체로 그린 그림이 접시에 담긴다는 것이 신기했고 안료라는 것에 대해서도 알게 되어서 참 재미있었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이런 비슷한 체험들을 많이 해보고 싶다고 생각하였다.



양양문화원 · · · 임 직 원

양양문화원 사무국

원 장



박 상 민

사무국장



김 진 하

사무과장



최 선 미

팀 장



강 차 현

주 임



김 지 연

양양문화원 임원



약수

갈천약수

강원도 양양군 서면 갈천리 서쪽 약 11km 지점의 구룡령 계곡의 바위에서 솟아오른다. 철·나트륨·칼슘·마그네슘·칼륨·망간 등을 함유하며, 특히 철의 함량이 높아 위장병, 빈혈, 신경통에 효과가 있다고 한다.

약수가 솟는 너럭바위 주변은 온통 붉게 물들어 있다. 갈천리의 마을 이름은 옛날 마을 사람들이 빈한하여 칩뿌리로 허기를 달랠 때 냇가에 칩물이 가실 날이 없었다는 데서 유래한다.

미천약수 (米川藥水 : 불바라기 약수)

- 지번 : 강원도 양양군 서면 미천리
- 전화 : 033) 673-1806

서면 황이리 국도변으로부터 미천골로 접어들면 유명한 선림원지에 다다른다. 이곳에서 유명한 보물을 구경한 다음 인적이 그윽한 산길을 헤쳐 30리 쯤 가면 불바라기 약수가 있다.



절벽 위에서 흘러내리는 약수가 천상수라고 함이 옳을 것이다. 이 약수는 절벽을 오르내리며 받아먹기 힘이 드는 위장의 선약으로 수천년을 말없이 흐르고 있다. 한편 구룡령에서 가까운 지름길이 있어 개발될 날도 멀지 않을 것이다

오색약수

- 지정종목 : 천연기념물
- 지정일 : 2011년 1월 13일
- 주소 : 강원도 양양군 서면 약수길 45

양양군 서면 오색리에 있다. 오색약수는 1500여 년 전 성국사의 승려가 반석위에서 용출하는 천맥(泉脈)을 발견하고 무심히 한 모금 마신 결과 약수로 판명되었다. 당시의 성국사 후원에 오색화가 피는 특이한 수목이 있기에 그 후 오색약수라 칭하게 되었다. 오색약수는 설악산 청봉으로부터 서남 8km, 양양에서 서방 20km 지점에 위치한 곳으로 산성과 탄산수로 암석 틈에서 은실 같은 줄기로 끊임없이 샘솟아 오른다. 위장병과 신경쇠약, 피부병, 신경통에 특효하며 특히 메밀꽃 피는 가을에 효력이 양호하다 하며 사시장철 탐승객이 끊일 날이 없다.





당뇨병



요약인슐린의 분비량이 부족하거나 정상적인 기능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대사질환의 일종으로, 혈중 포도당 농도가 높은 것이 특징인 질환

진료과

내분비내과, 소아청소년과, 가정의학과

관련 신체기관

췌장

관련 질병

대사증후군, 비만, 고혈압, 고지혈증, 심혈관질환

정의

당뇨병은 인슐린의 분비량이 부족하거나 정상적인 기능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대사질환의 일종으로, 혈중 포도당의 농도가 높아지는 고혈당을 특징으로 하며, 고혈당으로 인하여 여러 증상 및 징후를 일으키고 소변에서 포도당을 배출하게 된다.

원인

당뇨병은 제1형과 제2형으로 구분되는데, 제1형 당뇨병은 이전에 '소아 당뇨병'이라고 불렸었으며, 인슐린을 전혀 생산하지 못하는 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질환이다. 인슐린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제2형 당뇨병은 인슐린 저항성(insulin resistance; 혈당을 낮추는 인슐린 기능이 떨어져 세포가 포도당을 효과적으로 연소하지 못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제2형 당뇨는 식생활의 서구화에 따른 고열량, 고지방, 고단백의 식단, 운동 부족, 스트레스 등 환경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 외에 특정 유전자의 결함에 의해서도 당뇨병이 생길 수 있으며, 췌장 수술, 감염, 약제에 의해서도 생길 수 있다.

증상

약한 고혈당에서는 대부분의 환자들이 증상을 느끼지 못하거나 모호해서 당뇨병이라고 생각하기 어렵다. 혈당이 많이 올라가면 갈증이 나서 물을 많이 마시게 되고, 소변량이 늘어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된다. 또한 체중이 빠지게 된다. 오랜 기간 고혈당 상태가 유지되면 신체에서 여러 합병증이 발생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망막 병증(실명할 수 있음), 신기능장애(신기능 저하로 심할 경우 투석이 필요함), 신경 병증(저림, 통증)이고,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이 높아지게 된다.

진단/검사

혈액검사로 진단한다. 증상이 없는 경우 8시간 이상 금식 후에 측정한 혈당이 126mg/dL 이상이거나, 경구 당부하 검사 2시간 후 혈당이 200mg/dL 이상인 경우를 당뇨병이라 한다. 물을 많이 마시거나 소변이 많아지고 체중이 감소하는 동시에 식사와 무관하게 측정한 혈당이 200mg/dL 이상일 때도 당뇨병으로 진단한다.

제1형 당뇨병의 경우에는 인슐린 치료가 필요하다. 제2형 당뇨병의 경우에는 생활 습관 교정을 기본으로 하며 추가로 약물 투여가 필요할 수 있다. 먹는 약의 경우 하루 1~3회 복용하며 약의 작용 시간에 따라 먹는 시간이라든지 부작용 등이 조금씩 다르다.

먹는 혈당강하제는 크게 인슐린 분비 촉진제와 인슐린 감수성 개선제로 나뉜다. 인슐린 분비 촉진제는 설폰요소제(sulfonylurea)와 메글리티나이드(meglitinide)계가 있다. 설폰요소제는 흔히 처방되는 약으로, 저혈당 상태를 유발할 수 있다. 아마릴(성분: 글리메프라이드 glimepiride), 디아미크롱(성분명: 글리클라자이드 gliclazide), 다오닐(성분명: 글리벤클라마이드 glibenclamide) 등이 이에 속한다.

인슐린 분비 촉진제의 일종인 메글리티나이드계는 약효가 매우 빠른 제제로 식전에 복용하며, 노보넴(성분명: 레파글리나이드 repaglinide), 파스틱(성분명: 나테글리나이드 nateglinide), 글루패스트(성분명: 미티글리나이드 mitiglinide) 등이 있다.

인슐린 감수성 개선제는 단독으로 복용 시 저혈당이 거의 없는 것이 특징이며, 바이구아나이드(biguanide) 계열 약물인 메트포르민(metformin)과, 치아졸리딘다이온(thiazolidinedione) 계열의 아반디아(성분명: 로지글리타존 rosiglitazone), 액토스(성분명: 피오글리타존 pioglitazone) 등이 있다. 그 외에 소장에서 탄수화물 흡수를 지연시키는 글루코바이(성분명: 아카보즈 acarbose), 베이슨(성분명: 보글리보스 voglibose) 등이 있다.

한편 혈당을 낮추는 역할을 하는 호르몬인 GLP-1(glucagon-like peptide-1; 글루카곤 유사 펩티드-1)의 작용을 이용하여 개발된 GLP-1 작용제(agonist)가 있으며, 익스에나티드(exenatide)와 리라글루티드(liraglutide) 등의 주사제가 여기에 해당된다. 또한 GLP-1을 신속하게 불활성화시키는 효소인 DPP-4(dipeptidyl peptidase-4; 디펩티딜 펩티데이즈-4)의 작용을 억제하는 DPP-4 억제제(inhibitor)도 이용되고 있으며, 자누비아(성분명: 시타글립틴 sitagliptin), 가브스(성분명: 빌다글립틴 vildagliptin), 삭사글립틴(saxagliptin) 등이 있다.

최근 개발된 신약으로는 신장에서 포도당 재흡수를 억제하는 SGLT2 억제제가 있으며, 이들은 심혈관 합병증 예방 효과도 함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장기적 부작용에 대해서는 추적 관찰이 필요하다.

인슐린은 현재 주사약으로 나와있으며 피하주사로 투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작용 시간에 따라 투여 방법이 다르다. 먹는 약에 비해서 혈당강하 효과가 더 빠르게 나타나고, 먹는 약을 쓸 수 없는 환경에서도 안전하게 쓸 수 있으며 용량의 제한도 없지만, 주사침에 대한 거부감, 투여 방법의 어려움 등이 단점으로 꼽힌다.

인슐린은 작용 시간에 따라 초속효성, 속효성, 중간형, 지속형등이 있는데, 자세한 설명은 아래와 같다.

초속효성(rapid-acting) 인슐린은 투여 후 15분 이내에 대부분 효과를 나타내기 시작하여 약효는 보통 3~4시간 지속된다. 따라서 식사 직후나 직전에 투여하며, 식후 혈당을 조절하는 데 용이하다. 인슐린 리스프로(lispro), 인슐린 아스파르트(aspart), 인슐린 글루리신(glulisine) 등이 이에 속한다.

속효성 인슐린은 초속효성 인슐린이 나오기 전까지 식후 혈당을 조절하기 위해 사용하던 인슐린으로 레귤러 인슐린(regular insulin)이 이에 속한다. 보통 투여 후 30분에서 1시간 후에 효과를 나타내며, 약효는 보통 2~4시간 지속된다.

중간형 인슐린(NPH insulin)은 투여 후 1~3시간 후에 효과를 나타내며, 약효는 보통 12~16시간 지속되고 투여 6~8시간에 최고 효과를 나타낸다. 인슐린이 특징적으로 뿌연다.

지속형(long-acting) 인슐린에는 인슐린 글라진(glargine), 인슐린 디터머(detemir) 데글루텍(degludec) 등이 있으며, 중간형 인슐린보다 작용 시간이 더욱 길고 효과가 일정하여 기저인슐린으로 주로 사용된다.

경과/합병증

갑자기 몸 안에서 인슐린이 부족하게 되면 급성 합병증이 생길 수 있다. 급성

합병증은 당뇨병성 케톤산증(diabetic ketoacidosis)과 고혈당성 고삼투압 증후군(hyperglycemic hyperosmolar syndrome)으로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하며, 적절히 치료하지 않을 경우 치명적이다. 심한 경우 의식을 잃을 수 있고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만성 합병증으로는 미세혈관질환 합병증으로 망막병증, 신장병증, 신경병증 등이 있고, 대혈관질환 합병증으로는 관상동맥질환, 말초동맥질환, 뇌혈관질환 등이 있다.

예방방법

생활습관 교정을 통해서 체중을 5~7% 줄이게 되면 일부는 제2형 당뇨병의 발병을 늦추거나 예방할 수 있다. 100% 예방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장 믿을 만하고 부작용이 없는 방법이므로 적극 권장된다.

식이요법/생활가이드

자신이 느끼는 증상만으로 혈당을 조절하는 것은 위험하며, 반드시 자가 혈당 측정기를 통해서 상태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체중이 많이 나간다면 체중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고, 적절한 운동 역시 반드시 필요하다. 개개인에 따라 다르지만, 체중을 줄이기 위해 칼로리 제한이 필요하고, 지방을 적게 먹는 것이 좋다. 저지방우유 등이 대안이 될 수 있다.

관련질병

대사증후군, 비만, 고혈압, 고지혈증, 심혈관질환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정보)



2022 양양문화원 언론홍보현황



〈편집실〉

[양양]양양문화원장 후보군 ‘물밑 행보’

강원일보/2022.02.02./이규호 기자
선거일 4월12일 잠정 결정

[양양]신임 양양문화원장 선거일이 올 4월12일로 잠정 결정됐다. 4명의 인사가 주위에 출마 의사를 밝히고 물밑 행보를 벌이고 있다.

양양문화원은 5일 문화원장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선거 일정을 확정할 방침이다. 앞서 열린 문화원 자체 회의에서 선거일은 4월12일로 합의된 상태다. 신임 문화원장은 258명의 문화원 회원의 직접투표로 선출된다.

후보로는 김충길 전 양양고학교장, 박상민 전 양양부군수, 박상형 전 양양군의장, 이건필 전 양양군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들은 모두 양양 출신으로 군 문화원 회원명단을 받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입지자는 정부의 문화 분야 공모사업을 통한 지역 문화 활성화를 강조, 신임 문화원장이 열악한 지역 재정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특히 일부 입지자간에는 단일화 협의도 진행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윤여준 현 문화원장은 “양양은 수년 전부터 지역 전통문화와 관광·레저 등이 접목되며 지역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은 만큼 신임 문화원장에게 거는 기대가 높다”고 말했다.

[양양]문화학교 수강생 모집

강원일보/2022.02.07./이규호 기자
[양양]양양문화원은 2022년도 문화학교 수강생을 모집한다.

모집 분야는 문화학교 17개 강좌, 한시, 한글서예(초·중급), 한문서예(초·중급), 사물놀이, 난타, 태평소, 민요, 한국화(초·중급), 민화, 수채화, 통기타, 색소폰, 양양600합창단, 인두화다. 모집 정원은 총 350명이다.

문화학교 강좌 모집 기간은 오는 23일까지(대금은 3월부터 접수, 4월 강의 시작)이다.

신청 방법은 문화원 홈페이지에 있는 양식을 내려받아 방문, 제출하면 된다.

양양문화원 2월23일까지 문화학교 수강생 모집 문화학교17개, 동아리5개, 선양사업1개 등 강좌 운영

유교신문/2022.02.07./전남표 기자

강원도 양양문화원(원장 윤여준)은 양양지역의 전통 문화유산의 계승·발전을 위해 2022년도 양양문화원 문화학교 수강생을 모집한다.



모집 분야는 문화학교 17개 강좌·한시, 한글서예(초·중급), 한문서예(초·중급), 사물놀이, 난타, 태평소, 민요, 한국화(초·중급), 민화, 수채화, 통기타, 색소폰, 양양 600합창단, 인두화 등 문화학교 17개 강좌가 있으며, 모집정원은 350명이다. 또 동아리 활동과 연계한 5개 과목도 모집한다.

특히, 양양의 역사 속 인물인 허억봉에 대한 선양사업의 일환으로 한국수력원자력(주)양양 양수발전소에서 지원하는 대금 교실을 2017년도부터 운영하고 있다.

또한, 올해부터 운영되는 인두화(우드버닝)는 전통문화의 맥을 잇고자 새롭게 편성해 진행한다.

수강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일부 강좌는 초급반과 중급반으로 편성하여 새롭게 모집하고 교실을 정비하는 등 여러 가지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문화학교 강좌 모집 기간은 오는 23일까지(대금은 3월부터 접수 4월 강의 시작)이며, 접수 방법은 문화원 홈페이지에 있는 양식을 다운 받아 방문 접수로 신청할 수 있다.

개강식은 3월 2일이며 코로나19로 인해 교실별로 개강식을 진행한다. 강좌는 3월부터 12월까지 운영된다.

윤여준 양양문화원장은 “우리 문화원 임·직원은 문화학교 강좌를 통해 양양군민들의 문화적 도량을 넓이는 토대를 만드는데 노력하겠다”며 “수강생들께서도 문화 활동을 통해 행복함과 자부심을 느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양문화원, 이달 23일까지 문화학교 수강생 모집

이뉴스투데이/2022.02.07./어경인 기자

[이뉴스투데이 강원취재본부 어경인 기자] 양양문화원은 양양지역의 전통 문화유산의 계승·발전을 위해 2022년도 양양문화원 문화학교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모집 분야는 한시, 한글서예(초·중급), 한문서예(초·중급), 사물놀이, 난타, 태평소, 민요, 한국화(초·중급), 민화, 수채화, 통기타, 색소폰, 양양600합창단, 인두화 등 문화학교 17개 강좌가 있으며 모집정원은 350명이며 동아리 활동과 연계한 5개 과목도 모집한다.

특히 양양의 역사 속 인물인 허억봉에 대한 선양사업의 일환으로 한국수력원자력(주)양양양수발전소에서 지원하는 대금 교실을 2017년도부터 운영하고 있다.

또 올해부터 운영되는 인두화(우드버닝)는 전통문화의 맥을 잇고자 새롭게 편성해 진행한다.

수강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일부 강좌는 초급반과 중급반으로 편성해 새롭게 모집하고 교실을 정비하는 등 여러 가지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문화학교 강좌 모집 기간은 23일까지(대금은 3월부터 접수 4월 강의시작)이며 접수 방법은 문화원 홈페이지에 있는 양식을 다운 받아 방문 접수로 신청할 수 있다.

개강식은 내달 2일이며 코로나로 인해 교실별로 개강식을 진행하며 강좌는 3월부터 12월까지 운영된다.

윤여준 양양문화원장은 “문화원 임·직원은 문화학교 강좌를 통해 군민들의 문화적 도량을 넓이는 토대를 만드는데 노력하겠다”며 “수강생도 문화 활동을 통해 행복함과 자부심을 느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양문화원, 문화학교 수강생 모집 실시 문화학교17개, 동아리5개, 선양사업1개 등 강좌 운영

브레이크뉴스/2022.02.07./장선희 기자

[장선희 기자 = 경기북부/강원] 양양문화원은 양양지역의 전통 문화유산의 계승·발전을 위해 2022년도 양양문화원 문화학교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분야는 문화학교 17개 강좌 '한시, 한글서예(초·중급), 한문서예(초·중급), 사물놀이, 난타, 태평소, 민요, 한국화(초·중급), 민화, 수채화, 통기타, 색소폰, 양양600합창단, 인두화'가 있으며, 모집정원은 350명이고, 또 동아리 활동과 연계한 5개 과목도 모집한다고 했다.

특히, 양양의 역사 속 인물인 허억봉에 대한 선양사업의 일환으로 한국수력원자력(주)양양양수발전소에서 지원하는 대금 교실을 지난 2017년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부터 운영되는 인두화(우드버닝)는 전통문화의 맥을 잇고자 새롭게 편성하여 진행한다 고 전했다.

수강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일부 강좌는 초급반과 중급반으로 편성하여 새롭게 모집하고 교실을 정비하는 등 여러 가지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고, 문화학교 강좌 모집 기간은 오는 23일까지이며, 접수 방법은 문화원 홈페이지에 있는 양식을 다운받아 방문 접수로 신청할 수 있다고 했다. 개강식은 오는 3월 2일이며 코로나19로 인해 교실별로 개강식을 진행하며, 강좌는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 운영된다고 전했다.

윤여준 양양문화원장은 "우리 문화원 임·직원은 문화학교 강좌를 통해 양양군민들의 문화적 도량을 넓이는 토대를 만드는데 노력하겠다"며 "수강생들께서도 문화 활동을 통해 행복함과 자부심을 느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양문화원, 2022년도 문화학교 수강생 모집

설악뉴스/2022.02.07./송준현 기자

양양문화원(원장 윤여준)은 양양지역의 전통 문화유산의 계승·발전을 위해 2022년도 양양문화원 문화학교 수강생을 모집한다.

모집 분야는 문화학교 17개 강좌 [한시, 한글서예(초·중급), 한문서예(초·중급), 사물놀이, 난타, 태평소, 민요, 한국화(초·중급), 민화, 수채화, 통기타, 색소폰, 양양600합창단, 인두화]가 있으며, 모집정원은 350명이다. 또 동아리 활동과 연계한 5개 과목도 모집한다.

특히, 양양의 역사 속 인물인 허억봉에 대한 선양사업의 일환으

로 한국수력원자력(주)양양양수발전소에서 지원하는 대금 교실을 2017년도부터 운영하고 있다.

또한, 올해부터 운영되는 인두화(우드버닝)는 전통문화의 맥을 잇고자 새롭게 편성하여 진행한다.

수강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일부 강좌는 초급반과 중급반으로 편성하여 새롭게 모집하고 교실을 정비하는 등 여러 가지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문화학교 강좌 모집 기간은 오는 23일까지(대금은 3월부터 접수 4월 강의 시작)이며, 접수 방법은 문화원 홈페이지에 있는 양식을 다운받아 방문 접수로 신청할 수 있다.

개강식은 3월 2일이며 코로나19로 인해 교실별로 개강식을 진행한다.

강좌는 3월부터 12월까지 운영된다.

윤여준 양양문화원장은 "우리 문화원 임·원은 문화학교 강좌를 통해 양양군민들의 문화적 도량을 넓이는 토대를 만드는데 노력하겠다"며 "수강생들께서도 문화 활동을 통해 행복함과 자부심을 느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양문화원 문화학교 수강생 모집 17개 강좌 23일까지 접수...인두화 신설

설악신문/2022.02.14./김주현 기자

양양문화원이 2022년도 문화학교 수강생을 모집한다.

모집 분야는 한시, 한글서예(초·중급), 한문서예(초·중급), 사물놀이, 난타, 태평소, 민요, 한국화(초·중급), 민화, 수채화, 통기타, 색소폰, 양양600합창단, 인두화 등 17개 강좌로, 모집정원은 350명이다. 동아리 활동과 연계한 5개 과목도 모집한다.

특히, 양양의 역사 속 인물인 허억봉에 대한 선양사업의 일환으로 한국수력원자력(주) 양양양수발전소에서 지원하는 대금 교실을 지난 2017년부터 운영해오고 있으며, 올해는 인두화(우드버닝)를 새로 편성해 전통문화의 맥을 이어 나갈 예정이다. 또 수강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일부 강좌는 초급반과 중급반으로 편성, 새롭게 모집하고 교실을 정비하는 등 여러 가지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수강생 모집 기간은 오는 23일까지며, 문화원 홈페이지에서 양



식을 다운받아 방문 신청하면 된다. 개강식은 3월 2일이며 코로나19로 인해 교실별로 진행한다. 강좌는 3월부터 12월까지 운영된다. 다만, 대금은 3월부터 접수받아 4월에 강의를 시작한다. 윤여준 양양문화원장은 “우리 문화원 임직원들은 문화학교 강좌를 통해 군민들이 문화적 도량을 넓이는 토대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13대 양양문화원장 선거 4월 12일 박상민·이건필·김충길 씨 거론... 단일화도 협의 중

설악신문/2022.03.14./김주현 기자

제13대 양양문화원장 선거가 오는 4월 12일 실시된다. 양양문화원은 지난달 문화원장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1차 회의를 열어 오는 4월 12일 제13대 문화원장 선거를 실시하기로 확정했다. 또 오는 31일까지 전체 문화원 회원 253명을 대상으로 문화원장 선거에 참여하는 선거인 명부를 공고하고 4월 4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이어 4월 4일 하루 문화원장 후보자를 대상으로 후보 등록을 받는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단독 입후보는 선거 없이 추대로 확정하지만, 2명 이상의 후보자가 출마하면 공식선거 절차에 따라 직접 투표를 진행할 방침이다.

제13대 양양문화원장 선거와 관련, 현재 지역에서는 박상민 전 양양부군수와 이견필 전 양양군의원, 김충길 전 양양고 교장 등 3명이 자천타천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와 함께 일부 입지자들 간에는 물밑에서 단일화 협의도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최종 후보 구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양양문화원장 선거는 양양군의 글로벌 플랫폼 구축사업에 발맞춰 전통문화의 현대적 계승 작업을 손조롭게 진행할 수 있는 책임자가 누구인지와 현재보다 더 튼튼한 재정을 갖춰 나갈 인물론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윤여준 양양문화원장은 “신임 문화원장이 선출이 공정한 절차를 거쳐 지역 문화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양양문화원장 선거 3파전 양상 열기 고조

강원도민일보/2022.03.17./최훈 기자
김충길·박상민·이건필 거론

내달 4일 등록·12일 선거

내달 12일 실시 예정인 제13대 양양문화원장 선거를 앞두고 지역 문화예술계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양양문화원은 지난달 문화원장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1차 회의를 열어 선거일정을 확정했다. 현재 신임 문화원장으로 거론되고 있는 인사는 김충길 전 양양고 교장, 박상민 전 부군수, 이견필 전 군의원 등 3명 정도로 압축된 상태다.

이번 양양문화원장 선거를 위해 선관위는 이달말까지 전체 회원 253명을 대상으로 선거인 명부를 공고하고 내달 4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이어 4월 4일 하룻동안 후보등록을 접수하게 된다.

양양문화원장 후보등록 결과 단독으로 입후보할 경우 별도의 선거없이 추대로 확정되지만, 2명 이상의 후보자가 출마하면 공식선거 절차에 따라 투표를 진행하게 된다.

현재 일부 입지자들은 “문화원장의 경우 지역로가 맡는 자리인 만큼 경쟁보다는 서로 조율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며 단일화 움직임도 보이고 있어 최종 선거구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또 그동안 문화원장 출마를 위한 기탁금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된 점도 후보간 절충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양양】제13대 양양문화원장 후보 박상민 전 부군수 단독 등록

강원일보/2022.04.05./이규호 기자

【양양】제13대 양양문화원장 후보 등록이 지난 4일 마감된 결과 박상민(64·사진) 전 양양부군수가 단독으로 등록했다.

이에 따라 박 전 부군수는 오는 8~21일 서면으로 실시될 임원총회에서 50%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제13대 양양문화원장으로 취임한다. 새로운 문화원장의 임기는 올 7월1일부터 시작되며 임기는 4년이다.

박 전 부군수는 한남초, 양양중·고, 한국방송통신대, 강릉원주대 대학원을 졸업했으며, 강원도의회 홍보담당관, 도 입법지원담당관, 양양군 기획감사실장, 민원봉사과장 등을 역임했다.



양양문화원장 선거 박상민 전 부군수 단독 입후보

강원도민일보/2022.04.06./최훈 기자



제13대 양양문화원장 선거에 박상민(사진) 전 양양부군수가 단독으로 입후보했다. 양양문화원은 지난 4일 하룻동안 원장 후보를 접수한 결과 박 전 부군수 1명이 후보등록을 마쳤다고 밝혔다. 당초 양양문화원장 선거에는 2~3명이 뜻을 두고 있었으나 지역원로가 맡아온 관행상 서로 경쟁하기 보다는 미리 조율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따라 사전협의를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양양문화원 선관위는 12일로 예정됐던 선거 대신 선거권을 가진 213명의 회원들에게 공문을 보낸 후 14일간의 회신기간을 거쳐 21일 과반이상이 찬성할 경우 당선을 확정한다.

[양양]양양문화제 3년 만에 정상 개최 촉각

강원일보/2022.04.07./이규호 기자

14일 양양문화제위원회 정기총회에서 결정
【양양】지역주민들의 최대 화합잔치인 양양문화제 정상 개최가 올해도 어려울 전망이다.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감소세가 엇보이지만 장기적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한 데다 6·1지방선거와 맞물리며 준비할 기간도 빠듯하기 때문이다.

올해 양양문화제 정상 개최 여부는 14일 오전 양양문화원에서 열리는 양양문화제위원회는 정기총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현재 문화제위원회 내부에서는 '정상적인 개최가 어렵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고개를 들고 있다. 적지 않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 문화제 개최 준비를 했다가 코로나19 재확산 등의 변수가 발생하면 타격이 크다는 시각이다. 여기에 행사를 실제로 준비하는 읍·면사무소 공무원들이 지방선거 사무에 투입돼야 한다는 점도 부담이다.

양양문화제는 매년 단오(음력 5월5일) 직후에 열려 왔다. 각 읍·면별로 행사를 준비, 사실상 양양주민 모두가 한번쯤은 행사장을 찾았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2년 간은 고치물제 등 제례행사만 열렸다. 올해도 정상 개최가 어려울 경우 제례행사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박상민 전 부군수, 양양문화원장 사실상 확정 제13대 단독 입후보...회원 인준만 남아 / 찬반 의견 수렴 후 당선증 교부 예정

설악신문/2022.04.11./김주현 기자

제13대 양양문화원장에 박상민(사진) 전 양양부군수가 사실상 확정됐다.

양양문화원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일 입후보 등록을 받은 결과, 박상민 전 양양부군수가 단독으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2일로 예정됐던 양양문화원장 선거는 치르지 않는 대신 투표권을 가진 문화원 회원 213명을 대상으로 임원 선출에 대한 동의를 묻는 우편물을 발송해 찬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양양문화원선관위는 지난 5일 단독 등록한 박상민 후보와 이사진에 대한 결격사유 등을 검토한 후 8일 전 회원에게 동의여부 우편물을 발송했으며, 오는 21일까지 우편물을 회신한 후 신임 양양문화원장을 최종 확정하고 이달말 당선증을 교부할 계획이다.

박상민 전 양양부군수는 "아직까지는 문화원장 인준 절차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문화원 회원 여러분들의 마지막 인준까지 검허하게 기다리고 있다"며 "양양문화원 선배 원장님들과 회원 여러분들이 그동안 공을 들여 쌓은 전통과 역사를 잘 계승해 문화원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말했다.

제23대 양양부군수를 끝으로 40년 공직을 마감한 박 전 부군수는 서면 출신으로 주민생활지원과장과 민원봉사과장, 기획감사실장을 지낸 후 강원도의회 홍보담당관 등을 거쳤고, 퇴임 후에는 제23대 양양중고총동문회장을 맡아 모교 발전에 많은 역할을 해왔다.

특유의 친화력과 강한 추진력으로 행정과 지역사회의 소통역할을 맡아 왔던 박 전 부군수가 전통문화의 현대적 계승 작업과 문화원 재정 확충을 이뤄낼 책임자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편, 양양문화원은 6월 말경 제12·13대 양양문화원장 이·취임식을 가질 예정이다.



[양양]양양문화제 올해도 제례행사만 진행

강원일보/2022.04.14./이규호 기자

지역주민 최대의 화합잔치
코로나로 3년째 대폭 축소
6월 초 '고치물제' 등 개최

【양양】지역주민들의 최대 화합잔치인 양양문화제가 코로나19로 인해 올해도 제례행사만 열린다. 매년 연인원 수만명이 참가했던 양양문화제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 대폭 축소돼 열리는 것은 이번이 3년째다.

양양문화제위원회는 14일 오전 양양문화원에서 정기총회를 갖고 올 6월 초 열릴 올해 문화제 역시 고치물제 등 제례행사만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감소세가 엇보이지만 장기적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한 것이 가장 큰 이유다. 코로나19로 인해 시가행진을 주도해야 할 학생과 군장병들의 행사 참석이 불가능한 상태다.

양양문화제를 주도적으로 준비해야 할 읍·면 공무원들이 여전히 코로나19 방역에 집중해야 하는데다 6월1일 지방선거에서 선거사무원으로 종사해야 하는 것도 행사 축소의 이유다.

양양문화제는 매년 단오(음력 5월5일) 직후에 열려 왔다. 각 읍·면별로 행사를 준비, 사실상 양양주민 모두가 한번쯤은 행사장을 찾았었다.

전국한시백일장과 강원도청소년국악경연대회, 강원도동구리민요경창대회, 사진전, 분재·야생화 전시회 등도 진행되는 등 전통 깊은 지역 문화행사다.

양양문화원장에 박상민 전 양양부군수 당선

강원도민일보/2022.04.26./최훈 기자

제13대 양양문화원장에 박상민(사진) 전 양양부군수 당선이 확정됐다.

양양문화원은 이번 선거에서 박 전 부군수가 단독으로 입후보함에 따라 회원들에게 공문으로 찬반여부를 물은 결과 73%가 찬

성함에 따라 당선을 확정짓고 지난 22일 당선증을 교부했다고 밝혔다. 박 전 부군수는 "양양군 정명 600년에 대한 고찰을 새롭게 하고 일제에 저항한 3·1만세운동 기념관 건립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의욕을 보였다. 또 "향토문화제의 보존과 귀농귀촌인과의 유대 강화를 위해 '섬김의 문화운동'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양양문화원장 이취임식은 6월중 개최될 예정이다



[김희태의 히스토리&스토리] 아는 사람에게서 '돌'도 달리 보인다

인천일보/2022.06.16./ 김희태 기자



작년 12월, 양양문화원의 협조를 받아 양양지역의 금표 관련 답사를 다녀왔다. 이날 금표 답사를 마치고 돌아가던 중 이곳 향토사연구소의 김재환 선생님이 내게 죽도해수욕장 부근에 태함 비슷한 석물이 있다고, 가는 길에 한번 보고 갈 것을 제안하셨다. 태함(胎函)이란 아기의 태와 태지석 등을 넣은 돌 항아리로, 보통 아랫부분을 함신, 덮개 부분을 함개 혹은 개석으로 부른다. 태함은 태실을 조성할 때 길지의 정상에 묻었다. 조선왕실에서는 왕의 자녀가 태어나면 신분에 따라 등급을 구분해 조성했다. 지금도 쉽게 접할 수 있는 태봉산(胎封山, 胎峰山) 혹은 태실봉(胎室峰) 등이 바로 태실을 조성했기에 붙여진 지명이다.

안내를 받아 찾아가는 장소는 강원도 양양군 현남면 시변리 12-3



번지로, 이 중 범상치 않은 모습의 한 석물이 내 시선을 사로잡았다. 외형상 태함의 함신처럼 생겨 설마하며 가까이 가서 석물의 내부를 들여다보니 태함에서 보이는 특징인 습기와 배수를 위한 구멍이 확인되었다. 태함이 맞았던 것이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장소에서 만난 태실의 흔적이었다.

그런데 이곳에 왜 태실 석물이 있는 것일까? 안내해준 김 선생님은 이 석물이 지역에서 땃돌로 불렸는데, 과거 마을 사람들이 기우제를 지낼 때 사용한 것이라 한다.

〈양양지역의 금석문(2014)〉을 보면 기우제 의식과 관련한 내용이 잘 남아 있는데, 먼저 해변에 있던 땃돌에 사람들이 모여 기우제에 바칠 개를 잡는 것에서 시작한다. 이후 잡은 개의 피를 땃돌에 묻히고, 마을 사람들이 양쪽으로 늘어서 땃돌에 땃돌을 끼워 바닷물에 담가두었다고 한다. 이러한 땃돌 기우제는 1990년대까지 진행되었다고 하며, 과거에는 태함의 머리에 해당하는 개석도 있었으나 지금은 도난당했다고 하며, 남아 있는 함신만 현 위치로 옮겼다.

〈양양군지(2010)〉 고적 편을 보면 태석이 현남면 동산리 뒤편에 있다고 했는데, 기록에 언급된 태봉은 현남면 인구리 1-1번지에 있는 죽도산이다. 이는 현재까지 확인된 태실 가운데 유일하게 바닷가에 조성된 사례다. 전하는 이야기로는 태함을 동해에 던졌는데, 파도에 밀려 육지로 흘러 왔다고 한다. 그렇다면 죽도해수욕장 부근에 있는 태함은 누구의 태실일까? 심현용 박사에 의하면 과거 해당 태실에는 태실비가 있었다고 한다. 이때 확인된 명문을 통해 태주가 성종의 자녀인 수정(壽貞)의 태실로, 조성년도는 1470년(성종 1)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태지석이 출토되지 않아 출생년도가 파악되지 않기에 태주가 누구인지는 알 수가 없다.

일련의 에피소드는 내게 아는 사람에게는 돌도 달리 보인다는 교훈을 상기시켜주었다. 최근 경주 남산사의 정원석이 신라 때 만들어진 '공순아찬신도비'로 판명되었는데, 이는 현재까지 확인된 신도비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으로 화제가 된 바 있다. 누군가에겐 그저 정원을 장식하는 돌덩어리에 불과했겠지만 가치를 아는 사람의 눈에는 달리 보인 것이다. 이번에 양양에서 확인한 태함 역시 마찬가지다. 이제라도 해당 태함의 보존과 보호를 위한 조치가 필요한데, 주변 정비와 안내문 설치 등을 통해 가치를 알리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어쩌면 평소 우리가 무심히는 지나치는 장소에서도 뜻밖의 발견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돌 하나도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어쩌면 그 발견의 주인공이 이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들이 될지도 모를 일이니깐!

양양향교, 2022년 제44회 양양문화제의 제례 행사인 고치물제와 성황제 봉행

유교신문/2022.06.16./전남표 기자



고치물제 헌관 김진하 군수가 헌작을 하고 있다.



고치물제 헌관이 채수를 하고 있다.

양양향교(전교 김경일)는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서문리에 위치한 고치를 샅터와 성황사(城隍祠)에서 6월16일 오후2시 제44회 양양문화제(위원장 윤여준 양양문화원 원장, 양양향교 원로장)의 서막을 알리는 제례(祭禮)행사인 고치물제와 성황제(城隍祭)를 봉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양양군 김진하 군수, 양양군의회 김의성 의장, 양양문화제 윤여준 위원장, 양양향교 김경일 전교, 성균관청년 유도회 양양군지부 한덕복 회장, 성균관 여성유도회 양양군지부 이



건남 회장, 강원도의회 의원, 양양군의회 의원, 양양군청 관계자, 양양문화원 관계자, 관내 기관 단체장, 양양향교 장의 및 양양 속초지역 유림 등100여 명이 참석했다.

제례 행사인 고치물제와 성황제의 헌관에는 초헌관 양양군 김진하 군수, 아헌관 양양문화제 윤여준 위원장, 종헌관 양양군의회 김의성 의장이 맡았으며, 제집사는 집례 양양향교 김기송 의전장의(성균관 전학), 대축 양양향교 김종구 재무장의(성균관 전학), 알자 양양향교 김덕주 장의, 찬인 양양향교 노이준 장의, 봉향 양양향교 최영 장의, 봉로 양양향교 김근배 장의, 사준 양양향교 최영욱 장의, 전사관 양양향교 이흥수 조직장의(성균관 전학)가 맡아 복무했다.

고치물제는 헌관 양양군 김진하 군수가 분향하고 무축(無祝) 단잔(單盞)을 올렸다.

고치물제 제례에 앞서 양양읍 농악보존회에서 양양문화제의 서막을 알리는 신명나는 농악 가락의 시연이 있었다.

이어 성황사에서 성황제가 봉행됐다. 집례 양양향교 김기송 의전장의(성균관 전학)의 창출에 따라 진행된 제례는 헌관 및 제집사 분방에 이어 ▶초헌관 점서 ▶초헌례 ▶아헌례 ▶종헌례 ▶음복례 ▶철변두 ▶망료례 순으로 전통 유교식으로 봉행했다.

강원도 양양 지역은 삼국시대부터 많은 전란을 겪게 됨에 따라 고려 목종10년(1007년)에 현재 양양읍 성내(城內)리를 중심으로 양주성(襄州城)을 축성해 외적의 침입을 방어했고 성내에 성황사를 건립해 외적을 방어하다 희생된 영령(英靈)을 위무(慰撫)하여 국태민안과 풍농, 풍어를 기원하기 위해 매년 봄과 가을에 성황제례(城隍祭禮)를 봉행하는 관습이 전래됐다.

1592년 임진왜란 이후부터는 매년5월5일 단오에 성황지신(城隍地神)을 수호신(守護神)으로 모시고 성황제례를 성대하게 봉행했다.

성황제례에 사용되는 제수(祭需)는 고치물로만 사용하였고 제주(祭主)도 고치물만 마시는 등 신성시하여 고치물 샘터에는 경비병2명이 상시 지키고 있었다고 전해 내려오고 있다. 성황사는 일제 강점기 우리문화 말살 정책에 의해 철폐되기도 했다. 1920년대부터 단양회(丹陽會)라는 단체가 구성돼 단오절(端午節)을 기하여 대제전(大祭典)으로 발전해 성황제를 크게 봉행했다. 남대천 둔치에서 별신굿과 민속행사와 관동 축구대회를 개최하는 등 천년의 역사 속에서 양양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했다. 그 후 6·25 한국전쟁으로 소실됐다가 1967년 군민의 성미(誠米)로 재건했으나 규모가 협소하고 노후화돼 1990년 현재의 건물로 중건해 1979년부터 현산문화제로 이어오다 2016년부터 오늘날의 양양문화제로 발전했다

양양문화제의 제례행사인 고치물제와 성황제를 먼저 봉행하고 남대천 둔치와 종합운동장에서 군민 체육대회와 다양한 민속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양양 성황사는 『신증동국여지승람』과 『사묘(祠廟)』에 "성황사는 성안에 있다"라고 기록돼 있다.

강원도 양양군은 제44회 양양문화제를 성대하게 개최하려고 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불가피하게 제례 행사인 고치물제와 성황제만 봉행하고 다른 행사는 모두 취소했다. 2023년 제45회 양양문화제는 코로나19가 완전 소멸되어 성대하고 알찬 제례 행사와 민속행사, 군민화합 체육대회가 개최되기를 희망해 본다. 양양문화제의 고치물제와 성황제는 양양군의 지원으로 매년 양양향교에서 제례 봉행을 주관하고 있다.



양양읍 농악팀이 서막을 알리는 신명나는 농악 가락의 시연이 있었다.



집례 김기송 성균관 전학이 분방을 낭독하고 있다.



성황제 헌관 및 참례자가 서립해 있다.



초헌관 김진하 군수가 삼상향을 하고 있다.



대축 김종구 성균관 전학이 독축을 하고 있다.



아헌관 양양문화제 윤여준 위원장이 헌작을 하고 있다.



종헌관 양양군의회 김의성 의장이 헌작을 하고 있다.



망료례를 하고 있다.

박상민 양양문화원장 취임식

설악뉴스/2022.06.24./설악news 기자

양양문화원장이 취임식(이임 윤여준 취임 박상민)이 24일 양양군 일출예식장에서 개최되었다.





박상민 제13대 양양문화원장 취임 “지속가능한 문화정책 시행”/ 지난 24일 이·취임식 열려

설악신문/2022.06.27./김주현 기자

지난 24일 취임식을 가진 박상민(사진) 제13대 양양문화원장은 40년간의 풍부한 행정경험을 토대로 지역문화 창달과 전통문화 계승, 민속문화 발굴연구 등 지속가능한 문화정책을 펼쳐 군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상민 원장은 문화학교 프로그램과 지역문화교육을 강화하는 동시에 문화환경 개선사업과 지역문화교육 강화 등 문화원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타 지역에 비해 풍부한 전통문화와 민속예술 등의 문화적 인프라를 문화체험과 연계하고 현대적 관광상품화에 나서 양양군이 추진하는 글로벌 문화관광콘텐츠로 특화해내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박 원장은 선사유적을 비롯한 문화관광자원을 적극 활용하고 문예창작 활동도 강화해 지역문화 전반이 균형 발전을 이뤄나가도록 뒷받침할 예정이다.

박상민 원장은 “지역문화의 창달과 계승을 통해 후손들에게 양양 문화의 진정한 가치와 자긍심을 전하는데 우리 문화원이 중심에 서겠다”며 “전통문화를 현대문화와 접목해 문화관광이 성장하는 비전을 구체화하겠다”고 피력했다.

그는 “문화원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필요하다”며 “군민들 모두 우리 문화원에 대해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박 원장은 문화원 활성화를 위해 주민 누구나 문화원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의 폭을 대폭 넓히고 회원들의 지위 향상에도 각별한 관심을 갖겠다고 했다.

지난 2018년 제23대 양양부군수로 퇴임한 박상민 원장은 서면 출신으로 1977년 공채로 공직에 입문해 기획, 행정, 예산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뒤, 2001년 사무관으로 승진해 문화관광과장, 세무회계과장, 자치행정과장을 역임했다. 이어 2009년 서기관으로 승진, 주민생활지원과장과 민원봉사과장, 기획감사실장을 지낸 후 강원도의회 홍보담당관을 거쳐 양양부군수로 재직했었다. 특유의 친화력과 강한 추진력이 장점인 그는 군청 재직 당시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라는 멘트로 친절 교육을 시행해 호평을 받은 바 있다. 가족은 부인 양순옥 씨와 2남.

한편, 양양문화원은 지난 24일 일출예식장에서 제13대 박상민 신임 문화원장과 제11·12대 윤여준 문화원장의 이·취임식을 열었다.

동해신묘 역사성 되찾기 학술대회 연다 양양문화원, 8월 19일 문화복지회관서 토론회/ 동해신묘 정체성 고찰·복원 건축안 발표 등

설악신문/2022.08.01./김주현 기자

양양문화원(원장 박상민)이 설악권의 수부 도시인 양양군의 정체성과 역사성 복원을 위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문화원은 오는 8월 19일 오후 2시 문화복지회관 2층 소강당에서 박상민 문화원장과 김진하 양양군수, 오세만 군의회 의장, 지역 원로 및 유림들이 참석한 가운데 ‘동해신묘의 정체성과 복원에 대한 학술대회’를 열어, 지역 정체성 회복과 역사성 복원에 나선다.

학술대회는 이날 오후 2시 개회식에 이어 2시 30분부터 김도현 강원도문화재위원이 ‘동해신묘제의 역사와 내용’에 대해 주제발표를 한다. 이어 ‘양양의 정체성과 명칭고찰’, ‘동해신묘 복원과 건축안’, ‘동해신묘 유산과 전통콘텐츠’ 등 동해신묘의 역사적 의미를 현대적 시각과 관점으로 고찰하는 발표와 토론을 진행한다.

이후 오후 4시 30분부터는 이번 학술대회의 좌장인 이창식 아시아 강원민속학회 회장 주재로 종합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동해신묘는 신라시대부터 거슬러 올라가 경지 면적이 부족한 동해안 지역에서 험난한 바다에서 어로 활동을 하면서 바다 신인 용왕에게 무사안녕을 기원했던 제례로 현재 바다를 접한 마을에서 서낭당과 해신당을 모시는 원류로 평가되고 있다.

양양군 조산리에 위치한 현 동해신묘는 고려 공민왕 19년(1370년)에 세워진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 초기에는 국가적 제례 중종사로 분류될 정도로 중요성을 인정받았으며, 매년 봄과 가을에 제사를 지내왔다. 그러나 조선시대 순종 2년(1908년) 일제의 공작으로 비석이 잘리고 건물이 철거되었다가 지난 1993년부터 양양군에 의해 복원사업이 추진됐다. 현재도 전승돼 매년 낙산해수욕장과 설악해수욕장 등 주요 해수욕장 개장식과 함께 ‘양양 동해신묘 여름해변 용왕제’를 올리고 있다.

이와 관련, 양양문화원은 양동창 전 문화원장 재임 시절인 지난 2012년 전폭적인 지원과 향토사연구소 위원들의 헌신



양양군의 오랜 역사와 함께 하고 있는 동해신묘. 김진하 군수가 제례를 올리고 있다.



적인 연구 노력에 힘입어 한국문화원연합회 강원도지회가 주최한 강원도 향토문화연구발표에서 '동해신묘의 역사적 고찰과 이해'를 발표해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박상민 양양문화원장은 “역사란 무릇 과거와 현재를 잇고 미래로 가기 위한 디딤돌이라는 보편적 진리를 이변 학술대회를 통해 확인하는 동시에 자랑스러운 우리 지역의 역사성을 복원해 미래 가치를 더욱 드높이는 전환점으로 삼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양양문화원, 동해신묘의 정체성과 복원에 대한 학술대회 개최

설악뉴스/2022.08.20./설악news 기자



양양문화원(원장, 박상민) 주관 동해신묘의 정체성과 복원에 대한 학술대회가 19일 문화복지회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동해신묘 학술대회

강원도민일보/2022.08.21./최훈 기자

동해신묘의 정체성과 복원을 위한 학술대회가 최근 문화복지회관에서 개최됐다.

“양양군 동해신묘 원형복원 후 문화관광 콘텐트 초로 정립해야” 양양문화원 ‘동해신묘의 정체성과 복원에 대한 학술대회’ 성료/고려시대 시작해 조선시대까지 국가제사 지내던 곳 고증/우리나라 3대 신묘로 역사·문화·건축학적 의미 재발굴

설악신문/2022.08.22./김주현 기자

양양군 조산리에 위치한 동해신묘는 고려시대부터 시작돼 조선시대 동해를 지키는 동해신을 치제하기 위해 축조된 국가제의시설로 나주·영암의 남해신묘, 해주 풍천의 서해신묘와 더불어 우리나라 3대 신묘로서 원형복원과 함께 글로벌 문화관광콘텐츠로 새롭게 재정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동해신묘의 정체성과 복원에 대한 학술대회’가 지난 19일 오후 2시 양양문화원(원장 박상민) 주최로 양양문화복지회관 2층 소강당에서 박상민 문화원장과 김진하 양양군수, 이창식 아시아강원민속학회장,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김진하 양양군수는 축사에서 “신석기부터 이어져 온 유구한 역사문화의 고장인 우리 양양군이 이번 학술대회를 계기로 고유한 전통을 원형 복원해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고 후대에게 자랑스러운 역사문화를 온전히 물려주도록 더욱 헌신하겠다”고 밝혔다. 박상민 양양문화원장은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사회 속에서 우리군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재정립하는 뜻깊은 학술대회가 돼 보람이 크고, 새로운 문화 100년을 준비하는 밑거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학술대회는 문화재 분야 김도현 강원도문화재 위원, 복원과 건축분야 김상태 문화재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수, 향토사 분야 양언석 강원도립대 교수, 관광분야 이학주 한국문화스토리텔링연구원 원장이 주제 발표를 하고 열띤 토론의 장을 펼쳤다.

민간 용왕제 시작점

김도현 강원도문화재위원은 ‘동해신묘제의 역사와 전승 양상’이라는 주제에서 “양양에서 동해를 관장하는 국가 제장을 설치해 제사를 지낸 전통은 고려시대부터 시작되어 조선시대에 이어져 1908년까지 유지되었음을 각종 기록과 고지도, 관련 유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어곳에서 모신 신령은 동해신 또는 용왕으로 상징되는 동해신이었으며, 이들 제의를 주관한 사람은 양양부사였고, 국가에서 향과 축을 내려주었기에 국가 제사였음을 알 수 있다”며 “동해신을 모셔서 제사를 지낸 전통은 현재 동해안 지역에서의 민간신앙 전통에도 영향을 미쳐 마을 단위 제의에서 바다에서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삼척을 비롯한 동해안 지역과 울릉도에서도 하위 제자로 용왕제를 지내고 있음을 폭넓게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용왕설화 기반 양양문화 기틀

양언석 강원도립대 교수는 ‘양양의 정체성과 동해신묘의 명칭 고찰’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양양은 선사시대부터 강과 바다에서 삶을 영위하며 자연스럽게 용왕 숭배사상이 생성되었고, 이것을 증명하는 것이 낙산사 창건설화와 관련 있는 용왕설화이며, 동해용왕의 상주처인 양양은 삼국시대부터 신성시하였다”고 설명했다.



이를 바탕으로 “동해신묘는 국가주관 제사로 ‘고려사’를 시작으로 사서, 지리지, 각종 읍지 등 수 많은 기록을 찾아볼 수 있기에 앞으로 동해신묘의 명칭과 건물을 원형대로 복원해 양양문화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추가 발굴조사 후 원형복원

김상태 문화재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수는 ‘동해신묘의 건축 성격과 정비방향’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동해묘는 고려시대에서 조선에 이르기까지 산천 악·해·독 단묘건축 중 가장 중요하게 치제되었으며, 1908년 일제 통감부에 의해 강제로 훼손 당했지만, 1993년 정전 복원을 통해 국가제의시설로서의 명분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전 복원 후의 발굴조사는 문화유산으로서 동해신묘의 진정성과 완전성에 문제가 제기됐으며, 현재 발굴 조사된 내용과 모습으로는 온전한 단묘건축의 모습을 살펴볼 수 없기에 반드시 전체 사역과 주변에 대한 추가적인 철저한 발굴조사를 통해 진정한 동해신묘의 배치와 건축현황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추가 발굴조사 후 보다 면밀하고, 진정성과 완전성이 있는 정비계획을 통해 문화유산 활용과 인근 관광과의 연계를 통한 의미 있는 관광 콘텐츠와 볼거리를 지역주민과 국민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쉽고 재미난 콘텐츠로 개발

이학주 한국문화스토리텔링연구원 원장은 ‘동해신묘의 가치 제고를 위한 전통문화의 계승과 창작’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동해신묘는 인간중심으로 새로움을 만들어야 하고, 인간의 정서를 바탕으로 한 ‘보편적 사랑 중심의 인문학적 상상력과 융복합 창의력’이 필요한 때”라고 피력했다. 이와 관련, “동해신묘는 전통계승론에 따라 문화의 전통유지를 위한 계승이 지속되어야 하고, 전통활용론으로 문화의 전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활용의 범위를 넓혀야 하며, 전통창작론을 바탕으로 전통문화를 창작하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기반으로 동해신묘는 옹오름콘텐츠 등 쉽고 재미있는 콘텐츠로 전통을 만들어야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동해신묘의 정체성과 복원에 대한 학술대회에 참여한 전문가들이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동해신묘 가치 '재조명'...정비계획 수립 추진

강원도민일보/2022.08.23./최훈 기자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양양 동해신묘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함께 제대로 된 정비계획 수립이 추진된다. 양양군은 지난 19일 양양문화원 주최로 개최된 ‘동해신묘의 정체성과 복원에 대한 학술대회’에서 동해신묘에 대한 가치가 재조명 됨에 따라 체계적인 연구 및 정비계획을 세울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려시대에 건립된 동해신묘는 풍농풍어와 안녕을 기원하기 위해 국가차원의 제사를 지내던 곳으로, 3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에는 동해신묘 외에도 황해도 풍천에 서해신사, 전남 영암에 남해신사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동해신묘는 일제의 민족문화말살정책으로 철폐됐다. 지난 1993년 복원돼 현재에 이르고 있다.



동해신묘

하지만 이 과정에서 복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상태 문화재청 한국전통문화대 교수는 “동해신묘는 1993년 정전 복원을 통해 국가제의시설로서의 명분을 유지하고 있지만 이후의 발굴조사에서 진정성과 완전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전체 사역에 대한 철저한 발굴조사를 통해 진정한 동해신묘의 배치와 건축현황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해신묘’ 명칭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양언석 강원도립대 교수는 “조선은 후대로 올수록 통치이념인 성리학에 의해 신사(神祠)의 명칭이 신묘(神廟)나 묘(廟), 단(壇)으로 혼용해 기록하고 있다”며 “이에따라 동해신묘는 고려조나 조선조 초기에 기록된 ‘동해신사’로 바로 잡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상민 문화원장은 “오랜 역사를 가진 양양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 동해신묘 학술대회를 마련했다”며



동해신묘



“역사 바로세우기의 일환으로 추가 발굴 및 고증을 통해 위상을 재정립하고 양양도호부 건물과 함께 원형복원 후 문화 관광콘텐츠로의 개발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양양 동해신묘 가치 재조명 정비계획 수립 나선다

강원도민일보/2022.08.24./최훈 기자



양양군이 최근 시작된 ‘동해신묘’ 가치 재조명 작업에 발맞춰 체계적인 연구와 정비계획 수립사업에 나섰다. 사진은 양양 동해신묘 모습.

페이스북(으)로 기사 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톡(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톡(으)로 기사보내기 URL 복사(으)로 기사보내기 이메일(으)로 기사보내기 다른 공유 찾기

동해신묘 정체성 복원 학술대회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양

양 동해신묘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함께 제대로 된 정비계획 수립이 추진된다. 양양군은 지난 19일 양양문화원 주최로 개최된 ‘동해신묘의 정체성과 복원에 대한 학술대회’에서 동해신묘에 대한 가치가 재조명 됨에 따라 체계적인 연구 및 정비계획을 세울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려시대에 건립된 동해신묘는 풍농풍어와 안녕을 기원하기 위해 국가차원의 제사를 지내던 곳으로, 3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에는 동해신묘 외에도 황해도 풍천에 서해신사, 전남 영암에 남해신사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동해신묘는 일제의 민족문화말살정책으로 철폐됐다. 지난 1993년 복원돼 현재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복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상태 문화재청 한국전통문화대 교수는 “전체 사역에 대한 철저한 발굴조사를 통해 진정한 동해신묘의 배치와 건축현황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언석 강원도립대 교수는 “조선은 후대로 올수록 통치이념인 성리학에 의해 신사(神祠)의 명칭이 신묘(神廟)나 묘(廟), 단(壇)으로 혼용해 기록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동해신묘는 고려조나 조선조 초기에 기록된 ‘동해신사’로 바로 잡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상민 문화원장은 “역사 바로세우기의 일환으로 추가 발굴을 통해 위상을 재정립하고 양양도호부 건물과 함께 원

형복원 후 문화 관광콘텐츠로의 개발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양양문화원 제44회 양양문화제 결산총회 개최

설악뉴스/2022.09.01./설악 news 기자

양양군문화원은 1일 제44회 양양문화제 결산총회를 개최하였다.

양양문화원 제4차 임시이사회

강원도민일보/2022.09.06./최훈 기자



양양문화원은 6일 회의실에서 제4차 임시이사회를 열고 주요 현안을 협의했다.

양양문화원, 2022년 4차 이사회 개최

설악뉴스/2022.09.06./설악news 기자

양양문화원(원장, 박상민)은 6일 양양문화원 회의실에서 2022년 4차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양양문화원, 제5회 가을밤의 문화공연

설악뉴스/2022.10.11./설악news 기자



양양문화원이 주관한 제5회 가을밤의 문화공연 '남대천 문화를 품다'이 지난 7일 남대천둔치 수영장에서 개최되었다.



양양문화원, 회원 및 문화학교 수강생 유적지 답사

설악뉴스/2022.10.14./설악news 기자

양양문화원 회원 및 문화학교 수강생 100여명은 지난 13일 유적지답사로 영월 장릉단종역사관, 청령포, 조선민화박물관을 견학했다.



양양문화원 '제5회 가을밤 문화공연' 열려 문화원 프로그램 교실 수강생들 연주 선보여

설악신문/2022.10.17./김주현 기자



가을밤 문화공연을 마친 양양문화원 회원들이 단체 기념촬영을 했다.

양양문화원(원장 박상민)의 제5회 가을밤의 문화공연이 남대천 일원에서 열려 지역주민들에게 깊어가는 가을 정취를 전했다. '남대천 문화를 품다'를 주제로 지난 7일 오후 5시 30분 남대천에서 열린 이번 문화공연은 600합창단의 식전 공연에 이어 문

화원 프로그램 교실 수강생들의 사물놀이, 대금, 민요, 난타, 태평소, 통기타, 색소폰 공연이 펼쳐져 박수갈채를 받았다. 박상민 양양문화원장은 "생활 속에서 익힌 연주 실력을 지역주민들을 위해 선보인 열정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프로그램 운영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제12회 전국 동구리 전통민요경창대회 50개팀 참가

강원일보/2022.11.07./이규호 기자
8~9일 양양문화복지회관에서 개최

【양양】8~9일 양양문화복지회관에서 열리는 '제12회 전국 동구리 전통민요 경창대회'에 전국에서 50개팀이 참가한다.

양양문화원이 주관하는 이번 경창대회에는 전국에서 참여한 일반부 단체와 개인, 대학부의 소리꾼이 참여해 농요와 노동요, 어요 등 전통민요 실력을 겨루게 된다.

8일 예선과 9일 본선을 통해 통합대상 1개 팀과, 일반부 단체 최우수·우수·장려 4개 팀, 일반부 개인 최우수·우수·장려 4개 팀, 대학부 최우수·우수·장려 3개 팀, 동구리 소리상 10개 팀으로 총 22개 팀이 수상한다.

9일 본선 경연에 앞서 세조대왕의 행차를 복원·재현하는 행사를 거행하는 등 이색적인 볼거리가 제공된다. 한가람풍물패, 여울소리민요단, 강원민요연구원 등의 초청공연도 열린다.

전국 동구리 전통민요 경창대회는 조선시대 양양의 관노 출신임에도 뛰어난 노래 실력으로 세조로부터 악공으로 대우받은 소리꾼 '동구리'를 기리고, 우리 음악을 보전·전승하기 위해 2001년부터 개최해온 전통민요 경창대회다.

대회 관계자는 "대중적 명창보다는 전국 곳곳에 산재한 진정한 소리꾼을 발굴하는 행사로 동구리 경창대회를 진행하고있다"며 "이번 경창대회를 통해 국악 인재를 발굴하고, 계속해서 지역의 문화콘텐츠로 확대·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12회 전국 동구리 전통민요 경창대회 8일~9일까지 대학부, 일반부 개인·단체 포함 총 50개 팀, 152명 참여



설악뉴스/2022.11.07./송준현 기자

‘제12회 전국 동구리 전통민요 경창대회’가 8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 양양문화복지회관 2층 대공연장에서 펼쳐진다.

전국 동구리 전통민요 경창대회는 조선시대 양양의 관노 출신임에도 뛰어난 노래 실력으로 세조로부터 악공으로 대우받은 소리꾼 ‘동구리’를 기리고, 우리 음악을 보전·전승하기 위해 2001년부터 개최해온 전통민요 경창대회이다.

양양문화원에서 주관하는 이번 경창대회에는 전국에서 참여한 일반부 단체와 개인, 대학부의 소리꾼이 참여해 농요와 노동요, 어요 등 전통민요 실력을 겨루게 된다.

11월 8일 예선과 9일 본선을 통해 통합대상 1개 팀과, 일반부 단체 최우수·우수·장려 4개 팀, 일반부 개인 최우수·우수·장려 4개 팀, 대학부 최우수·우수·장려 3개 팀, 동구리 소리상 10개 팀으로 총 22개 팀을 시상할 예정이다.

특히 11월 9일 본선 경연에 앞서 세조대왕의 행차를 복원·재현하는 행사를 거행하는 등 이색적인 볼거리를 제공해 동구리 전통민요 경창대회의 역사적 유래를 알리고, 한가람풍물패, 여울소리민요단, 강원민요연구원 등의 초청공연이 열려 관객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할 예정이다.



대회 관계자는 “이번 경창대회를 통해 국악 인재를 발굴하고, 계속해서 지역의 문화콘텐츠로 확대·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12회 전국 동구리 전통 민요경창대회 개최 대학부, 일반부 개인·단체를 포함해 총 50개 팀, 152명 참여

유교신문/2022.11.07./전남표 기자

‘제12회 전국 동구리 전통민요 경창대회’가 8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 양양문화복지회관 2층 대공연장에서 펼쳐진다.

전국 동구리 전통민요 경창대회는 조선시대 양양의 관노 출신임에도 뛰어난 노래 실력으로 세조로부터 악공으로 대우받은 소리꾼 ‘동구리’를 기리고, 우리 음악을 보전·전승하기 위해 2001년부터 개최해온 전통민요 경창대회이다.

양양문화원에서 주관하는 이번 경창대회에는 전국에서 참여한 일반부 단체와 개인, 대학부의 소리꾼이 참여해 농요와 노동요, 어요 등 전통민요 실력을 겨루게 된다.

11월8일 예선과9일 본선을 통해 통합대상1개 팀과 일반부 단체 최우수·우수·장려4개 팀,일반부 개인 최우수·우수·장려4개 팀,대학부 최우수·우수·장려3개 팀,동구리 소리상10개 팀으로 총22개 팀을 시상할 예정이다.

특히11월9일 본선 경연에 앞서 세조대왕의 행차를 복원·재현하는 행사를 거행하는 등 이색적인 볼거리를 제공해 동구리 전통민요 경창대회의 역사적 유래를 알리고,한가람풍물패,여울소리민요단,강원민요연구원 등의 초청공연이 열려 관객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할 예정이다.

대회 관계자는 “대중적 명창보다는 전국 곳곳에 산재한 진정한 소리꾼을 발굴하는 행사로 동구리 경창대회를 진행하고있다”라며 “이번 경창대회를 통해 국악 인재를 발굴하고,계속해서 지역의 문화콘텐츠로 확대·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제12회 전국 동구리 전통민요 경창대회 9일 양양서 개막

뉴스핌/2022.11.07./이형섭 기자

[양양=뉴스핌] 이형섭 기자 = 제12회 전국 동구리 전통민요 경창대회가 8일 강원 양양문화복지회관 2층 대공연장에서 펼쳐진다.

7일 양양군에 따르면 8일~9일 이틀간 열리는 전국 동구리 전통민요 경창대회는 조선시대 양양의 관노 출신임에도 뛰어난 노래 실력으로 세조로부터 악공으로 대우받은 소리꾼 ‘동구리’를 기리고 전통 음악을 보전·전승하기 위해 지난 2001년부터 개최해온 전통민요 경창대회이다.

양양문화원에서 주관하는 이번 경창대회는 전국에서 참여한 일반부 단체와 개인, 대학부의 소리꾼이 참여해 농요와 노동요, 어요 등 전통민요 실력을 겨루게 된다.

또 9일 본선 경연에 앞서 세조대왕의 행차를 복원·재현하는 이



색적인 볼거리를 제공해 동구리 전통민요 경창대회의 역사적 유래를 알리고 한가람풍물패, 여울소리민요단, 강원민요연구원 등의 초청공연이 펼쳐진다.

양양문화원 관계자는 "대중적 명창보다는 전국 곳곳에 산재한 진정한 소리꾼을 발굴하는 행사로 동구리 경창대회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번 경창대회를 통해 국악 인재를 발굴하고, 계속해서 지역의 문화콘텐츠로 확대·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양군, '제12회 전국 동구리 전통민요 경창대회' 개최

nsp통신/2022.11.07./조이호 기자

(강원=NSP통신) 조이호 기자 = 강원 양양군(군수 김진하) 양양 문화복지문화회관 2층 대공연장에서 8~9일까지 2일간 '제12회 전국 동구리 전통민요 경창대회'가 개최된다.

전국 동구리 전통민요 경창대회는 조선시대 양양의 관노 출신임에도 뛰어난 노래 실력으로 세조로부터 악공으로 대우받은 소리꾼 '동구리'를 기리고 우리 음악을 보전·전승하기 위해 2001년부터 개최해온 전통민요 경창대회다.

양양문화원에서 주관하는 이번 경창대회에는 전국에서 참여한 일반부 단체와 개인, 대학부의 소리꾼이 참여해 농요와 노동요, 어요 등 전통민요 실력을 겨루게 된다.

8일 예선과 9일 본선을 통해 통합대상 1개 팀과, 일반부 단체 최우수·우수·장려 4개 팀, 일반부 개인 최우수·우수·장려 4개 팀, 대학부 최우수·우수·장려 3개 팀, 동구리 소리상 10개 팀으로 총 22개 팀을 시상할 예정이다.

특히 9일 본선 경연에 앞서 세조대왕의 행차를 복원·재현하는 행사를 거행하는 등 이색적인 볼거리를 제공해 동구리 전통민요 경창대회의 역사적 유래를 알리고 한가람풍물패, 여울소리민요단, 강원민요연구원 등의 초청공연이 열린다.

대회 관계자는 "대중적 명창보다는 전국 곳곳에 산재한 진정한 소리꾼을 발굴하는 행사로 동구리 경창대회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번 경창대회를 통해 국악 인재를 발굴하고 계속해서 지역의 문화콘텐츠로 확대·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양군, 제12회 전국 동구리 전통민요경창대회 개최

아주경제/2022.11.07./이동원 기자

대학부, 일반부 개인·단체를 포함하여 총 50개 팀, 152명 참여 강원 양양군에서는 '제12회 전국 동구리 전통민요 경창대회'가 8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 양양문화복지회관 2층 대공연장에서 펼쳐진다.

7일 양양군에 따르면 전국 동구리 전통민요 경창대회는 조선시대 양양의 관노 출신임에도 뛰어난 노래 실력으로 세조로부터 악공으로 대우받은 소리꾼 '동구리'를 기리고, 우리 음악을 보전·전승하기 위해 2001년부터 개최해온 전통민요 경창대회라고 밝혔다.

양양문화원에서 주관하는 이번 경창대회에는 전국에서 참여한 일반부 단체와 개인, 대학부의 소리꾼이 참여해 농요와 노동요, 어요 등 전통민요 실력을 겨루게 된다.

오는 8일 예선과 9일 본선을 통해 통합대상 1개 팀과, 일반부 단체 최우수·우수·장려 4개 팀, 일반부 개인 최우수·우수·장려 4개 팀, 대학부 최우수·우수·장려 3개 팀, 동구리 소리상 10개 팀으로 총 22개 팀을 시상할 예정이다.

특히 9일 본선 경연에 앞서 세조대왕의 행차를 복원·재현하는 행사를 거행하는 등 이색적인 볼거리를 제공해 동구리 전통민요 경창대회의 역사적 유래를 알리고, 한가람풍물패, 여울소리민요단, 강원민요연구원 등의 초청공연이 열려 관객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할 예정이다.

대회 관계자는 "대중적 명창보다는 전국 곳곳에 산재한 진정한 소리꾼을 발굴하는 행사로 동구리 경창대회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번 경창대회를 통해 국악 인재를 발굴하고, 계속해서 지역의 문화콘텐츠로 확대·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12회 전국 동구리 전통민요 경창대회, 8~9일 양양문화복지회관서 열려

파이낸스투데이/2022.11.09./박재균 기자

전국에서 참여한 일반부 단체와 개인, 대학부의 소리꾼이 실력 겨뤄 '제12회 전국 동구리 전통민요 경창대회'가 8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 양양문화복지회관 2층 대공연장에서 펼쳐졌다.

전국 동구리 전통민요 경창대회는 조선시대 양양의 관노 출신임에도 뛰어난 노래 실력으로 세조로부터 악공으로 대우받은 소리꾼 '동구리'를 기리고, 우리 음악을 보전·전승하기 위해 2001년부터 개최해온 전통민요 경창대회다.

동구리 전통민요 경창대회 포스터양양문화원에서 주관하는 이번 경창대회에는 전국에서 참여한 일반부 단체와 개인, 대학부의 소



리꾼이 참여해 농요와 노동요, 어요 등 전통민요 실력을 겨뤘다.

특히 11월 9일 본선 경연에 앞서 세조대왕의 행차를 복원·재현하는 행사를 거행하는 등 이색적인 볼거리를 제공해 동구리 전통민요 경창대회의 역사적 유래를 알리고, 한가람풍물패, 여울소리민요단, 강원민요연구원 등의 초청공연이 열려 관객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했다.

대회 관계자는 “대중적 명창보다는 전국 곳곳에 산재한 진정한 소리꾼을 발굴하는 행사로 동구리 경창대회를 진행하고있다”며, “이번 경창대회를 통해 국악 인재를 발굴하고, 계속해서 지역의 문화콘텐츠로 확대·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12회 전국 동구리전통민요경창대회 성료 춘천문화원 어울림 통합 대상... 전국적 위상 높여

설악신문/2022.11.14./김주현 기자

제12회 전국 동구리 전통민요 경창대회가 수준 높은 우리 소리 경연장으로 전국적인 위상을 높였다.

지난 8일 예선에 이어 9일 본선이 치러진 이번 대회에는 일반부 개인 37명, 일반부 단체 10팀, 대학부 3명이 참여해 자웅을 겨뤘다.

올해 통합 대상은 ‘정선아리랑’을 구성지게 열창한 춘천문화원 어울림(춘천)이 차지해 강원도지사 표창을 수상했다. 일반부 개인전 최우수상은 장순희(서울, 한오백년) 씨가, 우수상은 최진영(경북, 개령진산 쟁피훅는소리) 씨, 장려상은 강미선(영월, 상주아리랑)·이인재(경기, 신고산타령 등) 씨가 각각 수상했다. 일반부 단체전에서는 ‘삼척술비소리’와 ‘래지나칭칭나네’를 부른 아리랑보존회 동해시지부가 최우수상을, ‘이여도사나’를 열창한 주문진 민요반이 우수상, 송강가사문화보존회(경기)·동두천민요보존회(경기)가 장려상을 각각 받았다.

우리 소리의 미래를 짊어질 대학부에서는 ‘유산가’를 부른 최예림 씨가 최우수상, ‘육자배기’를 비롯해 5곡을 열창한 최인환 씨가 우수상, ‘금강산타령’을 구성지게 소리한 남수연 씨가 장려상을 안았다.

‘강원도아리랑’을 열창한 양양출신의 조복순 씨 등 9팀은 양양문화원장상인 동구리소리상을 받았다.

지난 2001년부터 시작한 양양 동구리 경창대회는 도 단위 대회

로 개최하기 시작한 후 2011년부터 전국대회로 치러지고 있으며, 올해까지 414팀, 1천5백여명의 소리꾼이 참가했다. 박상민 양양문화원장은 “일상 회복에 발맞춰 개최한 올해 양양 동구리 전통민요 경창대회가 전국적인 인지도와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며 “성공적으로 열린 올해 대회를 기반으로 양양군 문화예술의 위상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12회 전국 동구리 전통민요 경창대회가 성황리에 열렸다.

양양문화원, 조화벽 선양 문예대회 공모전 수상자 선정

강원일보/2022.11.24./이규호 기자

【양양】양양문화원이 주관하고 양양군이 지원하는 ‘조화벽 선양 문예대회 공모전’이 마무리됐다.

‘조화벽 선양 문예대회 공모전’은 양양출신 조화벽 지사의 업적을 기리고 양양만세운동을 알리고 애국심과 민족정기를 선양하기 위해 강원도내 초·중·고학생을 대상으로 지난 9월 19일부터 시·산문·포스터 3가지 부문의 공모 접수를 받았다.

지난 11월 14일부터 15일까지 2일간 양양문화원에서 접수된 47개 작품을 심사해 이 중 17개 작품을 최종 선정했다.

시·산문·포스터 부문별로 훈격은 대상 강원도교육감, 최우수상 양양군수, 우수상 양양군의회의장, 장려상·노력상 양양문화원장이다. 이번 공모전에서 수상한 작품들은 오는 12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양양문화복지회관에 전시될 예정이다.



양양문화원, 조화벽 선양 문예대회 공모전 종료

설악뉴스/2022.11.24./송준헌 기자

양양문화원이 주관하고 양양군이 지원하는 '조화벽 선양 문예대회 공모전'이 지난 11월 18일 마무리됐다. '조화벽 선양 문예대회 공모전'은 양양출신 조화벽 지사의 업적을 기리고 양양만세운동을 알리며, 애국심과 민족정기를 선양하기 위해, 지난 9월 19일부터 시·산문·포스터 3가지 부문으로 하여 강원도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공모 접수를 받았다.

총 47개 작품이 접수된 가운데, 지난 11월 14일부터 15일까지 2일간 양양문화원에서 작품을 심사하여, 11월 18일에 17개 수상작품을 최종 선정하였다.

시·산문·포스터 부문별로 훈격은 △대상 강원도교육감 △최우수상 양양군수 △우수상 양양군의회의장 △장려상·노력상 양양문화원장이며, 별도 시상식 없이 상장·상패는 해당 학교로 송부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공모전에서 수상한 작품들은 오는 12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양양문화복지회관에 전시될 예정이다.

양양문화원 관계자는 "조화벽 지사를 비롯한 선조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자 공모전을 실시하게 되었으며, 민족의 애국정신을 알리고 자긍심과 애항심을 높이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양문화원, 조화벽 선양 문예대회 공모전 수상자 발표

이뉴스투데이/2022.11.24./우정연 기자

[이뉴스투데이 강원취재본부 우정연 기자] 양양문화원이 주관하고 양양군이 지원하는 '조화벽 선양 문예대회 공모전'이 지난 18일 마무리됐다고 24일 밝혔다.

공모전은 양양출신 조화벽 지사의 업적을 기리고 양양만세운동을 알리며 애국심과 민족정기를 선양하기 위해 지난 9월 19일부터 시·산문·포스터 3가지 부문으로 도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공모 접수를 받았다.

문화원은 총 47개 작품이 접수된 가운데 지난 11월 14일부터 15일까지 양양문화원에서 작품을 심사해 거쳐 17개 수상작품을 최종 선정했다.

시·산문·포스터 부문별로 훈격은 △대상 강원도교육감 △최우수상 양양군수 △우수상 양양군의회의장 △장려상·노력상 양양문화원장이며 별도 시상식 없이 상장·상패는 해당 학교로 송부될 예정이다.

이번 공모전에서 수상한 작품들은 내달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양양문화복지회관에 전시될 예정이다.

양양문화원 관계자는 "조화벽 지사를 비롯한 선조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자 공모전을 실시하게 됐다"며 "민족의 애국정신을 알리고 자긍심과 애항심을 높이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양군, 조화벽 선양 문예대회 공모전 수상자 발표

nsp통신/2022.11.24./조이호 기자

(강원=NSP통신) 조이호 기자 = 강원 양양군(군수 김진하) 양양문화원이 주관하고 양양군이 지원하는 '조화벽 선양 문예대회 공모전' 수상자가 발표됐다.

'조화벽 선양 문예대회 공모전'은 양양출신 조화벽 지사의 업적을 기리고 양양만세운동을 알리며 애국심과 민족정기를 선양하기 위해 지난 9월 19일부터 시·산문·포스터 3가지 부문으로 하여 강원도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공모 접수를 받았다.

총 47개 작품이 접수된 가운데 14일부터 15일까지 2일간 양양문화원에서 작품을 심사해 18일에 17개 수상작품을



조화벽 선양 문예대회 공모전 포스터. (사진 = 양양군)



최종 선정했다.

시·산문·포스터 부문별로 훈격은 ▲대상 강원도교육감 ▲최우수상 양양군수 ▲우수상 양양군의회의장 ▲장려상·노력상 양양문화원장이며 별도 시상식 없이 상장·상패는 해당 학교로 송부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공모전에서 수상한 작품들은 12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양양문화복지회관에 전시될 예정이다.

양양문화원 관계자는 “조화벽 지사를 비롯한 선조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자 공모전을 실시하게 됐으며 민족의 애국정신을 알리고 자긍심과 애乡심을 높이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양의 인물, 양양만세운동을 주도한 '조화벽' 애국 지사

파이낸스투데이/2022.11.25./박재균 기자

양양문화원이 주관하고 양양군이 지원하는 '조화벽 선양 문예대회 공모전'이 지난 11월 18일 마무리됐다. 그렇다면 조화벽 지사는 어떤 인물일

까? 조화벽 애국 지사[조화벽 지사 공적 요약] 조화벽 지사는 양양감리교회 전도사 조영순과 어머니 전미흠 사이에 무남독녀로 양양면 남문리에서 태어났으며, 개성 호수돈여학교를 다니며, 교사와 학생들로 구성된 비밀 독립운동단체 '호수돈 비밀결사대'에 가입했다. 호수돈 비밀결사대의 노력으로 개성에서 독립만세운동이 벌어지자 일제는 휴교령을 내리게 되고, 조화벽 지



사는 고향에 독립만세운동의 불씨를 전달하기 위해 직접 필사한 3·1 독립선언서를 가방안의 버선목에 숨겨 양양으로 돌아왔다. 그녀가 목숨을 걸고 가져온 독립선언서가 지역청년들에게 전달된 결과 4월 4일부터 9일까지 매일매일 6개면 82개 동리에서 연인원 1만5천여명이 독립만세 운동에 참가할 수 있었다. 이후 조화벽 지사는 신문을 숨기고 피신했다가 개성으로 돌아가 학업을 마친 후 교사가 되었고, 유관순 열사의 오빠인 독립운동가 유우석과 인연이 닿아 1923년 그와 결혼했다.

1932년엔 농촌의 학생들을 위해 양양에 정명학원을 개원하여 13년 동안 총 600여명의 졸업생들을 배출하고, 이들에게 항일 독립정신을 심어주는 등 지역활동가로 역할을 다했다.

조화벽 지사는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1982년 대통령 표창을,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 받았으며 오늘날 춘천의 유희순 의병장, 철원의 광진근 지사와 함께 강원도의 3대 여성 독립운동가로 꼽히고 있다.

양양문화원, 조화벽 선양 문예대회 수상자 발표

파이낸스투데이/2022.11.25./박재균 기자

양양만세운동을 주도한 조화벽 지사의 업적을 기리는 행사 양양문화원이 주관하고 양양군이 지원하는 '조화벽 선양 문예대회 공모전'이 지난 11월 18일 마무리됐다.

'조화벽 선양 문예대회 공모전'은 양양출신 조화벽 지사의 업적을 기리고 양양만세운동을 알리며, 애국심과 민족정기를 선양하기 위해, 지난 9월 19일부터 시·산문·포스터 3가지 부문으로 하여 강원도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공모 접수를 받았다.

총 47개 작품이 접수된 가운데, 지난 11월 14일부터 15일까지 2일간 양양문화원에서 작품을 심사, 11월 18일에 17개 수상작품을 최종 선정했다. 이번 공모전에서 수상한 작품들은 오는 12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양양문화복지회관에 전시할 예정이다. 수상자 명단은 아래와 같다.



□ 수상자

부문	상	훈격	학교명	성명	비고
시	대상	강원도교육감	상명초현서분교	이*혁	
	최우수상	양양군수	평창초등학교	최*호	
	우수상	양양군의회의장	양양초등학교	오*진	
	장려상	양양문화원장	죽왕초등학교	전*민	
산문	대상	강원도교육감	교동초등학교	남*은	
	최우수상	양양군수	상명초현서분교	최*서	
	우수상	양양군의회의장	양양초등학교	진*성	
	장려상	양양문화원장	청대초등학교	김*준	
포스터	대상	강원도교육감	양양초등학교	임*화	
	최우수상	양양군수	양양초등학교	이*유	
	우수상	양양군의회의장	양양초등학교	주*은	
	장려상	양양문화원장	남호초등학교	이*음	
			양양초등학교	전*을	
	노력상	양양문화원장	술성초등학교	장*음	
양양초등학교			이*혁		
정봉초등학교			황*희		
		양양초등학교	김*안		
합계			17명		

양양문화원, 조화벽 선양 문예 대회 공모전 수상자 발표
양양 만세운동에 기여한 조화벽 지사의 업적을 기리며, 수상 작품 17개 선정

유교신문/2022.11.25./전남표 기자

강원도 양양문화원이 주관하고 양양군이 지원하는 '조화벽 선양 문예대회 공모전'이 지난 11월18일 마무리됐다.

'조화벽 선양 문예대회 공모전'은 양양 출신 조화벽 지사의 업적을 기리고 양양 만세운동을 알리며, 애국심과 민족정기를 선양하기 위해, 지난 9월19일부터 시·산문·포스터 3가지 부문으로 하여 강원도 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공모 접수를 받았다.

총 47개 작품이 접수된 가운데, 지난 11월14일부터 15일까지 2일간 양양문화원에서 작품을 심사하여, 11월18일17개 수상작품을 최종 선정했다.

시·산문·포스터 부문별로 훈격은 ▷대상 강원도교육감 ▷최우수상 양양군수 ▷우수상 양양군의회의장 ▷장려상·노력상 양양문화원장이며, 별도 시상식 없이 상장·상패는 해당 학교로 송부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공모전에서 수상한 작품들은 오는 12월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양양문화복지회관에 전시될 예정이다.

양양문화원 관계자는 "조화벽 지사를 비롯한 선조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자 공모전을 실시하게 되었으며, 민족의 애국정신을 알리고 자긍심과 애乡심을 높이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조화벽 선양문예대회 공모전 수상자 공고

조화벽 선양 문예대회 공모전 3개 부문 17개 수상작 선정
양양문화원 12월 6~8일 전시

설악신문/2022.11.28./김주현 기자

양양문화원이 주관하고 양양군이 지원한 '조화벽 선양 문예대회 공모전'이 지난 18일 모두 마무리됐다.

'조화벽 선양 문예대회 공모전'은 양양출신 조화벽 지사의 업적을 기리고 양양만세운동을 알리며 애국심과 민족정기를 선양하기 위해 지난 9월 19일부터 시·산문·포스터 등 3개 부문에 걸쳐 강도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공모했다.

이번 공모전에는 총 47개 작품이 접수된 가운데 지난 14~15일 심사를 거쳐 18일 분야별로 17개 수상 작품을 최종 선정했다.

수상작은 부문별로 대상 도교육감 표창, 최우수상 양양군수 표창, 우수상 양양군의회 의장 표창, 장려상과 노력상 양양문화원장 표창이 수여됐다. 문화원은 오는 12월 6~8일 3일간 양양문화복지회관에서 이번 공모전 수상작 전시회를 열 예정이다.



양양문화원 문화학교 수료식

강원도민일보/2022.12.06./최훈 기자



▲ 양양문화원(원장 박상민)은 6일 양양문화원과 일출예식장에서 문화학교 수료식 및 작품전시회를 개최했다.

[포토뉴스]양양문화원 문화학교 수료식

강원일보/2022.12.06./이규호 기자

양양문화원(원장:박상민)은 6일 양양문화원과 일출예식장에서 문화학교 수료식 및 작품전시회를 개최했다.

양양문화원 문화학교 수료식 및 작품전시회

설악뉴스/2022.12.06./설악news 기자



2022.12.6~12.8(3일간) 2022 양양문화원 문화학교 수료식 및 작품전시회가 일출웨딩홀2층에서 열린다.

편집후기

존경하는 문화원 회원 여러분!

2023년 계묘년(癸卯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전 세계가 지구 온난화로 인해 날씨의 변동이 심한 이때 사계절의 변화는 찾을 수 없으며 겨울에도 봄꽃이 피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고, 지난해도 계속되는 코로나로 힘든 일상을 보냈습니다.

지난해는 양양문화원에서는 바쁜 일상을 보냈으며 제13대 박상민 원장님께서 취임하셨고, 문화원 사업으로 전국대회로 제7회 전국 한시백일장, 제12회 전국 동구리전통민요 경창대회를 비롯한 문화공연, 양양의 여성 독립운동가인 조화벽 지사 선양사업과 문화학교 23개 반과 조선시대 천재음악가 허억봉 선양사업으로 대금반을 운영하였습니다.

문화원 임원과 회원여러분들께서 모든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덕분에 무사히 모든 행사를 잘 마무리하였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어려운 상황임에도 열심히 도와주신 양양문화원 임원과 문화원 회원 그리고 회원 가족 여러분들께 감사함을 전합니다.

회원여러분!

새해에는 좀 더 발전되고 나은 문화생활을 위해 “회원 간에 화합하고, 행사에 참여하고, 문화를 즐기고”를 몸소 실천합시다.

새해에는 양양군민들의 화합과 소통을 바탕으로 행복한 문화생활을 위해 노력하며 향토 문화발전을 위해 회원분들께서 선구자 역할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2023년 계묘년 토끼띠해에는 모든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양양문화원 사무국장 김진하

양양문화 제34호

2022年 12月 29日 印刷

2022年 12月 30日 發行

발행인 : 박 상 민

편집인 : 김 진 하

발행처 : 襄陽文化院

인쇄처 : 대양프리컴

행복한 오늘, 희망찬 내일을 위해 늘 함께하는 양양새마을금고

언제나 곁에서 힘이 되어주는 든든한 이웃처럼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나가는
금융협동조합이 되겠습니다.



MG양양새마을금고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양양로 59

TEL : 033) 671-4413 , 4414

FAX : 033) 671-4415

이사장 : 김 상 우

전 무 : 이 준 희



대한불교조계종

꿈이 이루어지는 낙산사

낙산사 대중일동



무산사(양양포교당)

낙산유치원	강원파라미타청소년협회
낙산사 템플스테이	낙산사 불교대학
낙산사 불자마을(용호리, 낙산, 사천리, 손양면)	

무산복지재단

낙산요양원	노인복지센터
양양군노인복지관	의상도서관
무산지역아동센터	1318무산지역아동센터
양양군가족센터	